



5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5호

(루게 367)



◆◆◆◆◆◆◆◆◆◆ 차 례 ◆◆◆◆◆◆◆◆◆◆

보통강기슭에서	2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우에	3
창박엔 한여름이 깊어가도	3
삼지연 맑은 물	4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써만 조선혁명의	5
밝은 앞길이 열려졌음을 형상적으로	5
보여준 예술적화폭	5
가정혁명화의 참다운 길을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	12
첫번째 보고	15
새 단조공들	24
탄부의 이 마음(외 1 편)	35
권양기운전 공동무에게	35
그대 바라보는곳에	36
탄부, 나의 보고	37
기사 자격증	38
주라격방향의 척후병들	43
생활과 시인의 눈	47
불길	49
좋은 봄날에	50
써레질하기 나는 좋아	51
날마다 울리는 기적소리	52
바다우의 유치원	53
행복한 밤에	54
철학적내용의 깊이	55
언어형상의 생동성	57
사회주의농촌현실과 시형상	60
력사소설 현상모집요강	64

보통강기슭에서

문동식

환희로운 저녁
나는 걷는다
서늘러운 강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록음이 우거져 온갖새 우짖는
보통강기슭을

기쁨에 젖어
걸음걸음 내딛는 자욱
강반은 휘우듬히 저 멀리 뻗었는가
성실한 로동으로
또하루 조국을 섬긴
나의 희망찬 미래를 안아
노을비긴 하늘은 창창히 열렸는가

애무의 손길인양
실실히 드리워 흐느적이는
푸른 버들가지에 불을 스치면
끓음에 약동하는 푸른 봄빛이
내 가슴에 흘러드는듯
강반에 피어난 청초한 꽃을 보면
내 마음도 꽃으로 피어나는듯

아, 행복하여라
바라보면 하나의 풀잎도
노을빛에 물든 은금물결도
다정한 속삭임
부드러운 손길처럼
내 가슴 휘저으며 설레이거니

강반이여,
보통강반이여
원한의 락류만이 흐느끼던 네 기슭에
언제부터 사랑의 대하 굽이쳤더냐
횡포한 물갈기 운명을 빼앗던
토성랑 네 기슭에
언제부터 사랑의 대하 굽이쳤더냐

감사에 넘쳐 옷깃을 여민다
빛나는 안광으로
인민의 봄하늘을 여시며
질곡의 력사를 밀어내시듯
거룩한 자욱을 이 기슭에 찍으시며
저물도록 강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던
아버이 수령님의 그날의 영상을 우러러

굴욕의 캄캄한 어둠속에서
슬픔의 눈물짓던 그 눈동자들에
행복의 노래가 넘치는
저 푸른 하늘을 안겨주시려
원한으로 숨막히던 그 가슴들에
맑은 공기
이토록 그윽한 꽃향기 넘쳐나게 하시려
락원의 설계도를 펼쳐주신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이여

아, 강산도
흐르는 세월도
인민을 위해 가꾸시고 꽃피워 주시는
크나큰 그 사랑

그 사랑을 안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들에
행복의 웃음꽃 피어나라고
이 강반에 꽃은 피고 새들은 우짖어라
근로의 희열이 넘치는 가슴들에
끓음의 열정이 솟구쳐오르라고
기슭에 잔디는 저리도 푸르러

아, 인간의 존엄과 권리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나는 오늘도 보통강반을 걷고있어라
끝없는 삶의 기쁨을 안고
위대한 사랑의 상상봉을 걷고있어라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우에

김종백

어버이수령님을 맞이한 감격에
끓어오르는 환호, 높이 울리는 기계소리-
하늘같은 채광창에 내린 못별도
기뻐서 흐느끼던 공장의 그 밤에

얼마전에 선반기를 맡았다는
애절한 한 노동자의 기대결에 걸음 멈추시고
그가 깎은 하나의 작은 부속도
천만근 무겁게 헤아려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순간 무엇을 보시였는가
해빛같은 웃음 담으시고
수령님 다가서시는 기대앞에
일하면서 볼수있게 붙인 한장의 글쭉지...
과학의 높은 령마루를 뚫아오른 자국인듯
깨알같이 박아쓴 수학공식을
오래오래 보아주시더니

감격의 눈물을 머금은
기대공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여라
-항일의 나날 백두의 행군길에서도
유격대원들은 이렇게 공부하였소
앞사람의 배낭에 글쭉지를 붙이고...
우리 잘 도와주어
이 동무들을 대학생으로 키웁시다!

아 새 세기의 빛나는 려명이 비쳐온
백두의 령봉 성스러운 행군길우에
이름없는 공장의 레사로운 일터도
높이높이 이끌어 올리시며
수령님 온 공장 한가득 사랑의 해발을 안겨주실 때

빛나고있었다
기대앞에 켜진 작은 작업등도
밀영의 창가에 비치던 밝은 불빛을 안고
백두의 우등불가에서 한밤을 지새우시며
친히 대원들의 학습장에 적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어린 글발이
기대앞 글쭉지에 옮겨져 빛을 뿌리며...

원췌의 목덜미를 내려치던 슬기찬 장검인가
창너머 번개치는 용접광
백두의 산발을 뒤쫓던 승리의 함성이
공장의 기계소리되어 뜨겁게 이어지던 순간-

하늘처럼 둥근 채광창에 비껴오고있었다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이
바야흐로 가닿을 빛나는 그곳
공산주의 하늘에서 비쳐오는 첫 빛발이
평범한 우리의 모든 생활우에 없어지는
찬란한 해빛이 되여, 해빛이 되여...

창밖엔 한여름이 깊어가도

리치운

창너머 피약별 쏟아지는 벌엔
싱싱한 벼포기 푸르려 설레이고
하늘아닌 여기
하조장의 천정에선
흰눈이 내리네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던

못잊을 그 겨울
소리없이 내리는 흰눈을 받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서계시던 여기

눈처럼 희디흰 비료가 쏟아질
공장을 여기 일떠세우자고
설계도면을 펼쳐보시며

뜨겁게 하시던 그 말씀이여

높으신 그 뜻, 그 사랑을 안고
온 나라 온 들에 내리던
그날의 그 함박눈인가
자동차로 기차로 실어내고 실어내도
쌓이고 쌓이는 비료산의 흰눈

해마다 솟아오를 만풍년의 난가리
이 땅에 설레일 인민의 기쁨 위해
눈내리는 그 겨울 위대한 자욱을 찍으시던
그 사랑 못잊어
흰눈이 여기 내리네

아, 봄이 와서 씨앗은 움이 트는가
가을이 와서 열매는 탐스럽게 영그는가
봄, 여름, 가을 없이 이 땅에 사랑이 내려서

곡식은 푸르싱싱 아지를 치고
오곡은 다투어 이삭꽃을 피우고
백과는 주렁져 가지마다
황금이 무르익는 내 나라

사랑의 물노래에 뿌리는 내리고
기계화의 손길아래 곡식이 자라
화학화의 노래속에 만풍년드는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긴 땅이여

눈이 내리네
들에도 언덕에도
피약벌은 쏟아져도
여기 하조장의 천정에선
사시장철 흰눈이 내리네
하늘도 해도 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 사랑이 여기 내리네

삼지연 맑은 물

서진명

오랜날을 두고 기다리더니
장군님 모신 환희로 일렁이는 삼지연
못가에 구슬져 부서지는 물방울은
어머니조국의 눈물이었네

물결이 그대로 기쁨이 되게
기슭의 진달래도 비껴안았네
푸른잎새 흔드는 하얀 붓나무
흰구름 피는 하늘, 병풍같은 푸른숲...

삼가 아뢰고픈 말은 많아도
행복에 겨워서 물결만 넘실
넘실대는 못가를 장군님께서 거니시고
한줌 흙에서도 조국을 느끼던 유격대원들
감격에 목메여 눈굽을 적시고...

멀고먼 싸움길에 그립던 감회

한모금의 물로 어찌 다 풀었으랴
일행천리 싸움길로 대오가 떠날 때
떨어져서 살수 없는 조국의 마음
따라섰네, 삼지연의 맑은 물 되어

깃뺏혀 사는 땅, 정깊은 향촌
고생많은 혈육을 꿈속에서 만난듯
두고 가는 정이 커서 그 몇번 돌아보고
다시 만날 그날이 있어 발걸음 다그치는
유격대원들의 물통마다 출렁
유격대원들의 달아오른 가슴마다 출렁...

아, 끝없이 이어지는 혈전만리길
낮설은 땅, 불타는 성시를 지나도
삼지연 맑은 물은 대오와 함께 갔네
마를줄 모르는 조국의 젖줄기되어
천년을 함께 살 조국해방의 노래가 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써만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이 열려졌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준 예술적화폭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에 대하여-

장영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석운기 작)이 창작되어 세상에 나온지 벌써 여러해가 지나갔다. 그러나 이 작품이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과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서 노는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가고있다. 그것은 이 장편소설이 혁명적작품창작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훌륭히 구현한 성과작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역사적사건들을 줄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면 과연 하나의 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이 교시는 혁명적대작의 본질적요구와 그 창작방도를 명시하신 귀중한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이 계신 이후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들의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면서 혁명적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렸으며 그 과정에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만 하더라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 가운데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그가 포괄하고있는 시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나 제기한 사상주체적과제의 심오성에 있어서 그리고 당시의 각계각층 인물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고 구성의 완벽성과 언어문체의 개성적특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특출한 성과를 거둔 작품의 하나이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1930년대초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쇼폭압통치의 강화와 대륙침략의 확대, 그를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제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역사적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은 1930년대전반기 일본에서 대두한 파쇼적세력들이 군사파쇼독재정부를 세우기 위한 군사정변을 련이어 일으킨 내용으로부터 파쇼군벌의 만주

진출과 《9.18사변》의 조작,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과 종파분자들의 과벌투쟁으로 인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우여곡절, 동만에서의 5.30 폭동의 좌경모험주의적성격과 그 해독적후과, 반일혁명력량의 급속한 발전을 시대적환경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역사적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비롯한 중요한 역사적사건들을 작품줄거리의 바탕으로 보여주면서 투쟁속에서 자라나는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나갔다. 그리하여 작품은 1930년대초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정세를 폭넓게 보여주고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제로의 발전과정의 본질적내용을 깊이있게 그린 혁명적대작의 품위를 갖추수있게 되었다.

이 장편소설이 혁명적대작으로서의 예술적품위를 갖추게 된것은 그것이 1930년대초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을 다 포괄하면서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그려냄에 있어서 원형과 전형과의 관계문제, 작품의 종자의 제시와 그를 꽃피우기 위한 형상작업의 수준보장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한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이 장편소설에 그려진 사건들은 당시의 실제한 역사적사실들에 기초한것이 적지 않다. 기본주인공의 운명발전선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줄거리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의 실제한 투쟁사실과 비슷한 점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장편소설은 혁명투쟁에서 희생된 혁명동지들의 투쟁업적과 생활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함에 있어서 원형과 전형 문제를 옹계 해결할데 대한 주체적문제사상의 기본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 실제한 사실을 전기식으로 보여준것이 아니라 작품의 사상주체적과제해결의 각도에서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이 장편소설이 제기한 사상주체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위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으며 민족해

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이 옳은 길을 따라 정확히 발전할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모심으로써만 조선혁명의 앞길이 환히 열리고 우리 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옹계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상이다.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의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역할에 대한 예술적해답, 이것은 주체의 혁명문학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기본과업의 하나이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의식화, 조직화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실제로 큰 역할을 놀지 못한다. 오직 의식화, 조직화 될때에만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하나의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은 오직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수행될수 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에 더욱 광범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들앞에 위대한 력사적변혁의 과업이 나서면 나설수록 더욱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심각한 교훈과 귀중한 경험히 가르쳐주는 이 엄연한 진리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충성심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것은 오늘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일익을 맡고있는 우리 문학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혁명문학앞에 나선 이 중대한 과제를 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이 어떻게 극복되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형상적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었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이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창작에서 새롭게 해결한 혁신적의의가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만 우리 인민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요람기에 있었던 본질적약점을 극복하고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로선, 전략전술에 의하여 조선혁명을 정확히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는 중대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옹계 해결하기 위하여 작품을 두개의 편으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제1편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던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

도를 받게 되는 과정까지를 그리고있으며 제2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한 혁명투쟁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을 묘사하고있다.

작품은 이렇게 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되는 장면을 분수령으로 하여 그 이전의 혁명투쟁과 그 이후의 혁명투쟁의 본질적차이를 두개의 편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설의 종자를 깊이있게 형상화하였다.

실례로 이 장편소설에 묘사된 하강지구에서의 두번의 폭동을 대조적으로 비교할수 있다.

간도폭동에 대한 소식에 접한 하강지구의 혁명가들은 혁명적열정을 안고 대중을 선동하며 안골의 간악한 토호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으나 반동군벌들과 야합한 놈들의 무력적탄압에 의하여 아까운 희생만 남기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제2편에서의 안골농민들의 대중적폭동은 일제침략자들과 직접 맞선 더 간고한 투쟁이었지만 드디어 성공하였다.

지대도 그 지대요 군중도 그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두 폭동은 이렇게도 차이나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은 전자가 동맹자를 전취하지 못하고 정확한 전략전술도 없이 좌경모험주의에 의하여 지도되었다면 후자는 일체 반일력량을 총동원하고 반동의 모략을 짓부실수 있는 정확한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지도된데 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종파주의와 좌경모험주의의 해독적영향으로부터 혁명을 구원할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편소설은 파란곡절과 쓰라린 실패로 가득찼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만 비로소 빛나는 승리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으며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침내 조선혁명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할수 있게 되었다는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력사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위대한 역할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 장편소설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형상은 작품의 종자해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학생시절에 벌써 일화배척투쟁과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진चे 조선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권위와 신망을 받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강도 일제침략군의 대륙침략전쟁이 더욱 로골화되고 조선인민에 대한 전대미문의 파썸폭압통치가 강화되자 무장한 반혁명세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할데 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핵심적골간육성과 광범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유격근거지의 창설과 유격활동의 대중적

지반축성 등 반혁명세력을 격파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심과 함께 몸소 고난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인민은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장편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고매한 품모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형상작업에 커다란 주의를 돌리였다.

소설의 주인공인 유철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워주시기 위한 그이의 심려만이라도 상기하여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뜻을 품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정확한 투쟁방법을 찾지 못하여 해매이는 주인공 유철이의 심중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가 길림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적들의 흉계로부터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시며 그를 혁명의 사령부로 불러주시였다. 항일유격대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몹시 바쁘신 몸이심에도 그이께서는 유철을 뜨겁게 맞아주시고 많은 시간을 내시여 그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였다.

복잡다단한 정세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한 정확한 투쟁로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알려주시고 종이에 연필로 일일이 글을 써가시면서 유철이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중심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유철의 안해가 조직을 지켜싸우다가 적들에게 희생되었다는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면서 그가 생전에 남편에게 못다 기울인 사랑을 넘려하시여 그에게 답품을 해주시고 새하얀 아기양털의투를 주시며 자신께서 직접 쓰시던 권총까지 선물로 주시는 수령님, 전사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른새벽 눈덮인 산언덕에 나오셨다가 다람쥐굴을 발견하시고서는 유철이와 함께 그것을 털려고 하시다가 그가 다람쥐를 보자 집의 아이생각을 한다는것을 느끼시고 곧 그 감정을 바꾸어주시는 세심한 배려.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으며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면서 인민대중을 혁명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로동계급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 혁명전사들과 근로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하기에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위대한 수령님

을 조선혁명의 령도자로 모시게 되었을 때의 유철의 심정은 말할수 없는 감격으로 설레였다.

이 장편소설에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주인공 유철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천명되고있다.

가정환경과 생활처지의 영향으로 일찌기 투쟁의 길에 나선 유철(박진규)은 혁명위업에 충실할것을 맹세다지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방황하고있다. 혁명에 바친 열정에 비하여 얻은것이란 너무나도 가슴아픈것뿐이였다.

급변하는 정세를 통감하고 혁명을 갈망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유철, 서울서대문형무소의 침침한 감방에 갇혔던 《정의부령감》을 비롯한 민족주의운동자들도 모두 기가 꺾여 서리맞은 풀처럼 시들어갔고 한때 기업을 토하던 류행식باط스주의자들도 준엄한 현실에서 도피하였으니 과연 조선의 운명을 건질 힘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4년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치고 간도에 들어갔으나 사랑하는 처자와 단란한 시각을 보낼 사이도 없이 또다시 쫓겨다녀야 했던 그 할미령덕밑에서 5명의 동지들을 구출하기 위한 격전을 벌였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하강지구의 혁명조직을 찾아가 그들의 폭동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였으나 그것도 역시 실패하여 그는 결국 두번째의 옥중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소설은 이처럼 유철이의 우여곡절에 찬 생활로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혁명가들이 아무리 혁명에 충실하려고 하여도 정확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모르고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파오와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 진리를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유철이가 시련에 찬 혁명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그 진리는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참다운 혁명가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데서 더욱 확증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과 크나큰 사랑을 안고 하강지구에 나간 유철은 백리허일대의 혁명조직을 새형의 혁명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를 핵심적골간으로 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간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 현철성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하고 진가네 목재판마부로 들어가 안골을 혁명화하며 꼬지개섬을 근거지로 한 무장대오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킨다. 그 과정에는 시련과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자로 하여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함으로써 완고한 민족주의자 박병섭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는 문제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조직된 혁명력량으로 반혁명세력의 음

모를 짓부시기 위한 폭동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유철의 이러한 성격발전과정은 그가 사회와 인간에 대한 그리고 혁명에 대한 주체의 관점, 주체의 세계관을 세워나가는 과정으로 묘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업을 받고 떠나온지 1년반 안에 백리허반일유격대의 조직과 그의 첫 전투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김기창을 그이께로 떠나보내는 유철의 마음은 그 얼마나 감격에 설레이고있는가.

실로 유철의 형상은 혁명투쟁에서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실지 체험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하는 조선혁명가의 참다운 전형이다.

소설은 유철의 우여곡절에 찬 혁명투쟁로정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보람찬 혁명활동을 통하여 혁명가의 일생이라는것이 비록 간고한것이기는 하지만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그것은 가장 보람찬것이며 인간을 참답게 사랑할줄 아는 참다운 인간의 아름다운 생활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또한 지난날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여 모태기면서 분별없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아 쓰라린 실패를 겪다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능숙한 지하공작원으로 자라난 리용수를 비롯하여 하강지구의 혁명조직 자위대원 김기창, 5촌아재비인 민주주의자 박병섭으로 하여 고민하던 농촌청년 박두성, 지식인출신인 녀성혁명이 로혜숙,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의 후과를 극복하지 못하여 대중과 리탈하고 극좌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다가 유철의 지도밑에 점차 주체형의 혁명가로 개조되는 김익보, 군벌주의로 군중로선관철에 지장을 주던 중강지구의 무장소조대장 정대호 등 많은 각양각색의 인물들의 성격발전, 주체형의 혁명가로의 발전과정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이 모든 다양한 성격들의 주체형의 혁명가로의 발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길에서 혁명대오안의 주체사상화, 유일사상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인 형상으로써 보여준 화폭이기도하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혁명의 시련을 거쳐 점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혁명가들의 개성적성격과 함께 지난날에는 인간으로서의 자주적권리를 의식하지조차 못하고있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해빛아래 해바라기와도 같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침내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고 혁명의 길로 나서는 주삼녀와 쌍가매, 봉이, 김삼덕 등에 대한 성격들도 다양하게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유철의 안해 주삼녀는 소박한 조선녀성의 전형이다.

그는 지난날 봉건료리도덕의 세습적영향으로 주

어진 운명에 몸을 맡길줄만 알고 수집기만 한 글도 모르는 순박한 녀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그에게도 운명에 순종할것만 요구하지 않았다. 남편을 찾아 간도에서 서울까지 수천리길을 걸어서 다녀온 그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뜻대로 혁명의 길에 나선것이다.

삼녀의 성격은 특히 지하공작원 리용수의 지도밑에 더욱 급격히 발전하였다. 리용수의 지시에 따라 그는 밤중에 옷마늘로 연락을 다녀오기도 하고 율케인 순옥에게 혁명적영향을 주기도 하며 마침내는 놈들을 유인하여 적의 포위로부터 지하조직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그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몇몇이 싸운 궁지가 있으며 사랑하는 딸 현아가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남편과 다정한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도 순박하지만 남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지닌 삼녀, 그의 이 외유내강한 성격이야말로 조선녀성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성격적특징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쌍가매는 안골의 토호 정희점의 식모로서 삼녀보다 사회적처지가 더 비참하다.

지주집의 힘겨운 부엌일을 다 맡아보면서도 차례지는것은 오직 육과 매질뿐, 하지만 그는 비판을 모르고 쾌활하며 그 무엇에도 휘여들지 않는 발랄한 성격의 새세대이다.

유철의 지도밑에 계급적으로 각성되게 되고 자기의 존엄을 지켜 지주년놈들과 결연히 맞서 싸우는 쌍가매의 모습은 어두운 착취계급사회에 비쳐든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받아안은 새세대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축도이다.

혁명조직의 지도밑에 반일유격대에 들어간 쌍가매가 난생 처음 《김규화》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잃었던 인간의 자주권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것이다.

이와 같이 소설에는 지난날 온갖 권리를 빼앗기고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던 무산대중이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한 사회혁명에서 수령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있다.

장편소설에는 또한 민족주의자 박병섭을 혁명화하는 내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반일사상이 강한 그는 한때 흥분도와 함께 독립군에서 총을 들고 싸운 일도 있다. 그러나 그는 독립군의 기가 꺾여지자 하강지구의 큰개에 눌려앉아 기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우고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산주의운동대렬안의 좌경분자들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옹당 동력으로 되여야 할 그를 따돌렸으며 지어는 그의 영향하의 세력들과 충

둘까지 하였다. 이것은 혁명력량을 분산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시급히 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정황하에서 유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박병섭에게 대담하게 접근하여 그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를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이신 인품에 의하여 그가 개변되게 됨을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각 계각층 인민대중속에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강조되고있다. 또한 반일감정과 시대사조에 따라 혁명을 동경하는 그의 아들 두현이도 혁명실천속에서 부단히 교양단련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키워나간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이 장편소설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역사적과정에서 도래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시사하여주고있다.

이 소설에는 초기공산주의운동과 사회운동에 참가한 인물들로서 김익보와 주대화, 최호빈, 배운종 등이 등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운동이 아직 요람기에 있었던 그 시기에 민족의 운명을 운운하면서 혁명예로의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반동의 공세가 강화되고 혁명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자 각이한 주의주장을 들고나오면서 판이한 생활행로를 걷게 된다. 다시말하여 김익보와 같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 간도에 들어가 계속 혁명조직에 참가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를 받게 되면서부터 종파의 해독적 후과를 점차 극복하고 혁명가로 자라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최호빈과 같이 혁명을 도피하고 시정배로 떨어지는 인물도 있으며 배운종이와 같이 서울장안이 좁다하게 혁명을 떠들던 행세식밖스주의자가 친일주구로 전락하는 인물도 있다. 이들의 이 각이한 운명발전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사변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지만 그것은 결코 황홀한 신비경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검토하고 시대앞에 성실치 못한 쓰레기들은도태시켜 마침내 사회를 정갈하게 만드는 위대한 시금석이라는 사상을 강조하고있다. 또한 기자활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에 참가하다가 적의 탄압이 강화되자 물러앉아 자기의 양심만 지키려고 구들쟁이일도 서슴지 않는 소부르쵸아지식인 주대화가 적들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게 되자 류치장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것을 통하여 혁명과 반혁명간의 투쟁이 치열한 준엄한 시기에 《중간로선》과 《양심》만 지키고 앉아있을수는 없으며 오직 혁명의 길로 나서야 인간의 깨끗한 양심도 뒤흔들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각계각층군중이 준엄한

시련을 거쳐 어떻게 인간의 자주권을 지켜나가게 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줌과 함께 반혁명세력인 계급적원썹들의 야수성과 교활성도 신랄하게 폭로하고있다.

이 작품의 부정인물들로서는 우선 만주강점에 피눈이 되어 미쳐날뛰는 일제침략자들은 관동군주임 참모 노무라고지로, 그의 아저씨인 《흑룡강동지회》총재 노무라다이사구, 만주철도리사 가와아이, 혼성려단장 가와사끼, 고지로의 처남이며 다이사구의 심복인 애송이중대장 아끼시마 등을 들수 있다. 이놈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아시아제패를 위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제각기 날뛰는 야수들이다. 실례로 고지로놈은 만주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는 관동군부내의 악질우두머리라면 다이사구놈은 군국주의사상을 퍼뜨려 일제만주침략의 앞잡이를 길러내고 이면회사인 《간민사》의 취체역으로서 관동군을 위한 병참기지를 꾸리기에 날뛰는 대륙전달의 거물이다. 고지로놈이 저들의 만주침략에 항거하는 세력을 약화시켜보려고 조종인민간의 민족리간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조선인정치범들에 대한 석방》놀음까지 교활하게 꾸민다면 다이사구놈은 그런 수작이 너무 완만한것 같아 안달아한다. 또한 아끼시마놈은 하강지구의 움직임을 내탐하고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야수이다. 이리하여 이놈들은 그 활동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야수성과 교활성, 횡포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한 군국주의 거물들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전형들이다.

소설은 또한 안골의 지주 정희겸과 상강지구의 농장주이며 기업가인 백동성도 개성적으로 잘 그렸다. 즉 한말의 주사를 지내면서 국고에서 적지 않은 돈을 흠쳐내고 리완용의 나라 파는 일에도 한몫끼워 사례금까지 받아먹은것이 켜켜 서울에서 더는 살지 못하고 떠돌다가 안골에 기어든 정희겸은 현성의 관리들을 열려 백리허일판의 발 20여정보와 황무지 300여정보를 사들이고 이주민들에게 그것을 개간시켜 소작인들의 피땀을 악착하게 짜내여 등가죽을 벗겨내는 졸부라면 《간민사》의 총무인 백동성은 신개척구의 현성에 틀고앉아 간사한 웃음을 살살 피우면서 사람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심장속에 침대를 꽂아 생피를 통채로 빨아내는 간악한 놈이다. 또한 정희겸의 첩인 화월이녀는 사람의 등을 쳐먹는데 이골이 난 요사스러운녀이고 그 오래비인 보위단장 윤철목은 뺨뺨 얹은 곰보에 험하기 이룰데 없는 무지막지한 망나니이며 농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원썹이다. 이놈들은 술한 머슴을 두고 부려먹으면서도 찍하면 부엌데기로 일하는 쌍가매의 머리태를 쥐여뜯고 두들겨패기가 일쑤이며 소작인 강필재가 꾸어간 수수콩의 리자를 몇 배로 늘구어 그의 딸 봉이를 빼앗아내려고 갖은 협박을 다한다. 소설은 이처럼 착취계급의 착취자적

본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계급적원썬들의 악랄성을 더욱 생동하게 형상화하였다.

장편소설은 이런 계급적원썬들을 반대하는 긍정적주인공들의 투쟁을 묘사함에 있어서 혁명의 동력과 대상은 어떻게 가르고 통일전선은 어떤 방법으로 형성하며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은 어떻게 추진시켜야 하는가 하는 혁명투쟁방법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혁명의 교과서로도 되게 한 성과도 거두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이와 같이 1930년대초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다 포괄하면서 공산주의운동발전의 결정적요인으로서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문제와 수령의 령도에 의한 무산대중의 계급적각성, 혁명적세계관의 형성 및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문제 등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었을뿐아니라 혁명적작품의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로 되는 형상성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이 장편소설은 1930년 여름으로부터 시작하여 1933년 여름에 이르는 3년여의 생활이 정면에서 그려지고 소설문학의 형태적특성인 뒤생활을 그리는 문제도 상당한 정도로 해결되어 사실상 1920년대 말, 나아가서 그 이전시기까지의 생활이 폭넓게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무쌍한 생활들이 기록적으로 서술된것이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이 장편소설에 삽입된 이야기인 부채소의 전설까지도 봉이의 운명과 관련된것으로서 당대사회의 계급적모순의 첨예화정도를 리해함에 있어서 풍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이 장편소설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 사회세력, 시대사조 등을 다면적으로 풍부하게 보여줌에 있어서 그것을 오직 작품에 심어진 종자를 밝히기 위한 각도에서 선택하고 묘사하였다. 실례로 주삼녀가 남편을 만나려고 서울재판소앞에 이르렀을 때 용수를 쓴 정치범들이 쇠고랑에 채워 나오는것을 보고서 서울장안의 시민들이 우리 조선에 나라를 뺏칠 대들보가 없기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의 피를 흘리지만 독립은 커녕 날이 갈수록 세월이 더 암담해진다고 개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기까지의 소설형상은 주로 혁명의 수령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축적으로 일관되었다. 그것은 특히 주인공 유철의 사상과 감정, 심리를 통하여 깊이있게 그려졌다. 즉 서울감옥에서 나와 변호사 서천호의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기대도 가질수 없었던 유철이 간도에 돌아와 처남 주태화와의 상봉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지도력량이 걸림지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경의 심정을 달랠길 없어하는것이 그 실례이다. 그가 하강지구의 혁명조직을 찾아갔을 때 상급당에서 순시원까지 내려와 폭동을 지도했으나 그

것이 비참한 실패로 끝나자 그는 혁명에 대한 탁월한 수령의 령도의 절박성을 더욱 통절하게 느끼게 된다. 그의 그런 심정은 그가 두번째로 길림감옥에 들어갔을 때 못견딜 정도로 심화되었다.

소설은 이렇게 주인공 유철이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까지의 감정을 주로 혁명의 지도자를 갈망하는 안타까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 그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받아안은 이후의 감정은 비록 간고한 길이기는 하지만 보람과 행복으로 충만된것으로 전개시키고있다. 이것은 이 소설이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발전을 총괄하는 형상조직을 철저히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각도에서 진행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생활을 폭넓게 그린 장편이기는 하지만 평면적으로 라렬하지 않고 예술적으로 전형화함으로써 높은 형상성을 보장한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장편소설의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유철을 비롯한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일방으로 하고 일제침략자들과 그와 결탁한 적대계급들을 타방으로 하는 기본갈등선상에 놓인 대결의 선이 있는가 하면 통일전선체안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간의 비적대적인 갈등선이 있다. 그런가 하면 혁명대렬안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한 주체형의 혁명가들과 정확한 투쟁로선도 없는 좌경모험주의자들간의 관계도 있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의 군벌주의자와의 관계도 있다. 소설은 이와 같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그 호상관계를 복잡하게 맺어줌으로써 하나의 사건과 정황이 수많은 새로운 사건을 유발시키고 그것이 다시 더 큰 사건을 야기시켜 마침내는 작품전반의 인간관계를 하나의 유기적구성체속에 맞물리게 하였다. 실례로 지주 정희겸과 소작인 강필재일가와 의 갈등관계의 심화에 의하여 생겨난 봉이가 부채소에 빠져 죽으려고 한 사건은 그를 구원한 유철의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인간성,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강의한 의지 등을 보여주는 계기로 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그가 오래동안 고심해오던 박병섭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는 새로운 정황을 낳게 하였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여러갈래로 발전시키면서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드러날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장편소설의 형상적특징은 높은 정론성과 생동한 생활세부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데 있다.

작품전반을 볼 때 시대와 사건에 대한 정론적판단이 비교적 굵은 필치로 그려졌지만 그 정론적인 주정토로의 갈피마다에는 구체적인 생활감정이 뜨겁게 풍기고있다.

일제의 토벌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안해가 준비한 닭곰조차 들지 못하고 집을 떠난 유철, 그가 안해의

그 마지막사랑을 다시는 받을수 없음을 가슴아파함을 헤아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그에게 닭곰을 마련해주시는 생활세부를 비롯하여 언사와 몇알로 딸 현아를 달랜것이 걸려 과자봉지를 가지고 집을 찾아갔으나 안해의 회생으로 딸의 그 자그마한 요구마저 들어줄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유철의 심정 등 소설의 갈피마다에 묘사된 구체적인 생활세부는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는가. 또한 새각시 치마감을 마련하느라고 그렇게도 애쓰던 최갑룡이가 결혼한지 며칠만에 청춘의 꽃은 피우지도 못한 채 원썩놈의 흉탄에 맞아 쓰러진 참상은 얼마나 기막힌것인가.

소설은 이런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생동하게 묘사하면서 한가정의 자그마한 행복조차 마음껏 누릴수 없게 하는 계급적원썹들을 처없애기 위해서는 혁명을 해야 한다는 사상을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력설하고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인공이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의 참뜻을 생활적감정으로 깊이 체득하고 딸 현아를 사랑하기때문에야말로 그 애를 황량한 저 하늘가에 버려두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질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것을 느끼게 하고있다.

이 장편소설의 문제는 변화무쌍하다. 때로는 긴강의 유유한 흐름과도 같이 여유작작하게 완만한가 하면 때로는 기암절벽을 스쳐내리는 폭포처럼 박력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때로는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맑은 샘이 너울너울 모래알과 희롱하듯 재미스럽기도 하다. 비유와 은유, 환유, 의인화수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체적수법들이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으며 시대상에 대한 환경묘사와 등장인물들의 초상 및 심리묘사, 그들의 뒤생활에 대한 서술 등이 사건묘사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형상적화폭이 높고 낮은 기복을 이루고있다. 그 결과 작가의 정론적인 주정토로가 가해질 때는 독자들이 높은 정치적인안목으로 시대를 관망하면서 숭고한 철학적사색에 잠기다가도 긴박한 사건을 묘사할 때에는 손에 땀을 쥐게 되며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할 때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엿보는듯한 쾌감에 흐뭇해진다.

10여년간 혁명의 길을 걸었으나 정확한 앞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며 몸부림치던 유철이가 길림감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소설은 이렇게 쓰고있다.

《겹겹하고 자욱하던 안개는 걷히었다. 어수선하게 얼어붙었던 대지는 풀리고 웅송그렸던 만물이 활개치며 머리를 쳐드는것만 같다.

얼마나 밤이 깊었던가!

가슴에 쌓인 울분은 어진 마음들을 얼마나 독하게 절구했던가!

그 긴긴 밤을 밀어제끼고 울분의 안개를 헤치면서 해가 솟는다. 바람 거칠던 대지에동이 튼다. 어둡고 숨막히던 민족수난의 력사우에 조선민족재생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격조높이 읊어진 이 정론적주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대한 다함없는 송가이다.

소설은 이런 정론적주정을 세부묘사와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그 내용의 철학적의미를 더욱 생동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김익보의 지도밑에 큰개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한 묘사와 유철이 지도한 안골에서의 폭동에 대한 묘사 등은 전개되는 사건 묘사의 시각적표현성과 문제의 박력으로 하여 상당한 정도로 긴장감을 주며 소설의 마지막인 박두성과 정대호 두 중대장들간의 씨름장면은 반일유격대의 통합에 대한 경축인양 그지없이 통쾌하다. 그런가 하면 부두역에서 기차를 연착시켰다고 노발대발한 일제침략군련대장 가와사끼놈이 기차를 연착시킨자가 옛 상전 노무라놈이었음을 알자 갑자기 일변하여 굽실거리는 장면이라던가 일제수비대의 선발대인 애송이중대장 아까시마놈이 한개 중대를 이끌고 백리허숲속을 질러가다가 이리때에 쫓기워 처참한 꼴이 되는 장면 등은 아주 풍자적이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은 변화무쌍한 문체와 여러가지 묘사수법들을 적용하여 폭넓은 시대상과 복잡한 인간관계, 다양한 사건들을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비상히 높히였다.

참으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혁명적대작창작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소설문학이 거둔 특출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이 장편소설은 그 높은 사상에술적성파로 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 되고있다.

가정혁명화의 참다운 길을 가르쳐주는 생활의 교과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를 보고-

백영철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성심을 높인 예술적경지에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작품의 본보기이다.

영화는 어머니일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고마운 은덕,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인민들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소박하고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고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물음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참으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신과 가정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근본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에 있어서 본보기로 되는 특출한 성과작이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정혁명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야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을 혁명화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어머니일가를 통하여 혁명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

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가정혁명화에서 기본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밀고나가야 하겠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깨닫도록 한다.

가정을 혁명화해나가는 과정은 그 본질에 있어서 유일사상화과정이며 따라서 가정혁명화문제는 단순히 개인주의, 리기주의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가정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기본은 그 가정을 이루고있는 모든 성원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성과작으로 될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 작품이 가정혁명화문제를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선에서 제기하고 옹계론에 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우리 나라 농촌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인자하고 강의한 한 유가족어머니가 서있다.

영화의 주인공 어머니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다 바치는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의 전형이다.

영화는 어머니의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교양과 실천적모범에 의하여 그의 일가가 혁명화되어가는 과정, 유일사상화되어가는 과정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가정혁명화에서 주인공어머니의 형상이 가지는 사상미학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부모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어야 자기 가정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꼭 들어찬 그런 혁명적가정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는데 있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조합의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정성을 다 바치며 성실히 일한다.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별방이나 산골할것 없이 모든 농촌들에서 농산과 함께 축산을 발전시켜야 이밥에 고기국을 먹을수 있다고 하신 가르치심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들이고 조합의 돼지를 기르는 일에 발벗고 나선다.

물론 갓 조직된 조합의 축산을 추켜세우는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였다. 돼지를 공동으로 길러본

사람도 경험도 없었으며 먹이도 딸리었다. 더우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시비하면서 그 관철을 이모저모로 방해하여나섰다.

그러나 어머니는 농산과 함께 축산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길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간다.

그는 억수로 퍼붓는 비도 마다하지 않고 달구지를 몰며 당장 새끼를 낳을 어미돼지에게 먹일 먹이가 떨어졌을 때에는 집에서는 죽을 먹으면서도 강냉이를 가져다 붓아먹인다.

어머니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지니고있었기에 반당종파분자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시비하며 헐뜯을 때에는 서슴없이 일어서서 놈들과 단호히 맞서싸우는것이다.

《당에서는 별방, 산골 가리지 말구 돼지를 기르라구 했는데 어른은 돼지를 팔라구 하니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소리가 아니구 뭐요? 그래 이게 나쁜놈들이 하는 소리하구 같지 않소?》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거일때문에 남포로 가시게 된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그날밤 그이를 만나뵙고싶은 간절한 념원을 안고 잠 못 이루는 어머니의 모습과 어머니가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면서 그이께서 다녀가실 길을 정성껏 쓸어나가는 장면, 선거장앞길에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와 그이에 대하여 며느리에게 말하는 대사는 자기의 모든 운명을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만을 믿고 사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을 그대로 화면에 옮긴것이다.

영화는 이처럼 조합의 축산발전에 바친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극한 정성을 여러 모로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그가 지니고있는 이러한 성격적특징이 형성된 생활적바탕, 사상정신적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밝히었다.

작품은 정당하게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흠모의 정과 다함없는 충성심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머니일가에 베풀어주신 고마운 은정과 극진한 보살핌, 높은 계급적자각에 그 생활적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저주로왔던 세월에는 보습을 대일 한마지기의 땅마저 없이 엄동설한에 아들딸 삼형제를 굶겨죽이고 남편까지 잃은 어머니는 조국이 해방된후에야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자, 농민의 주권을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신 그 높은 은덕으로 하여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기쁨진 옥토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보람찬 생활을 누리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해방후 맏아들은 조선인민군련대장의 중책을 지니게 되고 맏며느리는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둘째아들은 두눈을 뜨게 되고 용남이는 만경대혁명학원에 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와 그의 일가의 뜨거운 충성심은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이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길위에 조국의 영원한 번영과 우리 인민의 보다 휘황한 앞날과 자신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데서 흘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심장속깊이 다져진 가장 고귀한 충성심을 지닌 어머니이기에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도록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것을 가장 영예로운 의무로, 본분으로 여긴다.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 여기에 어머니의 형상이 가지는 또하나의 혁신적의의가 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크나큰 은덕에 대하여 알려주며 전사한 맏아들처럼 어버이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한다. 특히 어머니가 맏아들이 입던 군복상의를 자기 가족들앞에 꺼내놓곤하는 장면은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할것을 바라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독특한 세부이다.

어머니는 둘째아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지키다가 두눈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흐느껴우는 맏며느리를 달래면서 우리가 울면 좋아할놈들은 미국놈들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만을 믿고 살아가자고 절절히 타이른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눈을 잃은 둘째아들이 집에 돌아와 현실을 잘 몰라 당의 방침과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밤새워 정성들여 짠 무명을 팔아 라지오를 사다준다. 어머니의 이 지극한 정성에는 비록 그가 불구의 몸이긴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알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뜻을 받들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 변함없이 싸워나가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특히 어머니가 정철이를 교양하는 장면은 우리들에게 혁명가는 혈육의 정에 끌려 원칙을 버려서는 안되며 가정의 화목과 사상의지적단합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할 때만이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영화는 이처럼 어머니일가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혁명적가정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이며 이 충성심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가정만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어머니일가의 혁명화과정은 또한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자신뿐아니라 온 가정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 충실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 나갈 때만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의무를 다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어머니에 의하여 교양된 며느리와 아들이 이웃을 혁명화하고 조합원들을 교양하여 온 마을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합된 혁명적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 모습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반당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끝까지 옹호하고 관철해나가는 며느리의 확고한 정치적인념과 혁명적의지, 돼지사건을 계기로 모여든 마을사람들에게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은덕에 대하여 가르쳐주며 나쁜놈들의 꾀임에 걸려 흔들리던 응삼로인을 바른길로 이끌어주는 정철의 모습은 혁명화된 과정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 영화가 가정혁명화의 본보기로 된것은 또한 료리도덕적문제를 주체의 관점에서 옳바로 해명한 데 있다.

영화에서는 이것을 특히 정철이와 옥성이의 관계를 통하여 깊이 형상화하고있다.

옥성이에게 있어서 정철이와의 결혼문제는 두 인물에게만 국한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이 문제는 옥성이가 낡은 도덕료리관에서 벗어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느냐 개척해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로, 반혁명종파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리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였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료리도덕문제의 가장 옳바른 해결은 무엇에 기본을 두고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옥성이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참된 가치와 남녀간의 사랑, 참다운 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데 있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밝

혀주고있다.

또한 영화는 옥성이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료리도덕문제는 오직 주체의 관점에서 풀어나갈 때만이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었다.

영화는 정철이가 보낸 편지를 받고 우는 만머느리를 두고 타이르는 주인공어머니의 말을 옥성이가 엿듣는 장면과 옥성이가 내가에서 빨래를 할 때 평양의 하늘을 지키다 부상당한 정철이를 욕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일깨워주는 어머니의 짝막하나 뜻이 깊은 교훈적인 대사, 들길에서 정철이가 옥성이에게 취하는 뽀뽀한 태도와 그가 마을사람들앞에서 당정책을 건결히 옹호하여 투쟁하는 장면들을 통하여 정철이와 옥성이가 결합될수 있는 생활계기들을 타당성있게 밝히고있다.

가정혁명화문제를 보여줌에 있어서 옥성이의 어머니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도 자못 크다.

어머니의 형상은 부모들이 압박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와 아버지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기만 하고 그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도농산국장이나 관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같은 나쁜놈들의 음흉한 책동에 걸려들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또한 그의 형상은 혁명화되지 못한 가정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미치는 후가 얼마나 크며 따라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며 배우며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이 모든것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주인공일가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대한 감동적이며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이 충실성이야말로 가정의 진정한 화목과 단합, 나아가서는 온 사회의 통일단결의 기초일뿐 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원동력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주인공일가의 혁명화과정을 유일사상화과정으로 그린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철학성과 독창성이 있으며 이 작품이 온 사회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가지는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작가들은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첫번째보고

박사영

1

곤색치마우에 흰 저고리를 단정히 받쳐입고 옆구리에 자그마한 삼면자크가방을 낀 한 처녀가 앙상한 가로수의 열기설기한 달그림자를 밟으며 다북다북 걷고있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알맞은 키라든가 수수하게 벗어넘긴 머리라든가 고요하면서도 사려깊어보이는 눈매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처녀한테서는 그 어떤 고상한 기품이 넘쳐흐르는것 같았다. 그는 우리 나라 중간지대에 위치하고있는 천암협동농장관리위원장 김영옥이다. 이렇게 생각에 잠겨있을 때 보면 스물대여섯으로 보이기도 쉽지만 그 녀자가 한번 하얀 덧이를 드러내고 방긋웃기만 하면 스물두세살로 보인다. 그는 지금 강녕이영양단지찍기중간총화가 있어 군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다. 군적으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 영옥은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지만 마감총화때는 꼭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결심으로 그 아쉬움을 눌러버릴수 있었다.

영옥이가 관리위원장이 된지는 이제 다섯달이 조금 넘는다. 그전까지는 농장기계화반 반장으로 일했고 또 그전에는 트랙트르운전수로 일했다. 아버지는 인민학교 교장이고 어머니는 축산반에서 돼지관리공으로 일하고있었다. 그의 집안에는 모두 삼남매가 있었는데 맏오빠는 북부탄전 어느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둘째오빠는 중앙예술단에서 독창가수로 일하고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얼굴도 곱고 몸매까지 날씬한 영옥이를 평양에 있는 둘째오빠가 데려가리라고들 했었다.

그러나 영옥이가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트랙트르양성소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물론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던가? 아버지는 도수높은 안경속에서 두눈을 슴뻑거리며 딸을 이윽히 내려다보다가 《잘했다.》하고 한마디 뇌이였을뿐이었다. 학교에 나가서는 천진한 어린이로 되어버리지만 집에 돌아와선 입에 빗장이라도 지른듯 과묵해지는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은 영옥의 작은 가슴을 뭉클하게 울려주었고 아버지가 끝없이 고맙게 생각되어 그 넓은 품속에 얼굴을 꼭 파묻고 울어버릴만하였다.

그가 관리위원장의 중책을 지니고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어린 네가 어떻게 그런 중한 일을 해

낼수 있겠는가고 근심이 컸으나 아버지만은 그 언제인가처럼 도수높은 안경속에서 두눈을 슴뻑거리며 다소곳이 앉아있는 딸을 이윽히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에 참가했을 때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오래도록 우러러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나직이 《아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여라!》하고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영옥은 언제나 아버지의 그 말을 잊을수가 없었다. 지금도 호젓한 밤길을 걷고있으라니 그때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뜨겁게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영옥은 아직 관리위원장사업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잘 모른다. 그는 그 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항상 크나큰 무게를 가지고 울려와 과연 자기가 관리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원만히 감당해낼수 있을가 하는 근심이 마음속 한구석에서 어느 한시각도 떠나본적이 없었다. 자기는 정말 연약하기만 한지 모른다. 관리위원장을 하자면 성격도 남자처럼 팔팔하고 손탁도 드세야 한다고 했다. 트랙트르운전수를 거의 5~6 년이나 해왔지만 그는 왜 그런지 성격도 손탁도 드세지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그 타고난 육체-호리호리한 몸매며 연약한 성미며가 관리위원장이라는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서글픔도 맛보았고 때로는 두려움속에서, 때로는 공포속에 지내기도 했었다. 이렇게 지나간 다섯달이였다...

초생달은 어느덧 산너머로 꼴깍 넘어가버렸다.

영옥이는 도소재지로 가는 일급도로를 벗어나서 자기네 농장으로 들어가는 산골길을 걷고있었다. 읍에서 농장까지는 40 리,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가면 술고개에 올라서게 될것이고 고개에서 10 리만 더 가면 관리위원회에 당도하게 될것이다. 영옥은 부지런히 걸음을 재우쳤다. 문득 이 어스크레한 산골길우에 자기의 발자국소리만이 외롭게 어둠과 정적을 누벼가고있다는것을 느끼자 이상하게 머리끝이 쭈뼛해지는것 같았다. 깊은 상념에 잠겼을 때는 몰랐으나 자신의 존재를 느꼈을 때 그는 저도모르게 온몸이 긴장해져서 발걸음을 더 빨리 했다. 단숨에 술고개까지 올라가고보니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이 불쑥 앞을 막아나섰다. 《어마나!》 처녀는 입술로 새어나오는 비명을 손으로

들어막았다.

《관리위원장동무 아십니까?...》

《아이, 부위원장동지...》

처녀는 입술을 틀어막았던 손을 내리울 때 대변에 온몸이 하사분해되는것을 느꼈다. 했으나 그는 《아이 왜 나오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구...》하고 가볍게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거기에는 벌써 그 어떤 공포감도 긴장도 없었다. 그 녀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찾았던것이다.

《허허 군에 전화를 걸어보니 혼자 걸어서 떠났구 하길래 바람두 쏘일겸 나왔지요.》

《부위원장동지!...》

처녀는 하마트면 《아저씨!》하고 부르짖으며 그 바위처럼 듚직하고 넓은 가슴에 안기며 머리를 꼭 파묻을뻔했다. 그러나 영옥은 의젓하게 서서 부위원장 윤광준을 바라볼수 있었다.

《위원장동무, 어서 갑시다. 농장원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윤광준은 키도 크고 몸집도 실한 나이 마흔이 넘는 사람이지만 자기 딸보다 두살우인 이 처녀관리위원장을 그 어조와 행동에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렵게 대하려 한다는것이 알렸다. 하긴 그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세워놓은 생활철칙이기도 했다. 근 10 여년간 부위원장으로 일해오는동안 그는 로숙한 사업능력과 수완으로 해서 농장에서는 물론 군에서도 《천암리》하면 누구보다도 부위원장을 먼저 기억하게끔 소문을 냈었다. 그것은 영옥이가 관리위원장이 된후부터 자연 더해지는것 같았다. 그래서 광준은 어떻게 하나 처녀관리위원장을 도와주려 이모저모로 원심을 썼다.

그런데 영옥이한테는 그것이, 부위원장이 그전에는 자기 딸처럼 대해주었는데 위원장이 된후부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조차 경어를 쓰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것이 저도모르게 부자연스러워지고 피롭게 느껴지는것이였다.

이윽고 영옥은 호- 하고 긴숨을 가늘게 내쉬고 고개길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청명경후에 영옥은 연회색투명을 한 사업수첩을 요구리에 끼고 농장문화회관 뒤문으로 들어갔다. 웅성거리던 회관안은 샅시에 물뿌린듯 조용해지고 수백의 빛나는 눈동자들이 연탁앞으로 나오는 관리위원장에게 쏠렸다.

영옥은 잠시 기대와 긴장으로 굳어진 그 많은 눈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군에서 진행된 강령이영양단지찍기중간총화정형을 알려주었다. 회관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2 등이라는 등수가 적지 않게 신경들을 자극한 모양이였다. 영옥은 빙긋이

웃으며 그 광경을 정겹게 바라볼뿐 한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여러분,》 이윽고 처녀는 속삭이듯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회관 그 어디서나 잘 들렸다.

《이번에 우리가 중간총화에서 2 등을 한것은 물론 대단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부터 더 바짝 다그쳐서 마감총화에선 꼭 1 등을 하자구요.》

《웁수다!》 누군가 걱정예 못이기는듯 이렇게 호응해나서자 와그르르 하고 산이 무너져내리는듯한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처녀는 그저 빙긋이 웃었다. 박수소리는 점점 더 높아갔다.

농장원들을 다 보낸 다음 본조장이상 초급일군들이 관리위원장실에 따로 모였다.

《저, 그런데 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왜 우리 농장이 가산리한테 놀리워 2 등을 했는지?...》

5 작업반장 리덕배가 벌개진 얼굴을 쳐들고 방금 자리에 앉은 영옥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짜장 그것이 몹시 궁금했던 모양 영옥이에게로 시선을 모았다. 순간 영옥의 얼굴에 아쉬한 표정이 어리더니

《글쎄 가산리는 엿저녁 현재 57 프로구 우린 52 프로가 아니겠어요.》하고 제 잘못이기라도 한듯 미안쩍게 웃었다.

《그리니 5 프로가 적구만.》

윤광준이 허거프게 웃으며 한마디 했다.

《헛참, 5 프로가 뭐람. 6 프로만 있었으면 1 등을 하는건데, 참 거...》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5 프로가 떨어지는걸.》

《하긴 그래. 1 프로가 떨어져두 떨어지는거야 떨어지는거지...》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가만 오늘저녁까지 우리가 몇프로더라, 계획지도원동무? ...》하고 윤광준이 계획지도원을 쳐다보았다.

《68 프로입니다.》

《68 프로? 허허 그러니까 오늘저녁이라면 1 등은 문제없을뻔했구만.》

《다른 농장에서 오늘 하루종일 낮잠을 잤으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허 그렇지, 그 사람들두 놀지는 않았을테니까.》

《너무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최후에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고 마지막에 1 등을 하면 되지 않아

요. 그러구 잊저녀 현재 우리 농장이 52 프로박에 하지 못했다는것두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영옥은 마지막 말에 그루를 박는것을 잊지 않았다.

2

따뜻한 봄별이 호듯호듯 내리쬐이고있었다. 진달래는 아직 봉오리를 터치지 않았다. 바야흐로 봉오리를 툭 터치고 연분홍빛 입술을 방긋이 내밀듯 통통하게 부풀어올랐다.

산기슭 언덕길을 금방 내린 영옥이가 5작업반마을 앞길을 가볍게 걸어가고있었다. 몸에 꼭 맞는 보위색작업복을 입은 그는 한결 키가 커보이고 몸매 또한 더 날씬해보였다. 1,2작업반을 돌아보고 오는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오늘중으로 모든 작업반들에서 영양단지찍기가 끝나게 되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름이 별게 잡았던 그 계획날자보다도 3일이나 더 앞당기게 된다. 대체로 몇시쯤이나 끝나게 되겠는지...

마을 웃켄 발머리에서 5작업반원들이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앉아 쉬고있었다. 영옥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벌써 영양단지찍기를 끝내고 휴식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는 가슴속으로 무엇인가 따뜻한것이 뿌듯하게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작업반을 담당하고 나와있는 윤광준이 담배불을 비벼끄며 일어섰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섰다.

《다 끝난 모양이지요?》

영옥이 물었다.

《예. 방금 끝내구 쉬던 참입니다.》

윤광준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니 5작업반에서두 다 끝낸셈이구만요?》

《그런것 같습니다. 3분조가 좀 뒤떨어지긴 했는데 아마 거기서두 이젠 다 끝낼겁니다, 반장동무가 거기 가서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1작업반과 2작업반에 들러서 오는데 거기서두 한두시간후이면 다 끝나겠더군요.》

부위원장동지 그러니 저녁엔 군에 보고할수 있겠지요? 우린 것처럼 긴장하게 잡았던 계획보다두 3일이나 더 앞당겼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이젠 1등은 떼논 당상이지요.》

윤광준은 흐뭇하게 웃었다.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소리없이 흘러넘치였다.

영옥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발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일심공력을 기울여 가꾼 알알이 영근 낱알을 가을에 가서 거두어들일 때 농장원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할가? 그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데 없고 자랑스러운

열매! 그 구슬땀 흘린 첫 열매를 부모님께 올리게 될 딸의 구김살 없는 마음!...

《허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이는 모양이지요. 하긴 위원장동무의 첫번째 보고니까요.》

윤광준은 영옥의 심정을 리해할만하다는듯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첫번째 보고! 이것은 참으로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보고라고 할수 있지요.》

영옥은 저도 몰래 얼굴을 붉혔다. 벌써 자기의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까지 되었었는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안된다고 가볍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데 오늘 찍은것이 몇개예요?》

한줄에 200개씩 줄맞추어 찍어놓은 영양단지를 눈으로 세어보고난 영옥은 정색해서 물었다.

《1만 7천 5백 9십개입니다.》

키가 좀 작고 강파로와보이는 분조장이 대답했다.

《정확한 수자예요?》

《예.》

분조장의 얼굴에는 은근히 긴장한 빛이 어렸다.

《다시 세여보세요!》

공연히 얼굴이 붉어진 분조장은 어색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다.

《다시 세보나마나 틀림없습니다.》

영옥의 두눈엔 놀라움과 의혹의 빛이 가득해졌다.

《여덟개 모자라지 않아요?》

《하하, 맞았습니다. 위원장동무가 틀릴수야 없지요. 그러니 분조장동무가 말한 수자와 거의 같은셈이지요.》

윤광준이 이렇게 말하는바람에 은근히들 긴장해서 서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정말 그보다 더많은 수자가 모자랐더라면 얼마나 딱할번했는가?

영옥은 어안이 빙빙해져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버리는 부위원장님이 더 놀라왔다. 그래서 그는 심각해진 얼굴로 항변하듯 말했다.

《아니예요. 틀렸어요. 여기 분조장동무랑 다른 동무들은 거의 2만개에 가까운 수자에서 8개란 수자가 있으나마나한 수자로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한개 분조에서 오늘 하루 찍은데서 8개가 부족한데 열흘동안이면 몇개겠어요? 80개이지요. 다섯개 분조면 몇개예요? 400개이지요? 한개 농장이 10개 작업반씩 치구 한개 군을 20개 농장으로 치구 온 나라를 200개 군으로 쳐보세요... 1천 6백 만개가 모자라게 돼요...》

《1천 6백만개요?! …》

분조장이 두눈이 둥그래져서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부지중 놀라는 눈치였다.

《얼마나 엄청난 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개라구 어떻게 허술히 볼수 있겠나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두 온 나라의 땅을 한평한 평 채어보시면서 400포기라는 수자를 계산해내신 걸 우리 다 알지 않나요.》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잠자코 서있었다.

이윽고 분조장이 머리를 들고 영옥을 바라보았다.

《그 수자를 더 찍겠습니까.》

영옥은 싱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8개만 더 찍으라구. 우리 위원장동무는 1개가 더 많아두, 더 적어두 싫어하니까.》

윤광준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요. 여기 찍은것들이 모두 100프로짜리들이라면 말이에요.》

이윽고 영옥은 발길을 돌렸다. 이젠 반장동무가 가서 일하고있는 3분조에 가보겠다는것이였다.

《3분조도 이젠 다 찍었을것입니다.》

윤광준의 말이였다.

《그래두 가봐야 되겠어요. 오늘중으로 모든 작업반들에서 영양단지찍기가 끝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5작업반은 내가 책임지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이참 부위원장동지두 제가 부위원장동지를 못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허허 그렇지야 않지만 거기 가서두 여기서처럼 하나하나 세어보겠습니까?》

《부위원장동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허 참 묘한 질문인데요.》

영옥은 한참동안 잠자코 있다가 생각에 잠긴듯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부위원장동지, 전 우리 농장원들을 믿어요.》

윤광준은 무슨 말인가 할듯 얼핏 고개를 들어 영옥을 바라보다가 단념하듯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하여 두사람은 서로들 제나름의 상념에 잠기여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3

두사람은 파르무레한 물이 흐르기 시작한 개암나무덤불을 헤치고 3분조 포전이 자리잡고 있는 산비탈위로 올라갔다. 비탈우에는 꽤 넓은 밭이 펼쳐져있었다. 저쪽 밭머리 작업장에서는 3분조원들이 영양단지를 찍느라고 법석 끓고있었다. 기계를 가지고 단지를 찍는 사람, 부식토를 끌고구 혼합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들의 일손에서는 번개불이 일어

다. 그중에서도 키가 격두룩한 리덕배반장의 모습이 유표했다.

윤광준은 끼긋한 몸을 쭉 펴고 자못 심각해진 얼굴을 하고 그들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영옥은 문득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윤광준의 온몸이 꽉 차지하는듯한 환각과 자신의 존재며 또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끝없는 정적의 나락속으로 떨어져버리는듯한 환각을 느꼈고 삽날이 부딪치는 소리, 가만가만 수군거리는 소리 등 왜 그런지 사람들의 움직임도 어색스러워지고 일숨씨 또한 어설피고 서툴러진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나 영옥이에게 그렇게 느껴졌을뿐! 윤광준의 위엄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아직도 끝내지 못했소?》

《좀 하면 끝납니다. 다른 작업반들은 어떻게 됩니까?》

리덕배는 땀발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윤광준을 쳐다보았다.

《모두 끝났소.》

《아니예요. 일부 끝난데두 있구 아직 하는데들도 많아요.》

영옥은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서 일을 설칠가봐 상냥하게 부위원장의 말을 시정시켰다.

《난, 또 가슴이 띵떵했습다. 그럴수가 없겠는데 …》

리덕배는 시무룩 웃더니 감빛내의소매로 이마를 땀 문대기고 다시 기계로 부식토더미에다 들이댔다.

윤광준의 두눈이 번쩍했다. 《그런것에 위안하오?불쌍하게! …》 이런 힐난이 튀어나올듯했으나 참는듯 삽자루를 거머쥐자 드세게 삽질을 하기 시작했다. 삽질을 얼마나 번개치듯 해대는지 꼭 몰탈 혼합공이 삽을 휘두르는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자 이렇게 하시오, 알겠소? 일이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요 하는것 같기도 했고 또 누구에겐가 화를 내기라도 하는듯싶었다. 그 모양을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던 영옥은 저도모르게 이끌려 삽자루에 손을 가져갔다. 한바탕 땀을 흘리고싶은 욕망이 끓어올랐던것이다. 순간 영옥은 이상한 촉감을 느끼었다. 그것은 욕안으로 볼수 없는것을 룽감으로써만이 느낄수 있는 그런것이였다. 한삽을 푹 떠서 넘기고 두삽을 또 떠서 넘길 때 그는 삽날을 통해서 삽자루로 전해오는, 부드러운면서도 나긋한 촉감,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수 없는 그 야릇하면서도 상긋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차분한 촉감이 아니라 모래알에 삽날이 굽히는듯한 자극을 받았던것이다. 영옥은 삽질을 멈추고 부식토를 한웅큼 쥐여 두손으로 부스러뜨려보았다. 아니나다를가 부식토에는 흙이 제

비둘보다 더 많이 섞여있었다.

《반장동무.》 영옥은 나직히 입을 열었다. 《부식토들에 왜 이렇게 흙이 많이 섞여있습니까?》

《예?! 흙이라니요?!...》

고개를 든 리덕배는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이 큰 눈을 데룩거렸다. 사람들은 벌써 일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던지 일손을 멈추고 두사람을 바라보았다. 윤광준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안되겠습니다. 이 부식토를 가지군 영양단지를 찍을수 없어요.》

《허. 나 원 참, 글썄 이 부식토에 무슨 흙이 많이 섞여있다고 그러니까?》

리덕배는 술뚜껑같은 손으로 부식토를 한웅큼 움켜서 영옥이앞으로 내댔다.

《안됩니다.》

영옥은 까딱 안하고 말했다.

《글썄 다른 부식토하구 뭐이 다르게 있습니까? 색갈두 그렇구,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동지?...》

《반장동무!...》

윤광준은 뜨거운 물이라도 들쓴듯 대번에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동무는 그게 무슨놈의 태도요? 위원장동무앞에서, 영? 그리고 부위원장이 뭐 어쨌단말이요? 동무의 말에 맞장구를 쳐달란말인가?...》

《자 이거 왜 그리 큰 소릴 치십니까?》

시뻘겍게 얼굴이 상기된 리덕배는 습관처럼 고개를 기울기울하며 오금을 꺾고 자리에 앉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대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담배연기만 풀풀 내보내더니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내 뭐 위원장동지와 부위원장동지앞에서까지야 속이겠습니까. 부식토가 모자라니 흙을 제 비둘보다 좀 더 섞었지요. 아주 조금이지요. 사실 뭐 그거야... 그리 많은 면적에 넌것두 아니구... 그렇다구 직파를 해버릴수두 없구...》

《동무! 정 그러겠소? 위원장동무앞에서 버르장머리없이! ...》

리덕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글썄 잘못된건 잘못된것이구 이렇게 찍기 시작한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려면 직파하는것보다야 못하겠습니까? 그대두 부식토가 적지 않게 들어갔는데...》

《이 동무가!...》

윤광준의 얼굴은 완전히 피빛으로 변해버렸다. 극도의 흥분때문인지 얼른 말을 못했다. 여태까지 부위원장이 이렇게 흥분하는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겁을 먹은듯 멍하니 서있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영옥이 나직이 속삭였다.

《어디 흥분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동무는 먼저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도무지 도덕이 없단말이야! ...》

영옥은 자리를 피해주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있었됐자 괜히 작업반장의 립장만 더 웅색하게 만들뿐이고 궁지감 높은 부위원장의 자존심에 상처만 입힐뿐이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자기가 담당한 작업반에서 이런 일이 벌여졌으니 어찌 흥분하지 않을수 있으랴. 영옥은 일이 참으로 공교롭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부위원장의 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웅색한 립장에 떨어지는듯했는지? 그것은 아버지가 성인으로 된 딸을 다섯살 먹은 어린애로 취급하면서 쓸데없이 앞에 나서서 편역과 역성을 들어줄 때 느끼게 되는 심리라고 할가? 자기는 다 큰 어른인데 왜 자꾸 어린애로 취급을 하는가? 흥분하지 말아달라고 다시한번 속삭이고 비탈길을 내리는 지금도 영옥은 그 무슨 모욕이라도 받은듯 얼굴이 훗훗해오는것을 느꼈다...

7 반, 8 반... 영옥은 온 농장의 작업반과 분조들을 다 돌아보았다. 관리위원회를 향하여 귀로에 올랐을 때 그의 작은 가슴이 터질듯이 부풀어올랐다. 영양단지찍기는 훌륭하게 결속되었다. 그것도 3 일이나 앞당겨... 그는 처음으로 사업과 생활에서 오는 보람과 희열과 행복감을 가슴뿌듯하게 맛보았다. 이제 강냉이를 단지에 심어 모판에 옮기면 될것이다. 우줄우줄 자라는 강냉이들, 척척 늘어진 팔뚝같은 이삭들, 뒤주가 넘쳐나게 쏟아져내리는 황금의 강냉이폭포! ...영옥의 마음은 벌써 이 땅에 꺼져내릴듯이 실린 만풍년의 가을에 가있었다.

영옥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시뻘건 저너해는 천암산마루우에서 마지막 열정을 내뽐고있었다.

영옥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불현듯 5 작업반 3 분조에서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다가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새로 부식토를 장만해다가 찍자면 아직까지도 작업이 끝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그의 몸을 돌려세웠던것이다. 그러니 결국 자기네 농장에서는 아직 100 프로로 영양단지찍기가 끝난것이 아닌것이다.

(글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러버렸담...)

잠시나마 자그마한 성과에 도취해서 현란한 칠색무지개속을 뚱뚱 떠서 헤매고 다닌 자신이 미웠다.

영옥은 부지중 온몸이 찌뿌듯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것을 느꼈다.

(왜 이렇가? 참 이상하지. 아까 관리위원회로 갈 때는 훨훨 나는것처럼 가벼웠는데... 결국 이게 뭐야? 오던길을 되돌아가기는 싫다는 말이지. 여기서 한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 일을 되는데로 하고 본의 아니게도 거짓말을 하게 될거야.)

사실 그는 요즘 몹시 무리를 했었다. 장판지가 통통 부어오르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도록 뛰어다녔었다. 그러니 왜 피곤인들 안하랴!

영옥이가 개암나무끝 막바지우에 있는 3분조포전에 당도했을 때는 황혼녘이었다. 발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 끝난 모양이구나! ...)

영옥은 호 하고 긴숨을 내쉬며 저쪽발머리로 걸어갔다.

작업장은 말끔히 정리되어있었다. 마치 사열을 받기 위하여 열병식장에 나온 병사들과도 같이 영양단지들이 줄줄이 서있었다. 어찌보면 아이들의 장난감바게뜨를 수많은 세워놓은것 같기도 했다. 아직도 물기가 번지르르한 단지들! 답축 안아서 불이라도 비벼주고싶도록 사랑스럽고 다정한것들! ...

영옥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자 분필을 번지르르듯 분질러 두손으로 비벼보았다. 순간 그는 가슴이 찢렁해지는것을 느꼈다. 손에 느껴지는 촉감,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나긋한 촉감, 말로는 도저히 형용할수 없는 그 야릇하면서도 상긋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것이 아니었다. 그런식으로 또 몇군데를 더 해보았다. 역시 같았다.

(속였구나!...)

영옥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이였다. 한동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하던 그는 발머리에 서있는 에어린 참나무에 몸을 탁 실었다. 나무는 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휘청거렸고 열기설기한 잔가지들과 이파리들은 바들바들 떨었다.

최후의 배반은 그의 온몸을 깡그리 란도질하는것 같았다. 야속, 원망, 아니였다. 분노, 그것도 아니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로울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가? 그는 저도모르게 몸서리쳤다. 그냥 지나쳐버렸더라면 어떻게 될번했는가? 머리가 아뜩해왔다. 그의 리성과 의지로서는 리해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것이였다.

비탈길을 내리는 영옥은 벌써 세번이나 넘어졌다. 발끝으로 온몸의 힘이 쑥 빠져버린듯 도무지 맥을 쓸수가 없었다.

5 작업반 선전실 문앞에 왔을 때는 벌써 캄캄한

밤이었다. 손기척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업반 기술지도원만이 있었다. 반장은 1분조에 나갔다는 것이다. 다시 나왔다.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들, 짜그르 울리는 웃음소리, 이따금씩 부엌문이 펄쩍 열리면서 수건을 쓰고 행주치마 가쁜히 두른 녀인들의 그림자가 마당가에 언뜻했다가 사라지는 모습, 가락맞게 울리는 칼도마질소리, 어둠속에 떠도는 구수한 저녁냄새... 영옥은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다. 그 다정다감한 생활의 음률들은 지치고 피로한 그를 녹작지근한 안식과 평온으로 불러들이는것만 같았다.

영옥은 걸음을 멈추었다. 옆으로 지나치려고 하던 사람이 앞으로 다가왔던것이다.

《아니 관리위원장동지가 아닙니까? 이제야 가시겠습니까?》

그는 리덕배반장이였다.

영옥은 가만히 서있었다. 어딘가 먼 어둠속을 응시했다.

《1분조에 나갔다가 그만 허허...》

저로서도 혼자 지껄이고있는것이 싱거웠던지 어설픔게 웃었다.

《반장동무.》 영옥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그렇게 나직했다. 《오늘 오후에 찍은 영양단지들을 모두 다시 찍어야 하겠어요.》

리덕배는 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대를 꺼내물었다. 그리고는 라이타를 탁! 소리가 나게 켜서 담배에 가져다댔다. 초불처럼 피어오르는 라이타빛에 그의 거뭇한 얼굴이 얼핏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다시 찍으려면 다시 찍지요.》

의외에도 그의 목소리는 태연하였다.

《이제 곧 사업조직을 하세요.》

《이제 곧 말입니까?》

《그래요.》

《무엇때문에 이제 곧 하겠습니까. 이 캄캄한 밤중에말입니다. 더구나 보고가 다 올라갔는데...》

《보고가 다 올라가다니요?!》

영옥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올라갔지요. 아마 이제쯤은 군에 올라갔을겁니다.》

리덕배는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반장동무!...》

영옥은 머리가 아찔해졌다. 커다란 무쇠덩어리가 내려오며 머리를 치는것 같았다. 눈앞에서 번개가 일고 우뢰가 울었다. 그는 짹 내리감았던 눈을 번쩍 뜨며 몸을 휙 돌려 어둠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관리위원장동지!...》

리덕배의 손에서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가 맥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져버렸다. 발치에 떨어진 빨간 담배불이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4

관리위원회까지는 10 리길! ...

영옥은 달렸다.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어디서부터인지 신작로를 벗어나 소로길로 접어들었다가 길도 아닌 숲속을 헤쳐나가고있었다. 빨리, 빨리! 마음의 목소리는 그를 자꾸 안타깝게 만든다. 빨리 빨리! ...

그렇게 달려온 10 리길이였다. 비로소 관리위원회 문앞에 당도했을 때 그는 밀동 잘린 나무처럼 바람벽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갑자기 머리가 펑 내둘리우고 일시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것만 같았던것이다. 심장은 그 녀자의 봉긋한 가슴을 마구 짓밟으면서 남의것처럼 그냥 요동을치고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달려온 10 리길이 아득한 꿈결처럼 생각될뿐이었다.

이윽고 몸을 일으킨 영옥은 문을 열었다.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 적고있던 윤광준이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타슬타슬 마른 입술,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생기를 잃은 커다란 두눈...

윤광준이 다가가서 그를 부축하려 했다.

《아니 괜찮아요.》 영옥은 무너지려는 자신을 간신히 지탱하며 책상앞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다.

《위원장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혹시 짐승이라도 만났던게 아닙니까?》

영옥은 대답대신 한손으로 귀밑머리를 쓰다듬어 올리고 해쓷한 얼굴을 쳐들었다.

《부위원장동지, 군에 보고를 아직 안했겠지요?》

《보고라니요?!...》

《강냉이 영양단지말이에요.》

《에 난 또, 아니 그럼 그 일때문에 이렇게 달려오는길입니까? 어디서 옵니까?》

《5 작업반에서 와요.》

《첫참.》 윤광준은 도무지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글쎄 보고가 뭐이 그리 중요한 일이라구 그렇게!...》

《보고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동문 당장 쓰러질것 같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허허 참, 보고는 했습니다. 100 프로로 끝냈다고, 아무려면 아직까지 안했겠습니까.》

영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한참동안 입술만 떨고있던 그는 간신히 속삭였다.

《취소해야 되겠어요.》

《취소요?!...》

《리덕배반장동무가 끝내 속였어요.》

《그건 또 무슨?...》

영옥은 자기가 보고온 사실을 이야기했다.

《뭐라구요? 그 동무가!...》

윤광준은 책상을 탕! 쳤다. 재털이가 튀어올랐다가 주저앉으며 부르르 몸부림쳤다. 대번에 얼굴이 시뻘겋게 된 광준은 그 흥분을 어디다 묵새겼으면 좋을지 몰라하듯 저쪽 구석까지 돌진하듯 걸어갔다가 뻘하고 몸을 돌려 이쪽으로 걸어왔다가는 다시 그쪽으로 걸어가군했다. 그러다가 그는 책상앞으로 다가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위원장동문 그 동무를 그냥 뒹두고 왔단말입니까? 그 허풍쟁이를, 그 위선자를!...》

《그런데 부위원장동지는 그때 없으셨던가요?》

영옥은 윤광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나말입니까?》 광준은 약간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이었다.

《없었지요. 그 동무한테 단단히 강조를 하구 4분조로 건너갔었지요.》

영옥은 눈길을 떨구었다. 더 할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픈지...

《취소합시다. 제가 아직 일을 쓰게 하지 못하는가봐요.》

영옥의 두눈에선 부지중 눈물이 피어올랐다.

윤광준은 불깃해진 얼굴을 수긋하고 이번엔 책상앞을 조용히 거닐면서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무, 마음을 굳게 먹읍시다. 일을 하느라 이런 일두 있구 저런 일두 있지요. 이번 일만 해두 내 잘못이 많습시다. 내가 그때 리덕배동무를 믿고 4분조로 건너간것이 큰 잘못이었지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동무가 그렇게까지...》

조용히 방바닥을 울리는 발자국소리만이 들렸다. 영옥이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음향이 더더욱 가슴을 아프고 쓰리게 해주는것 같아서 견딜수가 없었다.

이윽고 영옥은 나직이 한숨을 토하고 옷매무시를 바로잡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만...》 전화기로 손을 가져가던 영옥은 흠칫하며 조심히 얼굴을 쳐들었다. 어느틈에 다가왔는지 윤광준의 너부죽한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무엇때문인지 얼굴은 좀 불그스름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입을 열었다.

《위원장동무, 꼭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 …》

영옥은 의아해진 눈길로 쳐다보았다. 무엇때문에 그런 새삼스러운 질문이 필요한것인가?

하지만 윤광준은 그것을 못본척하고 다시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물론 리덕배동무의 파오는 엄중합니다. 그 동무는 응당 그 파오의 엄중성으로 보아 조직적인 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동무.》 갑자기 목소리가 나직해졌다. 거기에는 벌써 아래사람이 옷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말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딸앞에서 무엇인가 말할 때 은연중 풍기게 되는 그 무슨 위압적인것이있었다.

윤광준은 말을 계속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농장 총계획수자에서 볼 때 1프로가 되나마나한 수자요. 그리고…》

《?!…》

영옥의 두눈은 점점 커졌다. 그는 방금전까지 자기를 어려워하며 떠받들던 윤광준부위원장장이 아니었다. 지금 앞에 서서 몸에 걸치었던 그 화려한 의상을 한꺼풀 두꺼풀 벗고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다.

영옥은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는 농장원들의 심리상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중간총화소식을 듣고 섭섭해하던 사람들, 마감총화에선 꼭 1등을 하라고 웨치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윤광준의 말이였다.

(1 등!…)

그랬다. 자신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왔다. 그러나 그 1등이 무엇때문에 필요한것인가?

영옥은 분기가 느껴지는 눈길을 어딘가 한곳에 엮비스듬히 겨누며 말했다.

《농장원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런 1등을 바라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장이 그전에는 항상 모든 일에서 1등을 해왔다는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에서도 그렇게 알고있지요.》

영옥은 저도모르게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1등이 어떤 1등이었겠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뜻이 암시되어있는것 같았다. 은근한 위협, 공명애로의 달콤한 유혹- 리성적으로 사고하시요. 이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인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것이요.- 이렇게 속삭이는듯한 그 유혹- 관리위원장으로서의 당신의 무능, 그것이 폭로될것이요- 이런 은근한 위협

…

영옥은 천천히 몸을 쭉 폈다. 지금까지 윤광준 그가 가지고있던 그 《명성》! 그것도 그렇게 얻어진 《전취물》이였다. 그러고도 자신의 죄악을 느끼지 못하고 점잖게 얼굴을 들고다닌다는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은 허위였다! 위선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것을 자기한테 강요하고있다. 영옥은 송충이라도 털어버리듯 몸을 흠칠 떨며 말했다.

《안됩니다. 그렇게 못해요!》

윤광준은 책상앞으로 두벅두벅 걸어나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조를 바꾸어 달래듯이 말했다.

《아무려면 직파하는것보다야 못하겠소. 그래두 적지 않게 부식토가 들어갔는데…》

어쩌면 낮에 리덕배반장이 하던 말과 그렇게도 신통히 같은가? 그러나 이제와선 그것이 별로 놀랍게 생각되지 않았다. 영옥은 조용히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섰다.

《안돼요. 부식토가 들어갔다곤 하지만 아직 모자라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양단지를 질적으로 하라고 교시하시였어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는 0.1 프로가 모자라두 안돼요.》

윤광준의 얼굴은 거뭇게 죽어버렸다. 그는 것처럼 공명애로의 갈망이 강렬한 사나이였던가? 사실 그로서는 자기가 군에 보고한것을 취소한다는것이 제 살점을 저며내는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10여년간 부위원장으로서의 쌓아올린 모든 공적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것 같았기때문이다.

《위원장동무, 그렇다구 뭐 군에 이미 보고한걸 취소까지 하겠소. 부식토를 마련해서 단지를 다시 찍으면 되지…》

《공장에서 만든 영양단지엔 얼마나 많은 부식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린 아직 흙단지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러면서도 보고는 100 프로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 보고가 도에로 올라가고 도에서 평양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영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가 말로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다 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보고를 드릴수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수 있어요.》

영옥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반짝거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밤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잠 못 이루고계실거예요. 수령님께서 계시여 오늘이 있고 찬란한 래일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구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면 됐지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말이에요…》

영옥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목이 콕 메여 오르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오는바람에 말을 할수가 없었다.

(수령님! 이 철부지사녀를 용서해주십시오!)

× ×

윤광준은 책상앞에 석상처럼 서있었다. 그는 영옥이가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지 언제 방안에서 나갔는지 몰랐다.

아 과연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하늘땅이 빙글빙글 돌아가는것 같고 딛고 서있는 땅이 쩍 갈라지더니 천길나락으로 온몸이 휘휘 내돌리며 끝없이 날아떨어지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더 서있으면 쓰러지고말것만 같아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번엔 휘황히 빛나는 전등불이며 하얀 천정이며 보이지 않는 공기마저도 사정없는 압박기가 되어 그를 내려누르는것 같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다시 일어섰다. 가슴을 지지누르는것같은 압박감은 매한가지이다. 과연 그를 용납할곳은 어디인가?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윤광준은 어디론가 걷고있었다. 그도 어디로 가고있는지 몰랐다. 다만 본능적으로 발길이 움직이는대로 그저 몸을 내맡겼다. 그렇게 걸은 때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저 멀리 어둠속에 봉화라도 오른듯 화광이 비쳐오르며 밤하늘을 불태우고있는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희박거리며 그의 옆을 지나쳐 어둠속으로 달려간다. 무엇인가 거대한 사변이 저 앞에서 장엄하게 대동하고있었다. 윤광준은 그 화광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다. 일직선으로! 눈, 발,도랑 가리지 않고 곧추 걸어갔다.

드디어 높이 펼쳐져있는 덩불길에 들어섰다.

마주 보이는 저쪽 늪가의 니탄채취장 여기저기에서는 비자루같은 불몽치들이 거무칙칙한 나무들사이에서 솟아오르고 이쪽 아래 공지에서는 날가리갈은 우등불이 활활 타오른다.

윤광준은 갑자기 암흑속에서 광명속으로 들어선듯 눈이 부시여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서는 들것이며 삼태기며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뻔히 보인다.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있는 앞에는 큼직한 니탄무지가 솟아오르고있었다.

키가 적두룩한 한 사람이 삼태기에 담아가지고온것을 니탄무지에 쏘고 걸이대로 취울리고있는 한

처녀한테 다가가 팔을 내민다! 그들은 잠시 싱겁이를 벌렸다. 아마 걸이대를 주고 좀 쉬라거나 팬찮다 거니 하는 모양이다. 이윽고 그 처녀는 그 사람한테 걸이대를 넘겨주고 피로한듯 손등으로 이마를 씻는다. 자그마한 몸매! ...가쁜하게 머리에 쓴 수건자락이 밤바람에 불길처럼 날린다. 아직도 스물다섯살의 어린 처녀,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심장은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이라! 온몸에 땀투성이가 되어 달려왔던 10리길! 어찌 그것을 단순한 10리길이라고만 할수 있으랴!

피로에 지쳐 금방 쓰러져버릴듯만싶던 저 처녀의 자그마한 몸 그 어디에서 저처럼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억센 힘이 나오는지일까?

윤광준은 울뻐를 움쉴거리며 그 처녀를 향해서 걸어갔다.

영옥은 자기앞에 누군가 다가와서 걸음을 멈추는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비라도 맞은듯 온몸이 휘주근해서 서있는 사람, 무엇인가 애원하는것 같기도 하고 용서를 비는것 같기도 한 눈매로 자기를 치여다보고있는 사람, 그는 윤광준부위원장이었다. 두사람의 시선은 오래동안 허공에서 부딪쳐 떨어질줄 몰랐다. 윤광준의 두눈에 무엇인가 펴고인다. 그리고는 무슨 말인가 할듯 입술을 떨었다. 《아저씨!》 영옥은 하마트면 이렇게 부르짖을번했다. 그처럼 그의 얼굴은 꾸밈없고 진실하고 소박했던것이다.

영옥은 비로소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이 그전에 자기가 알고있던 다정한 아저씨인 그 부위원장이라는것을 알았다.

《부위원장동지!...》

《위원장동무!...》

그들은 더 말을 못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이 메여올라서...

푸름푸름 동이 터올무렵, 영옥이와 윤광준이 나란히 전화기앞에 서있었다. 방금 영옥이가 강냉이 영양단지찍기를 100 프로로 끝마쳤다는, 영옥이로서는 첫번째 보고를 한것이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 날아가는 전류의 맑은 소리를 듣기라도 하듯 승엄한 자세로 서있었다. 이 세상 선량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달려가는 그곳,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있는 평양을 우러러...

새 단조공들

윤리대

1

희미한 달빛이 산그림자를 길게 드리운 언덕길을 따라 세사람이 걸어가고있었다. 걸음은 느리고 입은 무거웠다.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싱그러운 봄바람의 속삭임에도 전혀 무감각한듯 그저 말없이 걸었다.

키가 격두룩하고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사람은 공장에서도 손꼽히는 단조직장장 최영목이었고 그보다 키가 한뼘가량 작으나 몸이 다부지게 생긴 청년은 공장에서 유명한 단조공 강세진이다.

그들과 두어걸음 떨어져 무거운 생각에 잠긴듯 머리를 가우뚱하고 재계 발을 놀리며 뒤따라가는 몸이 날씬한 처녀는 채치있는 공기마치운전공 주옥심이다. 것처럼 공장에서 손꼽히고 유명하고 채치있는 세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자기의 무력함을 몸서리치도록 느꼈던것이다.

생산에서 언제나 첫자리를 놓아본적이 없는 위력하고 패기있는 단조직장이 생산경쟁 중간총회에서 앞에서 다섯번째로, 더 정확히 말하면 맨피리로부터 두번째로 쿵하고 앉은방아를 찼었던것이다.

《풀이 참 좋다!》

회의장뒤구석에서 누구인가 조소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영목의 귀에 쟁쟁히 울리는것 같았고 가슴을 쿵쿵 찌르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눈물이 쥘끔 날 정도로 깊은 것이였으나 한편 어린애의 마음과도 같이 짧은것이 특징이였다.

(별걸 다 가지구 신경을 쓰는군. 경쟁에서야 이길수도 있고 혹 질수도 있는게지...)

그는 랑옆에서 묵묵히 걷고있는 강세진과 주옥심의 툼툼한 모습을 보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사람은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걸어보는 퇴근길이었다. 한것은 옥심이가 공장대학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 그런 시간이 없었지만 더우기 세진이와 옥심이가 서로 남몰래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영목은 아쉽게도 그런 기회마저 앗기고말았다.

(단조작업에서도 손발이 잘 맞으니 마음도 그럴 수밖에... 참 좋은 일이지...)

그는 진정 그들의 사랑이 한떨기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알지계 영글기를 충심으로 바랐다.

영목은 걸음을 늦추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소. 경쟁에서 졌다구... 그래 두 세진이와 옥심인 개별경쟁에서 단연 1등을 하

지 않았소. 난 두사람이 가지런히 주석단에 나가 꽃다발을 받을 때 정말 기뻐소. 이젠 단조공들의 영예인 동시에 직장의 대경사요...》

좀해서는 애뜻하고 다감한 말을 할줄 모르는 그였지만 이런 땀 무슨 말이 서로 오가야 영킨 마음도 풀리고 유쾌해진다고 생각했다.

《그까짓 중간총회에서 졌다구 그럼니까. 원래 능란한 장거리선수는 앞뒤에 적수를 달고 뛰는 법인데... 옥심동무, 매일부터 다시한번 생산을 부쩍 올려봅시다!》

세진은 벅글거리며 옥심이쪽을 바라보았는데 리지적으로 빛나던 처녀의 오목눈에는 그 어떤 애원과 불만의 빛이 어려있었다.

《왜 이러오. 갑자기 병어리가 났소. 서로 할 말이 있으면 속 시원히 할게지. 원 참, 성미두...》

그런데 옥심은 무엇을 저어하듯 아래입술을 감빨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더니 기여드는 목소리로 떠엽떠엽 말했다.

《전 오늘 부끄러웠어요. 우린 왜 앞선 사람과 뒤떨어진 사람과의 차이가 그리도 심할까요? 그들이 우릴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뭐 차이가 심하다구?》

영목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따르는 옥심을 바라보았다.

타박타박 걸어가던 옥심이라도 놀란듯 멈춰섰다.

《옥심이두 알겠지만 단조공 한사람을 키워내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요. 적어도 3~4년이 걸려야 한다는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요. 이번 경쟁에서 우리가 아쉽게 진것도 결국 신입로동자들을 잘 키워내지 못했기때문이 아니겠소.》

《저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구 3~4년이 지날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릴수야 없지 않나요. 아무래두 새로운 단조방법이 나와야 해요. 특수축형단조를 도입해보자요.》

《새로운 단조방법이요. 도입할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특수축만은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소.》

세진이가 참지 못하고 옥심의 말을 뭉청 잘라버렸다.

그동안 수많은 기술자들이 특수축형단조를 시도하다가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보고 물러선 그것을 한갓 운전공이, 이제 겨우 공장대학을 다니는 욕심이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둘사이의 관계가 어쩐지 상서롭지 못하다는 것을 감촉한 영목은 그들의 마음속을 음미하듯 번갈아보다가 결결하면서도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래일부터 한번 부쩍 올려봅시다. 우리가 뒤떨어져서야 되겠소. 욕심이 보통이 아니군. 보자하니 욕심이가 아니라 욕심이거던, 하하하...》

그렇게도 웃음이 헤픈 욕심이였건만 얇은 입술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꼭 닫혀있었다. 투박한 사나이인 세진이 역시 이런 때 어울리는 차분한 말을 할 줄 몰랐다.

세사람은 갈림길에서 묵묵히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욕심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문에 턱을 고이고 밤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군청색 하늘엔 못별들이 반짝이였다. 구슬같은 이쁜 별들이였다. 그속에는 희미한 별도 하나 둘 보였다.

욕심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싱그러운 봄바람이 배사강쪽에서 불어와 술많은 머리카락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지나간다. 강세진을 처음 만났던 일이 못견디게 떠올랐다. 그날도 버들개지가 한창 움터오던 이른봄이였다.

제대배낭을 한쪽어깨에 걸친 강세진이가 버들개지를 한손에 꺾어들고 단조직장에 나타난것은 8년 전이였다.

그때 욕심은 갓 기술학교를 졸업한 애어린 단발머리처녀였다.

《처녀동무, 이 공기함마에 배치되어왔습니다!》

욕심의 앞에 다가선 그는 병글거리며 손을 불쑥 내밀었다.

욕심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가운데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지 그 크고 역센 손이 자기의 자그마한 손을 힘껏 잡아흔드는것을 느꼈다.

(아이 아파!)

욕심의 동그스름한 얼굴은 대번에 당추처럼 빨갛게 익었고 쌍가풀진 오목눈은 랑어깨가 바라지고 다부지게 생긴 청년의 얼굴에 와 뒹겼다.

마침 작업반장이였던 최영목이 다가와 그들을 육중한 공기마치앞에 나란히 세워놓고 틀에 박은 첫

인사를 시켰다.

《단조공이 되겠다는 생각은 참 잘했소. 단조는 하나의 예술이요. 아름다운 노래의 장단두 우아한 춤의 룰동두 다 단조에서 나왔단말이요. 말하자면 단조공은 재능있는 무용수이고 운전공은 능란한 연주가라고 할가... 단조공과 운전공은 쇠를 두드릴 때 눈과 눈을 맞춰야 하오. 그리고 몸동작과 그 섬세한 룰동을... 우린 이렇게 몸짓과 손짓으로 그 많은 이야기를 대신한단말이요. 그러느라면 자연 마음도 하나로 합쳐지는거요.》

《전 주옥심이라구 불려요. 앞으로 많이 배워주세요.》

《난 강세진이요. 대포박엔 아무것도 모르오.》

그날부터 둘은 밤을 지새우며 모형축을 가지고 단조훈련을 해왔고 피라는 노력과 부단한 숙련을 통하여 반년이 채 못걸려 처음으로 특수축을 제손으로 단조해내고야말았다.

둘은 자기들의 창조물을 놓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그들은 어린애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공기마치주위를 빙빙 돌았다.

《세진동무, 축하해요 인젠 정말 당당한 기능공이 됐어요.》

욕심은 더 살뜰하고 다정한 말을 찾으려고 애써 보았으나 종시 적중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봉긋한 가슴만 자꾸 들먹이였다.

《욕심동무 축하하오! 이젠 전적으로 능란한 운전공이 있었기때문에...》

포병답지 않게 말문이 꺾 막혀버린 강세진은 어색하게 이마에 흐르는 땀을 쓱쓱 문질렀다.

그때야말로 세진은 욕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였고 세진이 역시 욕심을 떠나서는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해보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강세진은 특수축단조에서 여러차례 새 기록을 돌파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건줄수 없는 단조의 《왕자》로 되었다.

세진의 높은 기록은 욕심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어깨가 넓죽하고 얼굴에 쇠빛이 흐르는 강세진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몸이 날씬하고 해맑은 얼굴에 웃음이 가실줄 모르는 욕심이가 한창 단조작업을 마치고 선풍기앞에 나란히 서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을 때면 사람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세진동문 천성적으로 단조공의 재능을 타

고났는가봐. 저 숙달된 작업방법과 날랜 동작은 누구도 따르지 못해.》

《옥심인 또 어떻구. 고 날씬한 몸에 실직한 어깨를 가볍게 달싹거릴 때면 꼭 무용수같애, 호호호...》

단조공들과 운전공처녀들속에서 이런 말이 오갈 때면 세진은 자기의 젊음을 자랑하듯 어깨를 으쓱거렸고 부끄럼 잘타는 옥심은 귀부리에 불을 달고 세진의 넓은 등뒤에 살그머니 몸을 숨겼다.

《아이 창피해. 동무때문에 또 칭찬이구만요!》

옥심의 소곤거리는 소리였다.

한번은 도일보에 그들의 사진이 가지런히 난 일도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떠들어댔던가. 파시 하나의 연분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배필이라느니 하면서 그들을 못살게 굴었다.

두사람은 그것으로 하여 더욱 가까워지고 다정해졌는지 모른다. 그들의 우정은 꽃방울처럼 한껏 부풀어오르더니 은연중 사랑하는 사이로 돼버렸다.

세진은 회의때마다 주석단에 오르고 그 이름이 자주 속보판에 나붙었다.

사람들에게 동등 떠받들려오는 과정에 그는 집단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고 특전을 받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남들이 뒤떨어지건 말건 자기만이 새 기록을 내면 거기서 만족을 찾았고 로동의 희열을 느꼈다.

석달이나 한기대에서 일해온 견습공 영팔이가 제 힘으로 특수축을 단조해보고싶어 안타까와하는데도 여태 한번도 집계를 넘겨주지 않았다. 영팔은 《개구리 울썰이때를 다 잊어버렸다》고 입을 비쭉거리며 불평을 부렸으나 세진은 태평스러웠다.

직장이 경쟁에서 멀리 뒤떨어져 기분이 처져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차례진 꽃다발을 받아안고 그 령계도 기뻐할수 있단말인가.

꽃다발을 안고 만족한 웃음을 띠우던 세진을 회상해보는 옥심의 얼굴에는 한가닥 그늘이 비꼈다. 자기와 세진이 두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것이 안타깝고 서글펐다,

(그 동문 변했어. 집단의 명예보다 자신의 명예를 더 귀중히 여기고있어... 무엇보다문에 기술혁신을 달가와하지 않을까?)

옥심은 착잡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머리를 살래살래 저으며 창가에서 물러섰다.

책상앞에 이른 옥심은 오래전부터 그려오던 형단 조도면을 펼쳐놓았다.

2

이튿날, 직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언제 한번 제손으로 특수축을 단조해보았으면, 그것이 소원이라던 영팔이가 세진이 없는 짬에 특수축을 단조하다가 그만 오작을 낸것이다.

직장장과 검사공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운전공처녀들은 눈을 홑뜨며 입을 싸쥐고 억이 막혀 말했다.

《아이, 영팔동무가... 어찌자구?》

눈섭까지 모자를 폭 내려쓰고 어깨가 축 처진 영팔은 기대뒤에 몸을 숨기고 움푹하지 않았다.

한마디씩 하는 비난의 말들이 총알처럼 날아들어 영팔의 가냘픈 어깨우에 쿡쿡 박혔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영목은 쓰거운듯 입만 껌뻑 다시였다.

단조품의 치수를 재어보던 검사공이 빨간 뺨끼로 《오작》이라고 큼직하게 써놓았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옥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쓰리고 아팠다.

단조품의 오작은 치명적인것이다. 한번 늘려놓은 소재는 모래우에 쏟아부은 물갈아 본래대로 될수 없다.

공구창고에 갔다가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강세진이 허둥지둥 달려와 사람들을 비집고 안에 들어섰다.

얼굴은 험상스러웠다.

《오작》이라고 쓴 축을 안타깝게 내려다보던 그의 눈은 영팔에게 가 박혔다.

《흥, 이발도 나기전에 빠다구추렴부터 하겠다구... 이제 무슨 놀이감인줄 아나? 이제 보통쇠가 아니라 특수강재란말이요 특수강.》

자라목이 된 영팔은 아무말없이 발끝으로 애꿎은 땅만 후렸다.

《경쟁에서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아슬아슬한 시각에 쟁쟁... 대체 누가 하라던가?》

세진의 목소리에 놀란것은 옥심이었다.

그의 해쓱해진 얼굴은 놀라움에 차 굳어진듯 아무 반응이 없더니 조용히 아래로 떨어졌다. 얼마간 옥심을 쏘아보던 세진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 기대의 수치요, 단조공의 명예문제란 말이요!》

명예문제라니... 그럼 나라의 귀중한 자재를 잃은 것보담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고 그 수치가 더 크

단말인가.

옥심은 세진이와 영팔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영팔은 왜 아무말이 없는가? 구원을 청하는듯 가볍게 떨리는 영팔의 어깨를 보면서 왜 랭담한 태도를 취하는것일까? 그렇다면 그도 이 명예때문에, 수치때문에 침묵을 지킨단말인가?

옥심은 처음으로 영목직장장이 세진을 그르치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세진동무, 그만하오. 인차 보충해놓으면 될게 아니요. 얼마나 단조공이 되고싶으면 저런 모험을 했겠소.》

영목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옥심은 그것이 더욱 가슴아프게 들렸다.

차라리 영팔의 어깨를 붙잡고 《이녀석, 나라의 귀중한 자재를 아낄줄 모르는게 무슨 로동계급인가.》고 절절하게 타일렀던들 그의 마음이 이다지는 쓰리지 않았을것이다.

사람들이 흩어져갔으나 세사람은 말없이 서있었다. 세진은 기가 죽어 서있는 영팔이를 이끌어 소재우에 함께 앉았다.

《영팔이, 단조란 눈에 익고 손에 설은것이야. 나두 직장장동무한테 단조기술을 배웠는데 밤을 새우면서 모형축을 가지고 훈련했소. 땀을 동이로 흘렸소. 그 대가로 난 반년만에 이 특수축을 단조했고 새 기록을 돌파할수 있었소. 그런데 영팔은 이제 겨우 석달... 그래 이 거물을 단조해낼것 같은가?》

영팔은 이날 온종일 말한마디 없이 소재만 수직 수직 운반했다.

영팔은 작년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년이다. 열아홉살이었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으나 쇠소리가 나게 여물고 입귀가 꼭 맺혔다. 눈빛이 또릿또릿한것이 여간 고집스럽지 않다. 단조공이 되는것이 소원이라던 그가 어깨를 푹 떨어뜨리고있는것이 가엾게 여겨졌다. 옥심은 따뜻하고 고무적인 말이라도 해주고싶어 점심때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다.

《영팔동무, 뭘 깊이 생각해요. 제가 하자고 해서 한결 가지구...》

《그런게 아니예요. 너무 분해서... 그놈의 특수축이 사람 망신을 시키다니...》

그는 게면쩍은 웃음을 얼굴에 띠우더니 통명스럽게 말을 이었다.

《단조공이 뭐, 타고난것인가요. 배우면 하는게지...》

영팔의 말엔 어딘가 앵돌아선 마음이 엿보였다.

《옳아요, 3~4 년이 걸려야 특수축을 단조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뛰어넘지 못할 계선이나요. 남들이 반년에 했으면 우린 한달동안에 해야 해요, 그러자면 형단조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게 수월치 않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로력과 자재, 설비들을 절약하게 되고 누구나 다 제힘으로 특수축을 단조하게 될거예요.》

《해보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반대하나요?》

옥심은 무슨 대답을 하려다 말고 조용히 웃어버렸다.

이날 저녁 옥심이와 세진이는 함께 문화회관으로 갔다. 어느편이 이 길로 돌아가자고 말은 없었어도 둘은 배사장으로 나가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버들방천에 올라섰을 때야 그들은 강가로 나왔다. 는것을 깨달았다.

날씨는 파스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을 애무하듯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리광을 부렸다.

옥심은 문득 세진이와 함께 이 길을 걸으면서 황홀한 태일에 대해서 속삭이던 일이 못건디게 떠올랐다.

그날은 바로 단조작업반이 2 중천리마칭호를 받던 뜻깊은 날이었다.

앞가슴에 번쩍이는 천리마휘장을 바라보며 세진은 기쁨에 겨워 말했었다.

《난 이런 생각이 들군하오. 이 천리마우에 앉은 한사람은 나구, 또 다른 사람은 옥심동무라구...》

《아이참...》

옥심은 갑자기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달아올라 머리를 슬쩍 판데로 돌렸다.

《옥심동무, 우린 영원히 천리마기수답게 앞장서 갑시다.》

옥심은 대답대신에 머리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지금껏 체험하지 못했던 뜨거운것이 가슴속에 밀려오면서 눈앞이 흐려왔다.

그날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세진은 두번이나 새 기록을 돌파했고 옥심은 어느덧 대학졸업반에서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더듬던 옥심은 그동안 몹시 수척해진 세진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경술했어요. 그저 영팔동무가 안타가와한다는것만 생각하구... 그런데 세진동무두 너무했나봐요.》

《지나친 동정이 아니요. 나두 영팔동무 위해서

한 말이요. 단조일을 처음 배울 때 나두 그런 고빌 한두번만 넘기지 않았소. 마음 갈아선 당장이라도 특수축을 단조해보고싶었소. 그러나 그제 뜻대로 척척 되는게 아니요. 아마 영팔이두 1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게요.》

《그러게 우리 함께 특수축형단조를 도입해보자요. 그렇게 되면...》

《그게 될가?》

《그럼 동무까지 믿지 않으세요?》

《하여간 기술적타산이 있어야 할게 아니요?》

《타산은 이제부터 세우면 될게 안예요.》

《이제부터라...》

너무나도 짧고 애매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분명 솔한 기술자들이 여러가지 형단조를 도입하면서도 오죽하면 특수축만은 불가능하다고 했겠는가, 그런데 동무가? 하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그것은 영목직장장의 말과 신통히도 같았다. 다르다면 영목은 실패에서 오는 생산적영향에 대해서 걱정했고 세진은 옥심에게 미칠 후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였다.

《정말 세진동문 달라졌어요. 전 동무만은 꼭 도와줄줄 알았어요.》

깊은 상념에 잠겨 락조비낀 강물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졌다.

《글쎄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랬다구... 그제 욕망만으로 쉽게 해결되겠소?》

《욕망이라구요?! 동무에겐 욕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나요. 섭섭하군요. 세진동무가 그럴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문 벌써 남보다 뒤떨어지고있어요.》

《뭐요, 내가 뒤떨어졌다구? 그래야 동무 마음이 개운하겠소?》

《.....》

세진은 노여움과 원망에 찬 눈길로 옥심을 바라보았다.

옥심의 싸늘해진 입술은 아무 반응도 없이 바로 떨렸다. 세진은 세진이대로 속이 번졌다.

《그만하오.》

말없는 항변을 담은 눈길로 옥심을 힐끔 쳐다보던 세진은 몸을 휙 돌리더니 오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세진동무!》

옥심은 몇걸음 따라서다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옥죄여드는 가슴을 부여안고 세진의 등뒤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옥심은 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로소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는것을 느꼈다. 그동안 옥심은 이 까닭모를 매듭을 풀어보려고 남몰래 혼자 속을 태웠지만 그럴수록 더욱 풀릴수 없는 매듭으로 얽혀나갔다.

(그도 꼭 이해할 때가 올게야. 세진동무도 3대혁명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쓸모없이 밀려가진 않을게야...)

《삐쭙 쪼르르...》

강 한가운데 높이 뜬 종다리 한마리가 허공 한곳에 굳어버린듯 날개를 펼치며 연송 올었다.

어느덧 노을이 사라지자 강기슭으로 땅거미가 밀려들기 시작했다. 못새들이 밤이 오기전에 어서 보금자리를 찾아가자는듯 서로 부르고 부르며 기슭으로 날아왔다.

옥심은 맥없이 걸었다. 세진이와 함께 걸던 버들방천길을 혼자 걸어가는 옥심의 마음은 쓸쓸하고 괴로웠다.

그는 문화회관에서 들려오는 윤패한 노래소리를 등뒤로 느끼며 사택마을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3

공장대학에서 마지막 졸업시험을 마친 옥심은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오고있었다.

정말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어제날의 평범한 처녀운전공이 벌써 기사로 되다니... 마음은 한량없이 부풀어오르고 희망은 끝없이 나래쳐갔다.

호수같이 맑고 그윽한 눈으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던 처녀는 혼자 빙긋 웃었다.

《주옥심기사?!》

그는 조용히 혼자 불려보고는 제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입을 싸쥐고 주위를 살렸다.

한줄기의 시원한 바람이 고요하던 숲밭을 씩-흔들며 물려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애무하듯 스쳐지나갔다.

옥심은 강변길을 걸으면서 곱게 핀 개나리 몇가지를 꺾어들었다. 향긋하고 들크무레한 꽃냄새가 코를 찔렀다.

옥심은 꽃가지를 가슴에 꼭 껴안은채 총총히 걸어갔다.

동쪽에 올라서자 공장위용이 한눈에 안겨왔다.

해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아연도판지봉들, 그속에서 흘러나오는 기계바다의 동음소리... 얼마나 정다운 나의 공장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그의 거룩하신 현지도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나의 공장, 그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로동계급이 살며 일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 하리라!)

옥심은 몇번이고 이렇게 마음다졌다. 식궁식궁 공기마치의 경쾌한 동음에 이끌리듯 그는 직장에 들어섰다.

마침 사무실에는 영목직장장 혼자만이 남아있었다.

《직장장동지, 금방 졸업시험을 전부 마쳤어요.》

《그렇소? 우리 단조직장에 또 너기사가 태어나겠 구만! 이전 우리 단조공들에게 큰 기쁨이요.》

영목은 옥심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진정으로 기뻐했다.

옥심은 손에 든 개나리꽃을 꽃병에 꽂으며 나직이 말을 걸었다.

《직장장동지 제가 기사로 되는걸 원하겠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럼 제 일을 돕겠지요. 전 특수측형단조를 졸업논문으로 택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동안 한다하는 기술자들이 해보다가 실패한,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것을 논문으로 택하다니... 그게 리론적으론 가능할가?》

영목은 옥심의 결심을 타진해보는듯 조프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 리론적이라구요? 전 실천을 통해서 논문을 완성하려고 생각해요. 다른 형단조는 다 되는데 유독 특수측만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나요.》

《그럼 대학에서두 승인하구, 세진이하구두 의논해봤소?》

《아직...》

방금전까지 해맑게 피었던 그의 얼굴은 굳어지고 형용키 어려운 그림자가 비졌다.

영목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대고 세진을 불러오라고 누구에게 소리쳤다.

새침해 서있는 옥심을 바라보던 영목은 달래듯 조용히 물었다.

《그래 무슨 묘안이라도 있소?》

《묘안이라든가 별개 안예요. 아버이수령님께서 기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형단조를 적극 도입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셨어요. 전 우리 힘으

로 능히 해결할수 있다고 보아요. 정말 공기마치의 내속을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있는 직장장동지와 세진동무가 적극 밀어주기만 한다면 힘들지 않을거예요, 그렇지요?》

너무나도 절절하고 뜨거운 호소에 말문이 막힌 영목은 대답대신에 머리를 끄덕였다.

《전 오늘까지 옹근 8년간을 세진동무와 함께 특수측을 단조해왔어요. 전 인젠 눈을 감고도 세진동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단조하는가를 환히 꿰뚫고있어요. 물론 세진동무의 그 단조방법이 직장장동지한테서 익힌거라는것도 알고있어요. 그 단조법을 발전시켜 형단조에 옮기자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것이구 막대한 가공시간을 덜어드릴게 아닙니까.》

《똑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영목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두벅두벅 걸었다. 옥심은 자기 말이 이 투박하고 드센 영목직장장의 가슴을 움직였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옥심은 손에 들었던 도면마리를 책상위에 조심히 퍼놓았다.

기름때가 반지르 흐르는 도면, 언젠가 영목이더러 단조방법을 까근까근 물어보며 무엇인가 깨알같이 박아써넣던 그 도면이었다.

영목은 도면에 눈길을 주었으나 복잡하게 엉킨 실선과 점선들이 전혀 생소하게 안겨왔다.

옥심은 서둘러 도면을 설명해나갔다. 그의 회고가느다란 손가락은 점과 선을 따라 재빨리 움직이더니 한곳에 와서 토닥거리며 멈춰섰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일 굵고 둥근 여기부터 형단조하자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랑쪽에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을, 마감에 가서 좀 가늘고 반달형이 된 이 부분을 계단식으로 형단조한다면 특수측은 완전히 형단조하게 됩니다.》

옥심은 조용히 눈을 깔고 영목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럼 형단조지구는?》

옥심은 서둘러 옆에 있는 다른 도면마리를 펼쳐놓았다.

《형타지구는 다섯개로 설계했는데 한기대에 설치하긴 힘들것 같아요. 전 현재 특수측을 단조하고 있는 다섯대의 기대에 모두 설치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다섯대의 기대가 흐름식으로 작업하게 되고 그만큼 능률도 올라가게 될거예요.》

한참동안 도면을 들여다보던 영목은 머리를 들어 옥심을 바라보았다.

《뭘, 다섯대에?!》

이제까지 심각해졌던 그의 눈빛은 별스레 흐려지더니 원 참, 그런 모험이 어디 있겠소 하고 말하는 듯 실망의 빛으로 변했다.

《왜 그럴까? 도면에 부족점이 있는것일가?》

도면을 짚어나가던 그의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듯 바르르 떨렸다.

영목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방안에는 잠시나마 어설픈 공기가 떠돌았다. 이때 세진이가 불쑥 들어섰다.

두사람은 동시에 구원자를 만난듯 세진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땀이 후줄근히 내뻗 작업복에서는 더운 김이 피어올랐다.

《그래 동무네 기대에서두 형단조를 한번 도입해보지 않겠소?》

《네, 형단조요?》

세진은 옥심의쪽을 힐끔 쳐다보면서

《형단조를 도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할가요?》 했다.

《불가능이란 세상에 없소. 다만 시간문제거던...》

《차- 그러다가 그것까지 실패하는 날엔... 그때 경쟁총화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게 될겁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것보다 당장 가공에 소재를 보내야 할게 아닌가. 그래 세진인 오늘 몇개나 단조했소?》

한참동안 꾸뚱거리고 서있던 세진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않습니까.》

《그래 또 운전공이 서툴단말이지... 그럴테지...》

그 말이 나오자 옥심은 마치 못들을 말을 들었을 때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 몸을 돌렸다.

그동안 졸업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갓 직장에 들어온 분이에게 운전을 맡겨놓고 혼자 속을 태우던 옥심이었다.

분이에 대한 불만은 곧 자기를 애타게 부르는 말이 아닌가. 더 오르지 못해 안타까와하는 세진을 힘껏 도와주지 못하는것이 괴로웠다. 그럴수록 특수측형단조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부쩍 올리고싶은 욕망이 솟구쳐올랐다.

이것이 진정 세진을 돕는 길이며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종잡을수 없는 생각을 더듬는 새에 세진은 웅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옥심은 창가에 비스듬히 기대인채 그런듯이 서있었다.

락조비낀 창유리가 감빛으로 빛나더니 서서히 사라졌다.

옥심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영목은 비로소 사랑하던 그들사이에 틈이 생긴 원인을 찾은듯 조용히 불렀다.

《세진은 정말 훌륭한 젊은이요. 전도가 양양한 단조공이요.》

영목은 젊은 사람들을 칭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피박한 성미를 가졌으나 오늘은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꼭 하고싶은 말이였다.

《옥심이두 알지만 세진은 남들이 몇년이 걸려도 오르지 못하는 그 기록을 이태만에 뛰어넘은 단조에서의 능수란말이요. 물론 성격이 좀 피박하고 까다롭긴 해도 그 일욕심이야 누가 당하겠소. 그런데 옥심은 그를 도와줄 대신에 오히려... 난 알다가도 모르겠단말이요. 한번 마음을 주었으면 변함없이 사랑할줄 알아야지...》

《예, 제가...》

옥심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다.

《저두 세진동물 존경해요. 그 일욕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더욱 안타까이 형단조를 도입하자는데 안예요. 그런데 직장장동진 그를 너무 떠받들고있어요. 높은 생산성파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지만 그에겐 확실히 자기의 명예를 집단의 명예보다 더 귀중히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기만 특전을 받으며 앞서나갈것을 바란다면 집단은 어떻게 되겠나요. 제가 세진동물 진정으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직장장동지도 세진동물 너무 내세워 주었기때문이에요.》

《뭘라구?!》 영목은 지금 자기앞에 입술을 깨물고 고집스럽게 서있는 처녀가 옥심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영목은 세진의 옥옥하고 검질긴 일욕심을 사랑하듯 옥심의 총명함과 그 지혜를 남달리 소중히 키워왔다. 그런데 그 다감하던 처녀가, 아직 한번도 자기 말을 거역해본 일이 없는 그가 이렇게 나오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영목이었다.

창유리앞에 뒤집지고 선 영목을 이윽도록 지켜보던 옥심은 무엇을 더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푹 펴고더니 바람처럼 나가버렸다.

한순간 났을 잃은 사람처럼 그가 나간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영목의 험상궂은 얼굴은 푸들푸들 떨리었다.

(내가 세진일 그르치고있다고... 너무 내세워주고있다고?!)

그날 저녁 직장에서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총화하는 모임이 있었다.

모임뒤끝에 충성의 등록장에 등록하는 추천사업이 진행되었다.

《세진동무와 옥심일 추천해야지...》

《공장에서든 단원 첫자리인데 뭐...》

입이 간지러운 처녀들속에서는 벌써 이런 말이 새어나왔다.

누구도 그걸 의심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맨 구석에 자리잡은 옥심만이 가슴을 죄었다.

(아니 아무도 될수 없어.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에 넣은 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등록장에 자기 이름을 올릴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일치하게 손을 들어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 손으로 과연 누구를 추천한단 말인가. 나를... 세진동무... 아니 아무도 될수 없어!)

옥심이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주춤거리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벌어진 세진동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할가? 영목직장장처럼 사람이 변했다고 할가?)

그러나 옥심은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결심했다.

아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정에 끌려 원칙을 저버릴수는 없다. 그런 일로 사랑에 금이 간다면 하나의 신념으로 결합된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것인가.

옥심은 일시나마 나약해진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무들, 우리가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결기할 때 무엇을 결의했습니까. 형단조의 비중을 높여 특수축생산을 2 배로 올리자구 누구나 다 한결같이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로 그 손으로 누구를 추천하며 과연 누구를 등록한단말입니까.》

여기저기에서 긍정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회의에서는 등록사업을 뒤로 밀기로 하였다....

형단조지구도면을 끝낸 옥심은 기쁜 마음을 안고 현장에 돌아왔다. 분이에게 운전권을 넘겨주긴 했으나 비둘기 생각은 언제나 콩밭에 가있다고 그의 마음은 정들은 공기마치에, 더 정확히 말하면 세진에게 와있었다.

옥심은 며칠째 분이의 서투른 운전법을 익혀주려고 저녁때마다 이렇게 찾아왔다. 마침 분이가 기름을 타러 간 틈을 타서 옥심이 운전대를 잡았다.

세진은 하나의 축을 단조해낼 때까지 말 한마디 없었다.

우아하던 어깨의 툭동도 팔의 세련된 움직임도 오늘따라 어색해보였다.

옥심은 저절로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직도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웅쳐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축단조를 마친 세진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을 녀도 하지 않고 확확 단김이 내뿜는 공기마치결에 앉았다.

옥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친 세진은 땀을 흠칠 생각도 잊은듯 멍하니 공기마치우를 올려다보았다.

선망과 동정의 빛이 가득해서 세진을 바라보던 옥심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진동무, 절 조금만 도와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순간적인 욕망이라면 후에 절 마음껏 욕하세요. 꽤히 받겠어요. 그대신에...》

다감한 옥심의 앞에서는 웅췌던 마음도 체물에 풀리던 세진이였다.

《나두 형단조를 적극 지지하오. 그러나 터놓고 말해서 그걸 꽤 감당해내겠는가 하는 위구가 더 크기때문이요.》

《저를 위해선가요? 아니예요. 저두 세진동무와 함께 등록장의 맨앞에 이름이 가지런히 오르고싶어요. 그러나 그전의 단조공이 아니라 새 단조공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으면 해요. 전 개인의 영예도 집단의 방조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하고 집단속에서만 빛날수 있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옥심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그의 가슴을 쿵쿵 찼었다.

(새 단조공... 개인의 영예?!)

세진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으나 아직 그 참 뜻을 이해할수 없었다.

(내가 지금껏 하나의 특수축이라도 더 단조해내기 위하여 아글타글 땀흘린것이 개인의 영예를 위 한 것이었던가. 아니다, 정녕 그럴수 없다!)

옥심은 그의 생각을 음미하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영예라는것은 모든 단조공들이 함께 달려나가는 그 집단속에 있다구... 전 뒤 떨어진 단조공들의 앞장에 서있는 세진동무보담 앞 선 단조공들과 함께 서있는 동무가 더 보고싶어요.》

《그만하오, 나두 지난날을 부끄럽게 살아오진 않았소. 내 흘린 땀이 헛되었다구 생각해본적은 한번 도 없었소.》

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절절하게 웨쳤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분이가 놀라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옥심은 말없이 돌아섰다.

단발머리 에어린 처녀로 오늘까지 8년간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안타까웠다.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이해가 다른것처럼 야속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세진은 형단조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안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과업이 전면에 나선 오늘에 와서는 어차피 반대의 길로 떨어지고마는것이다.

세진은 땀흘리며 근면하게 일한 보람으로 벌써 여러번 새 기록을 돌파했고 다른 단조공들을 까마득하게 뒤떨구었다.

남들을 이끌줄 모르고 저혼자만이 앞서나갈것을 바란다면 3대혁명이 심화된 오늘에 그것을 어떻게 혁신이라고 보겠는가. 확실히 세진은 새 기록이라는 방패뒤에 자기의 소극과 보수, 공명을 가리우고 있는것이였다. 그럴수록 옥심은 그를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일깨워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4

단조직장은 세차게 끓어번졌다.

금방 단조해놓은 ㄱ자형 특수축들이 천정기중기에 실려 가공직장으로 가는가하면 빨강다 못해 하얗게 단 쇠뭉치들이 전로에서 나와 연방 기대옆에 와닿았다.

크고작은 수십대의 공기마치들이 제가끔 자기의

목청을 돋구려는듯 겨금내기로 쇠쿵거렸다.

치열한 격전장이다. 속보판에는 대문짝같은 속보가 또 나붙었다.

《단조공 강세진의 기록을 돌파!》

처음 보는 속보다. 사람들의 시선은 속보판과 강세진에게 쏠렸다.

(젠장 이게 무슨 꼴이람! 선코를 빼우다니...)

세진은 성급한 나머지 전로공들에게 죄를 알맞춤하게 달구지 않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분이에겐 눈썰미가 없다고 눈을 흘겼다.

《차- 이거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분개한 나머지 덜덜 떨리는 세진의 얼굴을 바라보던 분이는 그만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세진은 그길로 영목을 찾아갔다.

《이거야 속이 타서 견디겠습니까. 한다하는 운전공은 다 빼돌리구, 견습공이라는건 갓 들어온 햇병아리구... 인젠 강세진이두 다 뺏습니다.》

《뭐가 다 뺏단말인가. 그래 좀 뒤떨어졌단말이지? 그럼 이제라도 옥심일 돌려달란말인가?》

영목은 능청스럽게 세진을 쏘아보았다.

《그만두십시오. 까치 제 등지가 싫어져서 날아가겠다는걸 붙잡아다 뭘합니까.》

《뭐라구?》

영목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이녀석이 점점 별스러워진다. 정말 옥심의 말대로 내가 그르치고있는게 아닐가? 사람들에게 떠받들려오구 내내 칭찬만 받더니 안하무인격이 되었다. 분이가 어찌구 어찌? 그렇게두 단조공이 되구싶어하는 견습공은 햇병아리라구? 옥심이까까치 제 등지가 싫어졌다구?)

《그래 어찌자는건가?》

영목의 말은 끊지 않았다.

《전 직장장동지한테 의견이 있습니다. 인제라도 다른 견습공을 준다면 반년안으로 특수축을 단조하는 기능공으로 키우겠습니다. 운전공도 갈아주십시오.》

(응 또 특전을 베풀란말이지... 내가 신발을 잘못 신긴것이 틀림없구나. 자꾸 내세우고 칭찬만 했더니 어느덧 이마뺨에 뿔이 나고 눈이 높아져 인젠 집단도 동지도 우습게 보고있단말이지...)

영목은 지금까지 보석처럼 반짝이던것을 막상 손에 쥐고보니 깨어진 유리조각이었을 때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세진인 변했군, 변했어! 언제부터 사람을 가려

보기 시작하구, 자기를 위해 애쓰는 욕심이마저 고
깝게 여기기 시작했나? 그래 쇠를 몇년이나 두드렸
다는 단조공의 마음이 쟁개비갈에서 뿜에 쓰졌
나 !》

영목은 세진을 이런 지경에 몰아넣은것이 다름아
닌 자신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쓰렸다. 그는
말을 꺼내기가 괴로운듯 창밖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느직느직 말했다.

《인젠 보수도 공명도 색깔이 달라졌단말이지...
혁신자의 옷을 입기는 했으나 한겹데기만 벗으면
속은 텅텅 비어있거던... 그러니 쇠소리가 아니라
나무통소리밖에...》

영목은 가슴이 답답한듯 목단추를 풀어헤치더니
방안을 무겁게 걸었다.

방안에는 숨이 막힐듯 서글픈 공기가 맴돌았다.

영목은 그 공기를 몰아가려는듯 문을 활짝 열어
제끼더니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사무실에는 세진이 혼자만이 남았다. 밖은 어두
워진지 오래다. 세진은 전등도 켜지 않은 사무실에
앉아 담배만 연거퍼 피워물었다.

《세진인 변했군, 변했어!》

영목의 성난 목소리와 욕심의 야무진 목소리가
화음이 되어 그의 심장을 쿵쿵 찢었다.

(내가 변했다구... 뭐가, 달라졌단말인가?!)

세진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의혹이, 막연한 불안
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름과 허탈, 고독감이 어둠처럼 찾아와 그를 못
견디게 떠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으로
나왔다. 넓은 작업장은 쥐죽은듯 고요했고 희미한
전등만이 조울듯이 깜박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숙보판앞에 와서 놀란듯 멈춰섰다

《단조공 강제진의 기록을 돌려!!》

모든 사람들이 경이에 찬 시선으로 이 숙보를 바
라보며 기뻐할 때 난 어째서 숙보판앞을 지나는데
마저 주저하고 새 단조공들 축하할 대신에 모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았던가. 내가 정말 변했는가, 아
니면 시대가 그만큼 달려나갔는가? 그는 그 대답
을 찾으려는듯 머리를 수굿하고 현장안을 걸었다.

문득 어디선가 명랑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가락맞춰 울리는 단조기소리

즐거운 춤노래 불려낸다네

날마다 명절로 꽃피워가는

우리는 유쾌한 단조공

라라라라 우리는 단조공

노래소리에 이끌려 걸어가던 세진은 공기마치앞
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아찔하게 높은 공기마치꼭대기에서 기름걸레를
들고 기계를 청소하고있는 욕심을 보았던것이다.

그동안 착실한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거무튀튀하
던 기대가 반지르 윤이 돌았고 시들시들하던 화분
의 꽃도 생기를 얻은듯 파릇파릇했다.

날렵한 동작으로 기대를 분주히 청소해나가던 욕
심은 무심중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마나!》

《... ...》

두사람은 마주 보았다. 기쁨과 자책이 어린 눈길
들이 허공에서 부딪쳤으나 말은 없었다. 안타까운
침묵이 언제까지나 가려는지...

《히- 여기 있는걸 그냥 찾아다녔구만!》

영목직장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
려왔을 때야 그들은 눈길을 돌렸다.

《당장 기술협의회를 열게 되었는데 주인이 여기
와있으면 어떻게 하겠소. 자 어서 빨리 가자구!》

영목은 두사람을 앞세우고 걸었다.

선전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공장 지배인을 비롯한 많은 행정일군들과 기술일
군들, 대학교원들까지 참가한 모임은 협의회라기보
다 큰 회의를 방불케 했다.

한것은 그동안 많은 기술자들이 시도하다가 실패
한 그 특수축형단조를 평범한 공기마치운전공이 제
기하였다는데도 있었지만 그것이 또한 단조작업에
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요진통을 때렸다는
데 있었다.

얼굴이 갱끗한 기사장이 욕심을 대신하여 도면을
해설해나갔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자기의
주견을 덧붙였다.

《지난 기간 많은 기술자들은 한 기대에서 특수축
을 형단조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섯대의 기대에서 흐름식으로 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조공들이 땀흘려 일하는것을 직접 제 눈으로 보
아온 운전공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입니다.》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올랐다.

《인젠 욕심동무의 말을 들어보는게 어떻소?》

지배인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일시에 욕심이에

게 쏘렷다.

맨 앞줄에 앉은 옥심은 수집은듯 머리만 더욱 깊이 숙였다.

《모두들 동무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데 어서 한마디 하오.》

지배인의 부드러운 말에 용기를 얻은 옥심은 조용히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리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사려깊은 오목눈을 내리깔고 장내를 둘러보던 그의 눈길은 영목이한테 와서 멈춰섰다.

(아이참,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 묻는듯한 그의 눈길을 바라보던 영목은 어서 말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일군협의회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적극 받아들이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철을 발견하고 힘내기로 쇠를 두드려 낫과 보습을 버리던 그시기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그러나 현대적인 단조기앞에서 흥겹게 일하게 된 오늘에 와서도 우리 단조공들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도 한사람의 단조공을 키우기 위하여 적어도 2~3년, 그보다 더 많은 기일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축을 형단조한다면 누구나 며칠새에 유능한 단조공으로 될것이며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가공을 쉽게 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현저하게 높게 되니 생산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기하는 기술혁신안은...》

여기까지 말한 옥심은 잠시 더듬거리더니 세진의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정말 이것은 제 혼자 고안해낸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가장 유능한 단조공인 강세진동무의 단조법을 발전시켜 형단조로 옮겨놓았을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는 단조방법과 단조순서를 한기대가 아니라 다섯대의 기대에 배치하여 형단조지구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많은 단조공들을 똑같은 수준에 끌어올리게 되며 단조작업을 계단식으로, 흐름식으로 하게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앉아있던 강세진은 옥심의 입에서 강세진의 단조법이란 말이 새어

나오자 놀란듯 머리를 들었다.

또다시 박수가 터져올랐다.

경이에 찬 눈길들, 감격적인 말들이 옥심이와 세진에게로 쏘렷다.

《과시 그 단조공에 그 운전공이라니...》

세진은 자기에게 쏘리는 못시선과 찬사의 말을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느덧 떠들썩하던 회의장이 조용해지고 텅 빈방에 혼자 남았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세진은 말할수 없는 고독감에 잠겨버렸다.

희미하게 비치는 전등불빛만이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외롭게 쓰다듬었다.

그는 무엇에 쫓기듯 비칠거리며 현관을 나섰다. 밝은 먹물을 뿌린듯 캄캄했다. 언덕길을 더듬듯 내려가던 그는 가로등옆에서 불쑥 나서는 옥심을 보았다.

그러나 세진은 그의 존재를 애써 모르는척하고 수직수직 걸었다.

어느덧 세진의 곁에 가까이 붙어서서 걸던 옥심은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세진동무, 함께 가자요.》

옥심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살뜰하고 다정했다. 세진은 그만 짜릿한 전류가 전신으로 흘러드는듯 몸이 굳어져버렸다.

두사람의 발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치며 들려왔다.

《옥심동무!》

세진은 비로소 걸음을 멈추며 다정한 그 이름, 사랑스러운 그 이름을 불렀다.

《세진동무!》

두사람은 뜨겁게 아메리카 보았다.

말이 없었다. 빛나는 그 눈빛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에서, 점점 높아가는 후더운 숨결에서 그들은 모든것을 말하고있었다.

어둠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서있는 영목의 눈빛도 함께 빛나고있었다.

두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뒤를 따라 걸어가는 영목의 눈앞에는 수많은 단조공들이 제 2차 7개년 계획의 링마루를 향해 세진이네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안겨왔다. 전과는 다른 새 단조공들의 모습이...

탄부의 이 마음(외 1 편)

박원식

걸음걸음
막장의 굴길을 내릴 때면
마음에 나래돌쳐 언제나 찾아가는
월비산 초소길이어

원췌격멸에 불타던
전호속에 금시 들어서는것인가
한걸음 두걸음
장벽에 다가서는 마음은
변함없는 병사시절의 그 마음

정든 근위련대의 전우들아
거기 설령의 초소길 따라내리며
대건설의 전선을 부탁하던
그날의 뜨거운 당부 안고살아
탄부여도 충성은 병사시절 다름없구나

낮에 밤이
따로 필요없구나
돌과구, 듣기만 해도 가슴뛰는 여기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창조 전투장에
충성의 발걸음을 옮겨놓은 나의 청춘시절

복무의 나날 하루같이
눈비속 언 땅을 깔고
병사로 가슴 불태운때문인가
가도가도 끝없는 열풍만을 안겨주는
기름진 탄발은 얼마나 좋은가

아, 그 어디에 있건
선히 떠오르는
거기 설령의 초소
전우들의 당부를 생각하는 마음이어서

채탄기는 이리도 세찬 불길 날리고있구나

번개를 열구는 화력타빈마다에
강철의 1211고지마다에
조국땅 그 어디라 없이
싸우는 초소마다 전투장마다에
열을 주고 뜨거움을 보태주는 여기

정다운 근위련대의 전우들아
지심을 떠받드는 억척의 무쇠동발
달려가는 탄차들의 끝없는 흐름
이 모든것 병사시절에 안아지킨
조국의 재부가 아니냐

아, 천길땅속
가장 깊은곳에
월비산초소를 옮겨놓고 사는 마음
조국을 지켜가던 병사시절의 나날이
조국을 꽃피우는 로동의 나날로 빛나고있구나

그래서 낮에 밤을 잇고
그래서 언제나 전우들과 함께 있는
어제날의 병사
탄부의 이 마음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의 숨결을 담아
전투적인사를 보내노라

언제나 어디서나
수령님의 명령 수행키에 준비된
전사들이 있는 한, 탄부들이 있는 한
월비산과 나란히 새 7개년의 석탄산은
충성의 전구에 높이 솟아있구나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백시

권양기운전공동무에게

검은 금 탄차를 불려이끌며

쇠바줄 지켜선 빛나는 눈길이어

기대의 주인된 그대의 마음
조일수록 권양기는 만가동이다

끝없이 풀리고 끝없이 감기는 쇠바줄은
하루 한시도 쉴 줄 모르는 그대의 마음
쉬임없이 폭포치는 석탄의 흐름은

수령님께 바치는 그대의 티없는 충성

아, 언제나 은빛으로 윤나는 그 기대에
새 기적이 탄부들의 웃음으로 어려 빛나누나
언제나 만가동인 그 기대로
검은 금의 산악을 땅우로 들어올리누나

그대 바라보는곳에

장호건

땅속의 검은 금
넘쳐나는 보화를 싣고
번개처럼 달리는 탄차들을 바라보며
벽차오르는 가슴
희열에 젖어드는 차도공의 눈빛이여

궤도를 구르며
땅우로 달려나가는 탄차들을 따라
그대 눈길 더듬어가는곳은
흰 연기 타래쳐솟는
거창한 대화학발전소의 송전탑들인가
쇠물빛 노을 붉은
제철소의 들끓는 용해장들인가

땅밑으로 아득히 뻗어내린 사갱길에
인차 타는 멋이야 왜 모르랴만
언제나 굴길을
걸어서 오르내리는 그대

좌편도 우편도 갈래는 많아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는 일 눈에 크게 띄우지도 않건만
지압에 떠오른 로반은 깎아내고 고루며
진동에 벌어진 철길이음새는 다시 풀어 조이며
지켜가는 탄차길
갱안의 두줄기 선로우에
변함없이 쏟아붓는 뜨거움이여

걸음걸음 그 한생각 침묵처럼 고이며
한구간 또 한구간

새겨온 자욱, 이어온 철길우로
탄차들이 달려갈 때마다
어이하여 그대 눈빛 것처럼 환희에 젖는가

탄차들의 저 장엄한 흐름을 넘어
그대 바라보는곳에
언제나 더 높이 솟아오르는 석탄산
그대 충성의 높이가 솟아있어
이런 순간이면
남몰래 젖어드는 그 눈시울...

석탄전선에 나래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를 두고
온 나라의 거세찬 숨결을 헤아리시는
아,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안겨와
우러르는 그대 눈빛 행복에 젖어있구나

천길 땅속
보이지 않는곳에 그대 일터는 있어도
그대 바라보는곳 솟아오르는 석탄산에
하고싶은 그 많은 말을 날마다 엮는구나
조국은 그 충성을 불꽃으로 피워주누나

아, 언제나 그 언제나
말없이 고이는 그 정성, 그 숨결
저 번쩍이는 검은 금의 흐름을
이 땅우에 꺼질 줄 모르는 빛발로
받들어올리고있구나
조국의 크나큰 행복을 더해주고있구나

탄부, 나의 보고

김휘조

막장에 흐르는 시원한 바람소리
자욱한 발파연기를 흠날리고
물이슬 젖어내리는 거칠은 돌벽을
나는 오늘도 힘껏 밀어간다

착암기 정끝에선 불꽃이 날고
땀에 젖은 어깨엔 조명등불빛에 번뜩이는
탄부의 전사령장

고백하노라
구름덮인 산발을 넘어 허리치는 강을 건느며
흘러간 병사시절
분대장의령장을 달던 이 몸에
탄광에선 전사의령장 달기 서운했음을

하나 가버린 신입병사시절이 다시 온듯
탄부의 첫 제복차림이 즐거워
설레는 마음 달래며 의젓이 걸어보던
별뜨는 탄광의 저녁길이어

탄부에선 군사규율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선 소대와 중대로 부른다고
로동의 첫날 중대장이 하던 말
마음에 들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변함없는 강철의 규율속에
더 강철같이 역세여질수 있음으로 하여

아, 명령을 수행하는 벅찬 열정으로 이어지는
병사시절처럼 내 마음 언제나
창조의 불이 튀는 막장에 세우리라
내 또한 멀리멀리 탄벽을 밀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를 창조하며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한 탄부의 자랑을 안고
지휘관에게 떳떳이 보고하리라, 병사시절처럼

나의 푸른 희망에 억센 나래를 달아주고
이 땅의 모든 소원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며
낮이나 밤이나 새 7개년의 령마루로 달려가는
조국은
내 캐낸 석탄과 함께 더 힘껏 전진하려니
제정된 시각에 어김없이 쇠물을 뽑으며
생각대로 산에 들에
꺼지도록 오곡을 익히며

임무를 수행한 탄부, 나의 보고
그것은 조국에 바치는
이 땅의 쇠물이며 오곡이며
이 땅의 맑은 웃음이며 노래

이렇게 나의 병사생활은 계속되노라
탄부의 전사령장을 번쩍이며
나는 오늘도 막장을 밀어가노라
조국을 받들어가노라

기사 자격증

최윤의

《...광산금속대학? ... 언제 졸업했습니까?》

《4 년전에 졸업했습니다.》

《혹시 박기찬동무라고 아십니까?》

《예.》

《그러면...》 사문탄광 기사장은 문득 흥분된 표정을 짓더니 나의 앞에 바투 다가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직접 찾아주셨을 때 동무도 대학에 재학중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뜻하지 않던 기사장의 질문에 놀랐다.

(8 년전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대학에 찾아오셨던 일을 기사장이 무엇때문에 갑자기 물어보는것일까?)

기사장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잊지 마시오.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언제나 잊지 마시오. 나는 우리 방기사동무에게서 그 크나큰 힘과 용기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쪽으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사갱권양기쇠바줄 감기는 소리가 철커덕거렸고 주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교동소리처럼 앵앵거렸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사장을 지켜보았다. 《박기찬?》 그는 대학시절에 나보다 두해 웃반이었다.

키가 자그마한 그는 별로 사람의 눈에 띄우지 않는 사람이였다.

자그마한 키, 시원한 이마, 애티가 담긴 가름한턱, 명상적인 커다란 눈... 그래 그 눈만은 인상적인데가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인상적인데...

그런데 왜 박기찬에 대해 갑자기 물어보는것일까? 기사장은 다시 돌아서더니 갱에다 전화를 걸어 누군가를 자기 방으로 속히 오라고 이르고는 앞이 마 벗어진 얼굴을 나에게로 돌렸다.

《굴안 물을 빼낸데 대한 우리 탄광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만나게 될 우리 박기사동무가 구체적

으로 이야기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 우리가 지하수와의 첫 선전포고를 하던 그 당시의 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책상옆에 있는 철계를 열고 그 무슨 문건같은것을 꺼내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 탄광에 찾아온것은 석탄채굴에서의 지하수극복에 대한 이 탄광의 귀중한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였다.

제 2 차 7 개년계획의 방대한 생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탄광에서는 강밑에 묻혀있는 석탄을 켤것을 계획하고있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탄광참모부에서는 앞으로 만날수 있는 방대한 량의 지하수를 극복하며 석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켤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선 다른 탄광의 경험을 알아올것을 나에게 위임하였다.

나는 그의 첫 대상으로 사문탄광을 선택했다.

대학시절에 우리에게 광상수문지질학을 강의하던 김상오부교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탄광의 기사들에 대하여 흥분해서 이야기해주던 일이 떠올랐기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하수와의 첫 선전포고를 하던 당시의 문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필요없게 ... 하지만 나는 이것을 철계에 보관하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건이 어떻게 되어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폭폭 풍기는 곰팡이냄새를 내가 어떻게 되어 비로소 느끼게 되었는가하는 문제가 나에게서는 참으로 중요하기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은근한 호기심을 느끼며 사업수첩우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기사장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다가 앉았다.

《몇년전 일이였습니다. 그날 우리가 참모회의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누가 인기척도 없이 출입문을 벌컥 열어제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고개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문가에는 난데없이 1 갯의 젊은 채탄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탄가루가 묻어 새까만 얼굴에 뺨 없는 사람처럼 흰눈자위만 번뜩이며 나를 보는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소리치는것이였습니다.

<물, 물, 물구멍이 터지려 합니다.>

우리는 불에 덴 사람처럼 화닥닥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 느낌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길로 갯구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벌써 갯구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차가 갯에서 올라오고있었습니다.

나는 인차가 몇기 바쁘게 도루 잡아타고 갯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차에서 로동안 전원이 뛰어내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안됩니다. 갯안에는 한사람도 없소.>

나는 그만 손맥이 확 풀리고말았습니다. 잠시후 갯구까지 물이 차오르는 환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기사동무도 아마 그때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리해할것입니다. 나는 그날밤부터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온 탄광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탄갱에서의 물질은 우리 탄광에서의 비참한 과거력사와 결합되어있는것이였습니다.

이번에 물이 터지려는 1 갯은 우리 탄광에서 기본맥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는 일제시대에 물질터진 사고로 수십명의 탄부들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낡은 갯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그 구역을 통과하는 작전을 벌렸습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나타난 물질징후는 우리로 하여금 락심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렇게 되자 우리는 탄광실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제일 같은데 그때 한 카바이드공장 기사장과 어느 화력발전소 기사장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키가 자그마하고 몸이 당돌한 그 카바이드공장 기사장은 언제나 입에서 통담이 떨어질줄 모르는 사람이였는데 우리가 갯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보더니 그만 갯구앞에

서 얼굴이 새파래지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아까운 석탄을 버리게 됐군!> 사색이 된 얼굴로 돌아서는 그를 보고 나는 그만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쓰는것 같았습니다.

사실말이지 우리 탄광 제 1 갯에서 나오는 석탄은 발열량이 높고 탄질이 좋기로 이름이 나서 주로 공업원료로 리용하고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기술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거듭 읽어보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탄광에서 있는 력사적인 물질사고의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있었습니다. 우리의 탄전은 암석이다 로출되어있었고 끝짜기마다에는 굉장한 물이 흐르고있었습니다.

일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탄광에서는 벌써 갯을 그대로 폐갱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탄부들은 문이 닳도록 드나들며 끝내 폐갱해야 하는가고 따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대답도 선뜻 할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석탄보다도 탄부가 더 귀중하기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한때 평남북부 탄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한 지질학자는 일제때 침수된 갯구앞에 몇번이나 찾아와서는 지질도를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학자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있다는 학자였습니다.

기사동무도 알겠지만 우리 나라 무연탄상이야 복잡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본놈들은 우리 탄부들의 목숨이 파리목숨보다 못했기때문에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우리 탄부들을 내몰아 무참히 탄속에 묻히게 하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물질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누가, 누가 그 방법을 내놓겠는가? 그 안전성을 담보할 사람은 누군가? ... 울며 겨자먹기라고 우리는 그때 할수없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참 오늘도 나는 그날 저녁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밤이 꽤 깊었는데 누가 조용히 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를 쳐들고보니 문가에 웬 키가 자그마한 젊은 동무가 서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닫자 잠시 우두커니 서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머뭇머뭇거리더니 기여들어 가는 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기사장동지, 1 갯을 폐갱 한다는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그만 화가 동해서 버럭 역증을 냈습니다.

<그건 왜 묻소?>

사실 그 당시 나는 탄광의 극단한 이 실태앞에서 신경이 예민할대로 예민해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나의 앞에 들고온것을 조심스럽게 책상우에 놓았었습니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몇달전에 우리 탄광에 배치받아온 젊은 기사였습니다. 젊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너무 어렸습니다.

배치받고 처음 나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에도 기사장방에 들어오는것이 똑 마치 어느 교직원실에 들어오는 인민학교 학생같아서 몸둘바를 몰라하며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놀랐습니다. 그가 내놓은것은 바로 1 갯을 다시 살릴 대책안이었습니다.

(흠... 갯을 다시 살린다... 골짜기물은 에돌아가게 하고... 물질들은 창으로 찌르듯이 찌르고...)

나는 놀라운 마음으로 그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나는 그때 그것을 보고 놀라기는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그때 현장경험이 없는 그를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사실 나는 이때 어느 책에선가 그가 제기한 그 기술적내용에 대하여 한번 읽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동무는 내가 구태여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 짐작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란 비유해 말한다면 마치 전쟁마당에서 목표를 원거리포로 또는 근거리포로 기관총으로 각이한 거리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모조리 소멸해버리듯이 이 땅속에 있는 그 모든 물주머니들을 모조리 찾아내서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멀리서 또는 바싹 접근해서 그속에 있는 물을 몽땅 뽑아치우겠다는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동무도 알겠지만 이 문제란 성공이 아니면 사고였습니다. 기술적담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우리 주위에서 그 누구도 이것을 직접 해본 사람이 없고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데도 바로 원인이 있었습니다.

리론은 명백한데 누가 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나의 앞에 선 대학을 이자 방금 졸업한 박기찬동무였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나 책우에 썬여있는 리론에 불과하오. ... 종이우에 그리긴 쉬운거요.>

나는 그가 미처 말하기 바쁘게 우리 기술과에서 작성한 실태보고서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는 력점을 찍어 말했습니다.

<이걸 모함이라고 했소.>

그러자 갑자기 박기사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 이걸 모함이 아닙니다.>

그는 흥분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건 모함이 아닙니다. 이걸 모함이라고 회피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난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탄부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그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성이 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는가 보십시오. 똑 마치 시인들처럼 말한단말입니다.

나는 원래 통통 감상적인 소리나 잘 췌치는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무는 그래 물주머니의 물빼기작업이 어느 대학의 실험대우에서 실험을 하는것과 같은줄 아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터져나와 채탄장이 허물어지면 사고라는걸 모르고있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안되오.>

나는 책상을 탕 내리쳤습니다.

<탄광이란 대학실습장이 아니요. 여기서는 사소한 오류나 부주의로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소. 나는 당과 국가 앞에 모든것을 책임지고있소.>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그 순간 이런 말을 신경질적으로 씹어뱉듯이 내뱉으면서도 그를 다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더라말입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나의 앞에 굳어진듯 서있는 그가 한달전에 나에게 처음 인사하러 왔던 그 기사이자 또 그 기사가 아니라는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는 불에 살이 보들보들하고 처너처럼 수집어하며 자꾸 머리를 숙이던 애절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는 눈확이 움푹 패이고 불이 훌쩍하고 입술이 말라터진 몰라보게 수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의 눈을 쏘아보는것같았습니다.

순간,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그가 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참을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며 방도를 탐구했다는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만 뜨거운것이 왈칵 치밀어올라 그를 꼭 그러안고싶었습니다.

동지애란 어떤데서 나오는것입니까?

우리 탄부의 동지애란 어떤데서 나오는것입니까? 그러나 나는 애써 자신을 진정했습니다.

<물론 동무의 심정을 나도 알만하오. 그런데 이 책을 쓴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나는(탄광에서의 출수방지대책)이라는 책을 쳐들었습니다- 이번에 왔다가 연구해보자고 하면서 그대로 돌아갔소. 이젠... 물론 참작할 문제이지만 우리로서는 그 누구도...>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기사장동지... 그러면 갱을 영원히 물속에 잠겨두어야 합니까?>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는 불이 켜켜이 이는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누가 합니까?> 나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오래도록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하는가? 심중한 물음이었습니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이 며칠전의 일들이 다시금 세차게 뇌리를 때리며 떠올랐습니다. 누가 하는가? 나는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어쩐지 나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나는 나자신을 두고 어떻게나 환멸을 느끼게 되든지 화가 머리꼭두까지 치밀어올랐습니다.

<웁소... 다 웁소... 모든것이 다 웁소. 그런데 생각해보오. 털어놓고 말해서 내가 동무를 어떻게 믿겠소? 내가 동무를 어떻게 믿겠느냐말이요?>

나는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너무도 심대한 정신적타격을 받고 신경을 날카롭게 세울대로 세우고 며칠동안 눈 한번 붙이지 못하다니 정신이 흐릿해지며 온몸이 땅속으로 찾아드는것만 같았습니다. 귀에서도 웅웅 소리가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기사장동지!>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가 나의 앞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부르더니 가까스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힘을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는 더 말을 못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황황 불타는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무엇인가 움켜쥐고있다가 나의 책상 위에 천천히 내놓는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의문이 가득 실린 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기사동무! 그것이 무엇이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사자격증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그 무엇인가 나의 머리를 후려갈기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서있었습니다. 기사동무는 아마 그때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다는 모를것입니다.

기사자격증! 새파란 뚜껑을 씌운 아직 등사잉크 냄새가 그대로 풍길듯한 새 기사자격증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기사자격증을 마치 처음보는 신기한 물건처럼 명칭히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대학에서 주체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을 현지도하실 때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주체공업의 장래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당의 기대가 크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흐려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사장동지! 기사는 자기 부문의 기술을 담보해야 합니다. 생산도 그리고 탄부들의 로동조건까지도 기술적으로 당앞에 담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

사입니다.

기사장동지! 탄막장은 유압동발로 되어있기때문에 산이 내려앉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질이 터지면 채탄장에 물은 찰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빼기를 하면서 석탄을 계속 캐낼수 있는가 하는것을 확인하는것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치미는것을 심장으로 느끼었습니다.

나에게도 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나의 집에 있는 트렁크밑에 깊숙이 그 어느 구석엔가 들어있을 기사자격증, 이제는 종이 쓸었을 기사자격증, 기사동무는 자기의 기사자격증을 들고 그것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며 그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낱알이 돌이켜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했는가. 당의 배려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몇몇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권리를 가지고있습니까? 숨을 죽이고있는 그 순간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대학을 졸업한후 10년이라는 나날속에 기사로서의 나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보신주의, 내가 기사인가, 높은 정치적자각이 없는 기사, 과연 내가...

나는 어쩐지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기사, 우리 대학을 졸업한 기사)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의 온몸에서는 억제할수 없는 비상이 큰힘이 솟구쳐올랐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다! 우리 당의 교육, 우리의 주체교육을 받고 우리 대학을 졸업한 기사, 내가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라!

...나는 지금도 내가 그때 어느새 어떻게 일어나 전화기를 틀어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비서동지에게 나의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새 결심을 숨가쁘게 더듬거리며 이야기했는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비서동지와 전화가 끝나자 나는 교환수에게 고향을 치다싶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 탄광에 알려시오! 그렇소, 전 탄광에 알려시오. 뭐라구? 그렇게 할수 없다구? 좋소. 그럼 지령대에 대오. 지령대요? 나 기사장이요. 래일부터 당장, 그렇소. 래일부터 당장. 물질터진 1갱의 물을 푸기 시작할것, 뭐라구? 우리의 힘으로 하는가구? 그렇소 우리의 힘으로 하오. 우리만이 할수있소. 그리고 이제 곧 전 탄광의 기사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나의 방으로 모이게 하시오. 지체함이 없이 탄광참모부로!>

전화기를 놓고 머리를 쳐드니 날이 밝고있었습니다. 래일이라고 한 날이 실상은 오늘이였습니다. 이날이 바로 우리 탄광의 력사에 기록된 그날입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는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외면했습니다.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번쩍이고있었습니다. 나는 까딱하지 않고 굳어진듯 그 자리에 서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의 손에는 어느덧 그 기사자격증이 꼭 쥐여져있었습니다. 그후에 ...》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기사장의 응답에 이어 검은 탄부제복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들어서자 거수경례를 하며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그의 목깃에는 네알의 별이 박힌 령장이 빛났다.

기사장의 소개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다가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빙그레 웃음을 띠우고 우리들을 지켜보고있던 기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갑겠습니다. 그후의 이야기는 이 박기사동무에게서 듣도록 하십시오. 나는 갯에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기사장이 나간후 반가움으로 빛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설레었다. 대학시절에 보았던 인상적인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속깊이 간직한 박기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주체공업의 장래를 가슴에 안은 미더운 그가 웃음을 짓고있는 것이다.

그의 가슴에는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뛰고있다. 때문에 그는 기존기술이나 상식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온갖 곤난앞에도 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는 기적을 창조해냈다. 박기사가 지닌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면 못해낼일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바치는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자력경쟁,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한다면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만은 할수 있는것이다.

어느덧 나에게에는 강밑에 묻혀있는 무진장한 석탄을 모조리 캐낼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안겨오는 것이였다.

주라격방향의 척후병들

홍현양

봄빛이 짙어가는 땅우에는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자마자 그 연약한 끝으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있는것 같다.

봄비가 내려 길은 질퍽했으나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상쾌한 맛을 한결 더 돋구어주는 계절이다.

우리는 즐거운 걸음을 옮겨가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가 창조된 안주종합탄광을 찾아 취재의 길에 올랐다.

일년전에 와보았었지만 봄기운이 완연한 탄광지구는 몰라보게 변모되어있었다.

생활은 새 계절을 맞아 더 거세찬 숨결을 안고 들끓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채취공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탄광, 광산들을 더욱 개건확장하고 그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에서 채취공업의 선차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부풀어오르는 가슴에 다시 되새기며 종합탄광의 첫 어구길에 들어서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건설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부채를 들어올리는 기중기들,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 모든것들이 그 어떤 변화한 대도시의 한 구역에 들어서는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평양의 락원거리가 그대로 여기에 옮겨왔는듯싶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이미 친숙해진 태향탄광 청년갱 굴진 5소대 전투원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대탄부도시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이처럼 사람들을 경탄시키며 일어서고 있는가 하는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곳 안주종합탄광에만 하여도 여러차례의 현지지도와 강령적인 교시들을 주시였으며 지하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을 위하여 이처럼 현대적인 다층주택들을 지어주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또한 통근버스와 통근렬차까지 놓아주시고 각종 채취설비들을 이곳에 보내주시였다.

우리가 청년갱 막장휴계실에서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탄부들에게서 듣고있을 때 갱분초급 당비서동무는 마구리로 들어가보자고 하였다.

우리는 굴진 5소대동무들이 일을 하고있는 마구리로 향하였다.

얼마전에 이 갱에 왔을 때 여기에는 지금의 이 굴길이 없었다. 땅우에서는 속도전의 기세로 사랑의 대도시가 일떠서고 수백수천척 지하막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석탄혁명의 불길을 안고 새 굴길, 새 탄밭들이 생겨나고있었다.

우리가 굴진마구리에 들어섰을 때는 첫번교대가 끝나고 다음 초소교대동무들이 전투에 들어서고있었다. 그들이 작업지시를 받고 들어서자마자 마치고병들이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전투입무를 수행하듯이 벌써 천공기소리가 울리고 버력이 처치되고 동발이 세워지고있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도 역시 그전의 작업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업방법이 여기에 옮겨졌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저 동무들은 모두가 제대군인들입니다. 온지 이제 몇달 되지 않지요.》

분초급당비서동무의 대견해하는 말이였다.

우리는 편속적재기결에서 세포비서인 류수빈동무를 만났다.

어깨가 짙 벌어지고 어딘가 군인다운 체취가 풍기는 청년이였다.

《수고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사에 류수빈동무는 답례를 하면서 지금 하고있는 작업정형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작업이 남포구멍뚫기와 버력처치작업입니다. 이 동무들이 바로 제 2차 7개년계획 주라격방향의 척후병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매일 평균 3배이상의 능률을 내고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보니 그들은 모두가 30대미만의 젊은 청년들이였다.

(주라격방향-청년들이 열어가는 돌파구!)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의 눈시울은 뜨거워왔다.

천공기를 밀어가는 그들의 작업모습을 보면서 이 지하천길 막장에서 말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바쳐가는 영웅적탄부들의 후더운 숨결을 가슴뜨겁게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지금 소대장동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 정대를 실험해보러 갔을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소대장을 만나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휴계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차들이 탄차를 끌고 나오고있었다.

잠간 길을 비켜섰다가 발걸음을 다시 떼놓으려고 할 때였다.

《지금 우리가 걸고있는 이 굴길이 5 소대동무들이 1 계단전투때 돌파한 411.5 메터구간입니다.》

우리는 당비서동무의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굴길을 무심히 지나수가 없었다.

쇠동발을 하나 둘 세우면서 한치두치 뚫고나갔을 이 물길은 수십갈래의 다른 굴길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구리에서 휴계실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가 창조된 영광의 굴길인것이다.

하나의 동발, 하나의 전투소보, 한편의 벽시도 무심히 보고 스칠수 없다.

이 모든것은 새 질서, 새 기준, 새 혁명적관념을 세우면서 걸어나간 굴진 5 소대동무들의 발자취이며 숨결인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 막장휴계실 가까이에 왔을 때 시를 읊는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갱분초급당비서는 전교대동무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고있는 모양이라고 하면서 어서 들어가보자고 하였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면 분위기를 깨놓을것 같으니 잠간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수천척 지하막장의 온갖 들끓던 소음들도 탄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듯 고요한 분위기속에 잠겨버렸다.

.....

청춘은 좋더라

봄날의 푸른 싹

암벽이 두려우라

석수가 겁나라

태양을 떠나 살수 없는

푸른 싹의 숨결

바위도 뚫고 솟는

용맹을 지녔도다

조선의 청춘!

시랑송이 끝나자 그 누군가가 말을 하였다.

《먼저번보다 형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좀 더 작업하면...》

이때 우리가 휴계실로 들어섰다.

《시가 참 좋은것 같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선동원인 원형태동무가 썼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작가동무들이 쓴것을...》

원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탄가루가 묻은 종이장들을 급히 걷어모았다. 여기에서 시인들이 탄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창작을 하고있었다.

시의 감정조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딱히 알수가 없으나 한발 늦어 그 내용을 다 볼수 없는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랐다.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푸른 싹〉이라고 했으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푸른 싹〉... 그러니까 청춘이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있겠구만요?》

《우리들은 제대군인들이고 여기 탄광에 온지 얼마 안되니까 주타격방향에 뿌리를 내린 새싹에 불과하지요. 경험은 어리나 충성심은 저 하늘끝에 닿아있습니다.》

서글서글한 그 성미가 마음에 들었다.

랑만으로 가득찬 이 일터에서 무슨 기적인들 창조되지 않을수 있으랴.

태양이 주는 해빛을 떠나서는 봄날의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세찬 힘을 안을수 없다.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기때문에 제 2 차 7 개년계획수행의 주타격방향에 삶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우고 척후병의 위치에서 석탄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구고있는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주고받고있을 때 소대장 김호경동무가 정대들을 멘채로 휴계실에 나타났다.

《소대장동무 만나기가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이 말에 소대장동무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오는게 이렇게 되었다고 미안해하는것이였다.

구리빛 얼굴에 술많은 눈섭은 마치도 그의 강의한 의지와 성격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올해 29 살, 제대되어 기양이나 대안의 기계공장에 가서 일하게 배치받았으나 용역 힘든 채취공업 부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탄광으로 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좀 말해줄수있을가요?》

우리가 이렇게 묻자 결단성이 엿보이는 두눈에 웃음을 담으면서 김호경소대장은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는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채취공업이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주타격방향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주타격방향에서 한번 일해보고싶더군요. 그런데 여기 종합탄광에 와보니가 청년갱이란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리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말인가!

청년갱-이 말을 청춘들을 힘든 부문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로 그는 피끓는 심장에 스스로 받아안지 않았는가.

어제날의 인민군특무장이었던 오늘의 굴진소대장 김호경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바쳐가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굴진막장에 옮겨놓을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

같이 제대되어온 류수빈, 리재권, 김덕수, 리계훈, 원형태동무들을 중심으로 제대군인 굴진소대를 조직해줄것을 종합탄광당위원회에 제기하여 이를 실현하였다.

김호경동무를 비롯한 이들 제대군인동무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진 휴가도 놀지 않고 바치겠다고 당 조직에 제기하여 애를 태웠다고 한다.

군대복무의 나날을 보낸 그들에게 조국은 며칠간 휴식하고 새 일터에 자리잡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마저 자기들의 첫로동일로 바친 그들의 애국적소행을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뜨겁게 회고하며 말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탄광에서는 새로운 기적들이 매일과 같이 창조되어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었다.

김호경동무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아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동무들은 갓 배치되어온 자기들을 가리켜 새싹이라고 하지만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는 그들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태향탄광 태향갱의 안익굴진소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석탄혁명의 불길을 안고 새로운 《안주속도》창조의 봉화를 들었다.

(그들은 기계굴진으로 600미터를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우리는 단마구리에서 발파굴진으로 300미터, 400미터, 아니 그 이상의 목표를 왜 할수 없단 말인가.)

김호경소대장은 자기들에게도 고속도굴진의 목표를 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때가 어느때쯤 되는가고 우리는 물었다.

《그것이 아마 금년 1월중순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안익소대의 소식을 듣고 청년들도 한번 해보자고 들고일어났습니다. 저마다 하루 굴진목표를 세워가지고 제기해왔습니다. 경험은 어리지만 그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작업방법, 종전의 생산기준, 종전의 관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는 과정을 새 질서, 새 기준, 새 혁명적관념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김호경소대장은 이런 대답을 하면서 그때 첫 돌

격전에 들어서던 그날을 돌이켜보듯 피우던 담배연기를 한모금 깊이 들이마시었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의 창조-이것은 단순히 굴뚝은 일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사상정치적준비를 갖추 때만이 이루어질수 있는 석탄혁명의 불길이며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을 안고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의 기세를 가한 우리 인민의 힘찬 발걸음인것이다.

굴진 5 소대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작들을 학습하였으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 사상정치적준비부터 갖추었다.

그리하여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는 공식화된 기존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있는것은 새롭게 변화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갔다.

종전의 굴진속도보다 몇배의 능률을 내자면 우선 작업방법에서 불합리한것을 뜯어고치고 새 질서부터 세워야 하였다.

김호경소대장은 변수에 의한 교대원칙을 세우고 소대내 초소교대마다에 적용하여 한시간의 시간적여유를 얻어낼수 있었다.

작업교대마다 초소장의 구멍이 떨어지면 매 굴진공들이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남포구멍뚫기, 동발세우기, 버력처리작업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한 아주 합리적인 작업방법이였다.

이렇게 첫 돌격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진속도는 그전보다 크게 나아진것이 없었다.

굴진 5 소대동무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모여앉아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집체적으로 토의하였다.

정대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것 같다고 그 누군가가 말하였다.

김호경소대장은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 정대의 길이를 대담하게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한 호경동무는 공무동력직장에 나가 새로운 천공기정대를 만들어 그것을 굴진에 도입하였다.

새 정대를 도입하여 남포구멍뚫기의 심부문제는 그전보다 1.5 배~2 배로 깊이 보장하게 되었으나 발파한후 보면 속이 몽땅 빠지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다.

이 불합리한 점을 풀기 위하여 그들은 또 새 발파법을 창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속빼기발파방법이 이렇게 되어 나오게 된것이 다.

국가로부터 받은 굴진책임량보다 몇백메터나 더

나아갈것을 목표로 세운 김호경소대전투원들에게 있어서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발파를 해결하면 운반이 걸리고 운반을 해결하면 동발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였다.

한걸음 두걸음 암벽을 뚫고 돌진하는 길에 막아서는 온갖 시련과 난관들을 헤치면서 련속천공, 련속발파, 련속동발로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성공하였으며 련속적재콘베아도 창의고안할수 있었다.

한덩이의 석탄도 길바닥에 흘릴수 없는것처럼 막장에 흐르는 1분 1초도 그들은 그저 지내보낼수가 없었다.

막장에서 공무동력직장까지는 멀었다.

정대 하나를 갈아쓰자고 하여도 거기까지 나갔다가 다시 마구리로 들어와야 했다.

(한치를 내밀자고 해도 번개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것을 도중에 흘려보낼수 있단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 김호경소대장은 동무들과 토의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막장에서 쓸수 있는 새형의 련마기를 만들어냈으며 정대를 전투현장에서 갈아쓸수 있게 하였다.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불합리한것은 뜯어고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한 이야기는 이뿐이 아니였다.

수천여메터의 선 유희자재를 찾아내여 매 갱, 매 마구리마다 지령전화를 놓았으며 방송시설들을 끌어들이고 불비한 전기선들을 고치였다.

그리하여 전투원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작업현장에서 막장의 실태를 지령대에 알려줄수 있게 되었고 또 동발을 비롯한 필요한 자재들을 요구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대장동무도 그 전화로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지하막장 그 어디에 있거나 갱밖에 나가 있어도 다 찾을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전만 하여도 소대장동무가 어디에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타났을가 하던 의문이 쉽게 풀릴수 있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랄게 있습니까. 여기 작가동무들도 앉아있지만 같은 전투원으로서 우리를 밀어주느라 수고했습니다.》

안주총합탄광에 나와있는 시인들도 이 기간 수많은 벽시와 격문, 선동문들을 써서 탄부들앞에서 랑송하여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주었다.

《싸우는 5 소대전투원들에게》, 《돌격대원》,

《발파공동무에게》 등을 비롯한 수많은 벽시와 격문들이 갱입구로부터 인차장, 막장휴게실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나붙어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이러한 혁명적시문학의 글발들은 작가들이 새로운 《안주속도》를 창조하는 탄부들속에서 생활한 그자체가 바로 마를줄 모르는 창작의 샘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청년갱 막장휴게실에서 굴진 5 소대 소대장과 시간이 가는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대에서 돌아온지 몇달도 안되는 기간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여놓았는가.

자기들을 가리켜 주타격방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새싹이라고 하지만 벌써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푸른 숲으로 자라올랐다.

발파굴진으로 돌파한 411.5 메터- 이것은 푸른 싹이 자라올라 피워올린 아름다운 꽃송이들에 맺힌 무르익은 창조의 열매인것이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것이 아닌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 운명의 모든것을 맡기고 영생불멸의 주체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사상이 낳는 힘에는 한계점이 있을수 없다.

자기들이 설정한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해 암벽을 뚫는 정대의 끝에서 끝없이 일어번지는 불꽃은 수령님께 충성을 바쳐가는 청년탄부들의 심장이 쉬임없이 지펴나아가는 석탄혁명의 불길인것이다.

주체사상을 해빛으로 받아안은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심장에서 타오르는 혁명적열정이 뚫지 못할 암벽이란 있을수 없으며 넘지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

그리하여 한 탄부는 자기 시의 제목을 《푸른 싹》이라고 즐겨 달았던 모양이다.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석탄혁명의 불길을 안고 주타격방향의 척후병들인 청년굴진공들이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걸어온 자력갱생의 걸음, 자력갱생의 일본새가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로 창조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갱 굴진 5 소대 전투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방조밑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내달려 종전에 비하여 굴진량은 4.1 배나 높ی 끌어올리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우리들이 그들과 헤어져 갱밖으로 나올 때 등뒤에서는 새 발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그것은 마치나 더 높은 목표로 돌진해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소리인양 우리들의 가슴속에 끝없이 메아리쳐왔다.

생활과 시인의 눈

리동후

석탄에 불을 지펴 보이라의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서 전기가 되게 한다는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문제이다. 밥을 짓고 살림집을 덥히고 기판차를 달리게 하는것도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보는 석탄이 있기때문이다.

지하천척 막장에서 탄부들은 이 귀중한 석탄을 캐어 들끓는 생활을 창조하는 불길로 안겨주고있다.

나는 안주종합탄광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작가들이 어떤 창작가적인 자세와 활동으로 현실을 체험하는것이 좋은가 하는 몇가지 경험을 찾아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평양에만 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을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생활과 투쟁은 공장에 가야 볼수 있으며 농촌에 가야 체험할수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 몇명이 탄광에 나가있는 기간에 이곳 탄광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시는 제 2 차 7 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벽찬 투쟁을 벌려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를 발기하고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다.

이 벽찬 현실에 뛰여든 우리 작가들은 갯에 들어가 석탄생산을 다그치는 탄부들의 투쟁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종합탄광합숙의 한 방에 들어앉아서 시를 써가지고 갯을 돌아다니며 입갱하는 탄부들앞에서 시랑송을 진행하였다.

또 우리가 쓴 작품을 벽보들과 전투속보신문을 통하여 내보내곤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몇차례 진행하였으나 우리가 쓴 작품은 탄부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가슴을 격동시키고 흥분시키지 못하였다.

경험은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로동현장의 변두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기적적인 성과와 공정자료들을 얻어가지고 글을 써서는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이렇게 사람들이나 만나서 취제한것을 밀천으로 글을 쓰던 낡은 방법을 더는 지속할수 없다는것을 느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마음은 안타깝고 복잡하였다.

생활속에 들어와있지만 시인의 눈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통절히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막장에 들어가보면 석탄이 콘베아에 강물처럼 실려흐르고 탄부들은 회열에 넘쳐 일하고있는것을 보았는데 왜 쓴 작품은 로동하는 인간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하고있겠는가.

생산공정은 현상적으로 목격하였지만 탄부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끓고있는가 하는것은 보지 못하고있었다.

석탄을 레사롭게 보아온것처럼 탄부들의 생활도 그렇게 대하였던것이다.

시인의 눈은 생활을 보고 탐구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심적인 움직임을 자기의 몸으로 감촉할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게 포착할줄 알아야 한다.

어느날 나는 굴진마구리에 들어가 탄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버럭속에 석탄이 많이 섞여나가는것을 보았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창조로 들끓는 탄전! 솟아오르는 석탄산... 버럭은 버럭대로 처치되고있다. 어디 가나 혼란것이 석탄인 여기에서 누가 버럭속에 묻혀버리는 한두덩이의 석탄을 두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런데 굴진공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곧바로 집에 가는것이 아니라 버럭더미에서 석탄을 골라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는것이였다. 탄부들은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버려진 탄을 모아놓으며 그것을 《충성의 애국탄》이라고 부르는것이였다.

석탄을 받아쓰면서 미처 생각할수 없는 그런 현상이였다. 탄부들은 검은 금을 캐어보내는것으로

자기의 일을 끝낼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여온 나였다.

탄광에서 생활체험을 하면서도 그렇게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탄부들은 자기들이 버린 돌과 흙속에서 석탄덩이들을 찾아내고있지 않는가.

그 손길, 그 마음속에 타고르고있는 충성의 불길을 시인의 눈으로 보게 된것은 마치나 물방울에 비친 해빛이 무지개빛으로 반사되는것을 포착하는 때의 심정과 같았다.

탄부가 버려진 돌무지속에서 자기의 창조물을 찾아낼줄 아는 눈을 가지고있는것처럼 시인은 늘 만나고 헤어지는 탄부들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숨결을 찾아낼줄 아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생활속에서의 시인의 눈은 곧 창조자의 눈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경험은 말해주고있다.

사무실의 책상머리에나 앉아있었다면 새로운 《안주속도》를 창조하는 탄부들의 심정에 자리잡고있는 이런 구체적인 감정세계를 다는 알수 없었을것이다.

다른 시인들과 함께 나는 《안주속도》창조자들인 탄부들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하여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렸다.

우리는 정치선동사업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생산을 책임진 탄부의 립장에 선 창작가였다는것을 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채취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와 현지교시를 로동계급에게 해설선전하며 수령님의 교시관철으로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정치선동과 경제선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갱장을 비롯한 초급지휘성원들을 모두다 선동원으로 활동하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생산자들을 고무할 때 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이 일어나고 창작가로서의 산 체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수 있었다.

즉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

산주의적덕성을 내용으로 한 선동, 탄부들의 생활을 반영한 벽시들과 격문을 통한 선동, 기동선전대 활동을 통한 선동, 방송과 직판물을 통한 선동으로 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을 고무하였을뿐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산을 두고 안타까와하고 뛰게도 되었다.

태향탄광 태향갱 굴진 6 소대 전투원들이 단마구리에서 기계굴진으로 606 메터를 돌파하여 새로운 천리마속도, 《안주속도》를 창조하였을 때 온 탄광마을은 명절처럼 흥성이었다.

안익소대장이 전 소대를 정렬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려줄것을 지배인에게 제기할 때 그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있었다.

이 모임에 참가하였던 가두너맹원들은 물론 축하의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들고나왔던 어린 학생들도 모두 함께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인들인 우리의 두눈에도 이슬이 맺히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탄부가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시인들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 이처럼 한순간에 함께 흘려본적은 아마 드물것이다.

탄부이자 시인이었던것이다.

말못할 이런 산 체험은 시인들이 당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작품들을 현지에서 창작하는 과정이 곧 탄부들이 《안주속도》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기때문에 얻어진것이다.

나는 안주종합탄광에 나가 생활하면서 느낀 몇가지 문제를 생각나는대로 적었을뿐이다.

생활에서 레사로이 스치고 넘길수 있는 그속에서도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볼줄 아는것이 바로 시인의 눈이라고 나는 끝으로 말하고싶다.

-안주종합탄광에서-

불길

김우협

열풍이 몰아치는 한낮에도
강피들이 들어찬 한밤에도
불을 머금은 구름발이
철탑들에 휘말려 날아오른다

머리 들면 하늘도 붉고
굽어보면 땅도 붉은
환희로운 이 땅, 이 하늘에 터친
장쾌한 첫 출선의 기쁨을 노래하며
용광로여,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늘 가득 뿔어올린 저 불길은
새 7개년의 령마루에 비껴갈 혁명의 불길
소원이면 그 빛 그 열도로
산악도 통채로 녹여
조국의 억만재부를 늘여갈 신념의 불길

생각하면 천리수해에 묻힌
한점 백두의 병기창
백만의 총검을 대적하기엔
너무도 없는것이 많았던 그 세월의 한끝에서
시작되어
이 나라의 령명을 부르며
불길은 흘러 여기로 왔다

타다남은 로반엔 아린 재물이
우리의 가슴엔 불같은 눈물이
함께 얼어붙던 그 준엄한 세월을 넘어
자립의 터전을 닦으며
불길을 추켜들고 조선은 오늘에 왔다

하늘 나는 천리마
위대한 속도전의 열풍속에
거창한 창조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며
불길을 추켜들고 혁명은 오늘에 왔다

아, 우리의 힘
우리의 신념으로 지펴올린 불길!
위대한 수령님 안겨주신
이 신념의 불길로
우리는 겹치는 시련의 해들을
영광의 년대들로 바꾸지 않았던가

환희여, 기쁨이여, 혁명의 노래여
온 나라, 온 인민이 펼쳐나서
재무지를 헤치고 락원의 초석을 다지던 그때처럼
혁명의 북을 치며

또다시 인민은 일어서고
조국은 비약의 나래를 폈거니

아픔도, 고난도
다 씹어삼키며
오직 하나 제 힘을 믿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이
우리의 삶과 투쟁의 법칙임을 알았기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이며 신념이며
혁명하는 기본자세임을 심장으로 느꼈기에

심장에 이 신념의 불길이 일어
용광로의 불길은 저리도 세찬것이 아닌가
천으로 만으로
심장에 이 신념의 불길이 일어
조선혁명의 불길은 세차게 타번지는것이 아닌가

아, 불길이 타오른다
혁명의 불이 흐른다
당의 결심 당의 숨결로 후더운 심장들
자력갱생의 불구름을 날리며 간다
우리는 이렇게 간다
혁명의 봉우리들을 넘어 조선은 이렇게 간다

황홀하다 저 화광속에 나래치는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글발
꽃으로 피여 노래로 울려
우리 인민이 것처럼 바라고바라던 공산주의
그날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 바라보리라

아, 7년!
또 7년!
위대한 수령님 진두에 서계시기에
준엄한 혁명의 폭풍속을
우리 인민은 이렇게 궁지높이 걸어간다
주체의 조선은 혁명의 대고조를 노래하며
도도히 굽이쳐간다

그 어떤 시련이 다시 앞에 있다 해도
이 불길, 자력갱생의 이 불길을 추켜들고
새 7개년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우리는 누리를 밝히리니

용광로여, 너와 함께
이 불길을 지켜, 이 불길을 이끌어
인민은 한마음. 조선의 본때를 펼치리라

좋은 봄날에

변홍영

좋은 봄이로구나
푸른 벌 저 멀리
기계를 몰아가는 농장처녀의
기쁨에 취한 노래런가
해살이 쏟아지는 구름새에선
해종일 종달새도 울어예네

수령님 보내주신 모내는 기계들이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첫모를 내던 그 논배미는
어느새 푸른 벌 푸른 하늘가에 어우러졌느냐

안아보는 모든것
흥에 겨운 노래로구나
실하게 키운 모를 실은 소형트랙터들이
버들숲 우거진 동쪽길로 달려옴도
벌을 누벼가는 기계우에
빨간 수건이 타는듯 아지랑이속에 나뭇길도

훈향에 찬 봄바람은
나의 귀전에 끝없는 기쁨을 속살거린다
이 좋은 봄날을 안은 내 마음
어이 이토록 뜨거운 눈물에 젖어오는가

아, 농촌기계화의 구상을 펼치시며
봄이면 눈석이에 젖으시고
여름이면 굶은비에 젖으시고
늦가을 찬이슬도, 한겨울 함박눈도

들길에서 맞으시며 걸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다시 뵈옵는듯싶어라

기쁘시여
모내는 기계 시운전을 보아주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웃으시던 그 벌은
예가 아니더냐
우리 수령님
조국의 들길에서 맞고 보내신 해와 달이
이 봄날의 기쁨으로 설레이거늘

그토록 힘겹던 모내기철마저
흥에 겨운 기계우에 실어주셨으니
이제는 농사일을 모두 기계한테 맡겼으니
이 좋은 봄날엔
우리 수령님
평생에 깊으신 로고를 푸시였으면...

아, 하늘도 땅도 이 가슴도
수령님 우리려 목메이는
노래의 봄이로구나
봄날의 기쁨
가슴에 가득한 이 고마움
알알이 황금나락으로 익혀
침으로 좋은 가을날에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픈 그 소원만이
마음속에 망울지는 봄이로구나!

씨레질하기 나는 좋아

김경기

씨레질한 논배미로
깊오래기 하나 들고
살짝 흙을 굴린 저 청제비
물결을 스쳐간다

종구나, 포차를 들던 손에
뜨락뜨로운전대를 잡고
어리리벌 태생인 병사-
나는 흥이 나 씨레질하네

이슬에 젖어 전호가에 얹던 그 밤
몽클, 못견디게 뽕겨오던 흙냄새
이 세상에 병사만이 심장으로 새겨들을
흙의 어리광, 땅의 귀속말을
내 지금 취해듣네

아무렴 씨레야
어데가 아직 높고 어데가 아직 깊니
어느 논배미 그 어느 구석에
주인된 내 손길 미치지 못했니

구슬같은 내 땀 방울방울
마음껏 흘리는게 얼마나 좋은가

이 흙은 씨레로 어루만지니
어리리벌 농사군의 아들인줄 알고
땅두야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지는구나

어서 돌자 씨레야 내 로동의 손아
이 사랑 송두리채 땅에 쏟아붓지 못하고야
온몸의 증오 원쑤에게 퍼부을수 있으랴
땀으로 한줌 흙을 걸굴줄 알아야
싸움의 날 한치 땅도 피로써 지켜내지

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국애의 큰 심장 키워만 가는
농장의 이 봄날

씨레질하기란 얼마나 좋아
저봐라 얼마전 펼쳐놓은 흙비단우에
농장의 처녀들 기계손으로
수호자의 이 행복을 가득 수놓네

날마다 울리는 기적소리

리영백

날에날마다

정해진 시각에 울리는

기적소리

날에날마다

정해진 궤도우에 울리는

기적소리

허나 너를 울릴 때면

가슴 가득 차오르는 뜨거운 숨결을

기적소리여, 너와 함께 터진다

보람으로 끝없는 삶의 궤도를

쿵쿵 울리는 차판마다

조국의 당부가 무거울수록 좋아...

달리는 차창너머 흐뭇이 바라보니

산들도 우줄우줄 따라서고

지나온 나날들이 따라서는가

해를 이고 달을 이고 올려온 기적소리

저 높은 창문마다 노래로 비껴

다시금 나를 반겨맞아주는구나

아버이수령님의 부르심 따라

들끓는 건설장들에 네가 먼저 올려갔기에

일떠선 용광로들이 거세게 숨쉬고

세월을 누벼 내가 앞서 달려왔기에

은빛 고압선들이 산밭을 넘고

학교의 꽃대문들이 활짝 열리지 않았느냐

반갑다!

오늘도 차단봉 내린 건늬길에서

정답게 손저어주는 아이들...

유치원시절부터 낮익힌 얼굴들이건만

붉은넥타이 펄펄, 입단의 기쁨

하루사이에 몰라보게 자란것 같구나

기적소리여, 수송혁명의 폭풍을 일구며

너와 함께 오고가는 이 길에

날마다 첩탐은 솟고 들판은 무르익어

서해선 굽이굽이 동해선 굽이굽이

너를 올려가는 그 어데서나

끓으며 솟아나는 생활의 노래를 듣거니

기적소리여, 너는 날마다

정해진 시각, 정해진 궤도우에 올려도

너는 날마다 조국의 새 모습을 낳고있구나!

바다우의 유치원

안병모

물위에 뜬 배를 타고있음을
내사 깜빡 잊을번했노라
남의 땅, 남의 거리에서 비바람 맞으며
머리엔 어언간 서리가 내렸는데

빙빙 도는 비행기에 어서 오르자고
손잡아 이끄누나
미끄럼대에 그네에 오르자고
발을 동동 구르며 즐라대누나
우리의 손자와 손녀 아이들...

어허-
아이들에 이끌리어
어느덧 마음은 어린애 되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어리광을 부리노라
눈물속에 흘리간 유년시절을 되찾은듯

말끔히 닦은 창너머
넘실대는 파란 바다가 보여왔기에
배우에, 바다우에 내 섰음을 되느끼며
자꾸만 깊어가는 생각이여

땅우에서도 흔치 않은
더더구나 이국땅에선 볼수 없던
드넓은 배우의 유치원,
웃음소리, 노래소리 랑랑히 흐르는
홍겨운 사회주의조국 한 거리가 예 옮겨진듯
《만경봉》호의 사랑의 유치원

하루밤, 하루낮이면

조국에 가닿을 배길이면만
그 짧은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
활짝 핀 날개에 가는 주름이라도 생길세라
바다보다 깊은 심려 여기에 닿아
배우에 넓은 유치원을 앓했거니-

오, 설움에 젖던 배고동소리
지금도 가슴치며 울려오는가
현해탄의 험난한 파도
눈물로 넘어서던 치욕의 그날이여

눅눅한 화물선창에
짐짝처럼 실리어 노예살이 끌려온 우리
애들을 이처럼 더덩실 유치원에 태우고
웃음가득, 노래 가득
오늘은 조국으로 수령님 계시는곳으로 가거니

세상엔 나라도 많아
대양을 오가는 배 헤일수 없어도
우리는 알지 못해라
해외에 살던 아이들의 놀이터를
이처럼 바다우에 넓게 펼쳐준것을...

자식들을 먼곳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잠못드시는 심려
어버이수령님의 환없는 사랑이
기쁨되어 넘치는 여기선
정녕 늙은이도 어린애 되어
시간의 흐름을 잊고 섰노라
눈물만 머금고 서있노라

행복한 밤에

김정춘

하루일 마친 즐거운 이 저녁-
창밖은 흑한의 계절 못별도 얼어떨건만
그대의 집안은 향기로운 봄날이런가
따스한 온수난방- 창가엔 화분에 꽃이 웃고
텔레비존의 화면은 락원의 강산을 노래하고...

행복하다!
그대 안해와 어린것들 정다이 마주 웃는 이 저녁-
웃음을 가득 담은 눈길들이 스쳐가는 사진들에
눈에 뜨이는구나
남녘땅에 두고온 그대 어머니 사진...

30년 세월이 가까와오는
너무나도 오래인 나날이 흘러
그대 행여 순간이나마 잊은적은 없느냐
이 시각-
그대와 함께 행복을 누려야 할
그대 어머니를 두고온 남녘땅
우리의 수난에 찬 절반땅의 그 어둠을

-어머니, 곧 와요!
-애야, 기다리마!
짧은 한마디 작별의 말속에
뜨거운 사연을 남기던 그때
그대는 청춘기의 흥안의 청년
그때의 그 약속을 너무나도 오래인 세월
미루어왔구나.

지금 달덩이같은 아들을 안은
저 안해가 그대의 어머니와 함께 웃는다면
그리워 사진을 보며 불러보던 그대의 아이들이
지금 그대 어머니의 무릎위에 어리광치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불러본다면!

아 얼마나 좋으랴!
흑한의 계절
칼바람 살을 에이는 저 남녘에서
추위와 주림에 시달리며 아들을 그리는 그대

어머니
지금 봄날같이 꽃이, 웃음이 피는
그대의 집- 온수온돌방에 앉아있다면

어머니의 몸을 어루짐작하여
해마다 겨울옷 여름옷...
갖가지 옷도 농에 그득 찻건만-
오, 어느놈이 오랜 세월
우리의 민족을 갈라놓고있느냐

...찬바람은 창문을 들때리며
추위를 몰아오건만
그대의 집안은 향기로운 봄날-
행복하다! 텔레비존의 화면은 락원의 강산을
노래하고
그대의 안해와 어린것을 정다이 마주 웃고...

잊지 말자. 오, 잊지 말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한복판에 함께 있어야 할
그대의 어머니, 우리의 혈육들이
미제와 박정희역적을 맞받아
악형의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있다
기어이 태양의 품에 안길
그 희망찬 래일을 그려
투쟁의 한길우에 펼쳐나서고있다

좋은 집, 더운 방...
무르익는 행복이 웃음으로 떨기지건만
오, 가슴에선 때아닌 서리발이 인다
저 짓밟힌 남녘으로 하여
언제나 우리의 가슴속에선
행복의 노래와 함께 분노의 바람이 회오리치누나

기쁨과 행복이 더해갈수록
가슴에 피끓는 숭고한 자각이여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철학적내용의 깊이

김흥섭

소설문학에 대한 요구성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수준이 올라가는데 따라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주체철학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소설문학에서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심오한 철학성은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하기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우리 시대 주체적문학예술의 중요한 풍격의 하나이다.

철학적인 종자를 잘 가꾸어 뜻이 깊게 생활을 묘사해야만 심원한 사상이 흘러나올수 있다.

인류소설사를 놓고 볼때 우리의 주체적소설문학처럼 그렇게 깊은 철학성을 가지고있는 작품들은 찾아볼수 없다. 우리 소설문학의 혁신적특성과 새로운 면모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소설에 철학성이 심오할 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힘이 강해지며 생활의 진리를 더 깊이 리해시킬수 있게 된다.

소설의 철학성은 어떤 특정한곳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 전반에서 흘러나온다. 종자와 성격형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세부묘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요소들에서 철학성은 나타날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 개성과 소설의 양상, 그리고 작품의 특색에 따라 철학성이 표현되는 대상이 서로 다를수 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은 철학성이 매우 깊은 혁명소설이다. 심오한 철학성, 이것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사상예술적특성의 하나이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의 철학성은 심오한 철학을 담고있는 이 작품의 사상적핵으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혁명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태양이시고 혁명가들은 해바라기이며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혁명가들이 자라고 혁명력량이 장성하며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사상적씨앗을 소설은 깊이 심고 그것을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형상과 형상의 여러수단을 통하여 훌륭히 꽃피우고있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의 철학성은 유

철이의 혁명적세계관의 확립과정과 심리묘사, 뜻깊은 대사, 시대와 생활에 대한 반영 등에서 나타나고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인 유철이의 성격형상은 심오하고 의의깊은 전형이다.

1 편에서 유철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안타까이 기다리며 투쟁의 옳은 로선을 찾기 위하여 모색하고 방황하며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오늘은 백리허로 래일은 또 다른곳으로 투쟁무대를 바꾸면서 탁월한 령도자를 찾아 헤맨다.

2 편에서 유철은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는 최대의 행복을 지닌후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을 한가슴에 안고 충성의 길, 영광의 길을 걷는다.

유철이가 곡절을 겪다가 주체형의 혁명가의 자부심 높이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한길을 걸을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을수있었기때문이다.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을 밝히는것은 1920년대말~19330년대초 우리 나라 혁명투쟁과정을 반영하는 작품창작에서 초미의 문제로 된다. 그것은 이 문제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시대적문제로 나섰기때문이다.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혁명가들이 투쟁방법과 방도를 모르고 방황하게 된것은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게 되면서 시련도 역경도 박차고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을수 있게 되었다는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유철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히고있는데로부터 이 소설의 철학성은 깊이 표현되고있다.

이리하여 유철의 형상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진정한 혁명가로 될수 있고 혁명가의 최대의 행복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된데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주인공 유철이의 성격형상의 철학성은 주로 그의 혁명적세계관의 확립과정의 진지한 묘사와 분석적인 심리묘사, 심오한 대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주인공의 세계관의 확립과정이 주제사상적과제에 맞게 독창적으로 탐구되고있다.

작품에는 벌써 혁명적세계관형성의 준비가 갖추어진 주인공이 혁명투쟁의 길에 나선 때부터 묘사되고있다. 혁명적세계관의 확립과정을 주로 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의 넓은 품속에서만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될수 있고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깊이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다.

소설은 혁명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진 주인공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데로부터 겪게 되는 파란곡절을 심오한 분석적묘사로 생활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서대문형무소문을 나온 주인공은 갈길을 모르며 혁명의 방도를 똑똑히 몰라 모대긴다.

서천호의 방에서 울부짖는 여러 사조의 웨침소리도 그를 만족시킬수 없었고 무모한 백리허의 폭동을 막아나서기는 하였으나 조선이 나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줄수 없었다.

1 편마감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는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고 주체적혁명로선과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게 되며 당당한 혁명가로 자라난다. 다시 백리허로 돌아온 때부터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충성의 길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고상한 품모가 완성, 공고화된다.

소설은 이런 과정을 심오하고 설득력있게 묘사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철학성이 흘러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혁명투쟁에 나서게 되는가, 어떻게 난관을 뚫고 싸워나가는가 하는 혁명가의 내면세계와 고결한 품모를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할수 있지 그저 고난의 행군이나 전투장면 같은것만 지루하게 늘어놓아서는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은 주인공이 세계관형성과정에 겪게 되는 심리를 생활과 밀착시켜 깊이있게 잘 그려내고있다.

백리허에서 폭동준비를 할 때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혁명을 버리고 복수의 막다른 길을 갈수 있는가, 나에게 갈길을 가르쳐주오, 조선이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다오. 하며 웨치는 유철의 긴 심리묘사.

길림감옥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령님을 흠모하는 절절한 내면세계의 묘사,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고 가르치심을 받은 다음 잠들지 못하며 감격과 행복에 잠기는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대오를 조직하시고 적을 치고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책임감과 자책감, 초조감에 사로잡히는 심각한 심리묘사들은 특히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되었으며 유철의 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부각하고 성격의 본질적측면을 깊이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철학성이 강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 소설은 장편이면서도 주인공에게 묘사를 많이 돌리고 주인공의 시점으로 주로 묘사하고 주인공의 심리를 많이 함으로써 그를 주인공답게 두드러지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인간심리를 철학성있게 묘사함으로써 상식적이며 평범한 심리의 해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 소설의 대화에는 그 인물의 생활과 력사가 깃들어있으며 깊은 사색과 개성이 살아있으며 지성이 번뜩이고있다.

특히 유철의 말들은 뜻이 깊으며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생명이 구원된 유철은 리용수에게 간절히 말한다.

《동무는 날 잘 알지 않습니까. 조직의 원칙을 가지고 나를 막지 마십시오. 혁명가가 자기의 정치적 수령을 만나뵈는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필생의 소원입니다. 물론 나는 만나뵈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직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동무. 나도 인간입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뵈고싶은 욕망을 누를길이 없습니다.》, 《내가 근 반평생 길을 찾아 헤매 돌아가다가 오늘에야 제길에 들어섰군요.》

여기에는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에 투쟁에서 반평생동안이나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유철이가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저하는 필생의 소망이 얼마나 절절하게 울리고있는가.

이 작품에는 주인공의 대사뿐만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대사들도 다 뜻이 깊고 생동하게 되어있다.

실례로 서천호의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서 귀가 멍멍하도록 웨치는 각종 사조대표자들의 웨침소리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소설의 대사들은 인물성격과 환경, 의식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깊이가 있으며 분석적이다.

이 작품의 철학성은 등장인물과 그 생활 세부들

에 대한 사실주의적인 분석적묘사와 통쾌하고 논쟁적인 표현, 평론적이고 정론적인 문장조직과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어조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시대의 폭넓은 개괄력과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심오히 일반화하고있는데서도 잘 표현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철에게 주체적혁명으로선과 방도를 가르치시는 장면과 환경전개부분, 5.30 폭동과 추수폭동 등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에 대한 해박하고 심오한 분석적묘사는 말그대로 철학적이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의 묘사의 특성은 하나의 세부라도 그를 회화적으로 방불하게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을 분석 일반화하고 주정토로로 작가의 견해와 평가를 중횡무진하게 주고있는데 있다.

서대문형무소 면회구의 쇠그물에 대한 세부묘사만 봐도 그를 통하여 혁명가들의 수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있다.

《면회구의 쇠그물은 반들반들하였다. 네귀 구석진데는 벌겋게 삭고 녹이 쓸었는데 유난히 가운데부분만 그렇게 새 철사처럼 반짝거리는것이였다. 손가락이나 가가스로 드나들수 있는 그 쇠그물을 부여잡고 두꺼운 담벽으로 갈라져있는 감옥과 사회의 면회가 이루어진다.

무수한 한숨이 그 쇠그물을 녹이고 무수한 손길이 그 쇠그물의 녹을 벗겨냈다.》

인간과 사건, 생활에 대한 예리하고 적중한 정치적 및 미학적 규정은 일반화의 심도를 더욱 깊게 함으로써 철학성을 돋구고있다.

배운종이가 주태화를 1920 년대가 남긴 초라한 사생아라고 한다든지 쌍가매에 대하여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산 직관물과 같았다고 규정하는데서도 그를 잘 알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유철이가 탁월한 령도자를 찾아 헤매는 1 편과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2 편을 선명히 대조시키면서 생활과 혁명의 진리, 생활관과 인생관의 변화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주체의 혁명관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이야기하고있다. 이런 본질의 심도있는 일반화로부터 철학성은 흘러나오고있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혁명은 승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승리할수 있다는 불멸의 진리를 깊이있게 밝혀내고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역할을 사상정서적으로 깊이 감득케 하고있다.

여기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의 철학성이 가지는 거대한 현실적의의가 있으며 현대성의 높이가 있는것이다.

언어형상의 생동성

리병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도 역시 문학을 위한 문학이 되여서는 안되며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문학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통속적이고 알기 쉽고 교양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

소설문학이 인민을 교양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로 되기 위해서는 통속적이고 알기 쉽고 교양적가치가 있어야 한다.

소설문학의 통속성은 주로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는 인민적인 어휘-문장론적표현수단, 수법들에 의하여 실현되며 교양적가치는 언어형상속에 담겨진 사상정서적내용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언어표현의 이러한 높은 요구성을 아주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인민적문풍에 기초하여 끝없이 개화발전한 우리 말, 문화어의 표현성을 최대한

으로 살려줌으로써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묘사하는 경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자애로운 사랑을 뜨겁게 느낄수 있도록 높은 사상정서성을 부여하였다.

《오월의 얼굴은 뜨겁게 솟구쳐올라 흘러내리는 눈물에 흥건히 젖었다.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씻을 념도 못하고 오월은 어느덧 당중앙위원회 청사쪽을 향해 돌아섰다.

...청사 유리창들과 정원등들에서 비쳐나왔을 희뽀한 광망이 룡선우의 허공에 은근하게 비졌다. 그 은근한 빛발을 받은 눈송이들은 희끗거리며 고요히 날아내렸다.

.....

사위는 고요해졌다. 눈덩이를 날리며 달려지나군 하던 빠스도 웬일인지 뜸해지고 이따금 바드득거리던 발자국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록거리는 눈의 속삭임과 소리없이 우는 오월이의 고르롭지 못한

숨소리뿐 하늘도 땅도 정숙한 침묵속에서 오월이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긴듯싶었다. 눈은 하염없이 내린다.

눈, 눈, 그대들은 오월이에게 말하여줄수 없는가?

보통강, 보통강, 그대는 말하여줄수 없는가?》

보는바와 같이 눈내리는 평양의 밤경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평 내리는 눈송이들은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비쳐나오는 빛발을 받아안고 고요히 내리고 이따금 빠득거리던 발자국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양의 정숙한 침묵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온 품속에 안겨 근심걱정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평평 내리는 눈송이들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부각시켜주고있는가. 눈은 해마다 겨울이면 반드시 보게 되는 자연계절현상임으로 하여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담은 사상정서적표현수단으로 작품에서 많이 묘사되어왔다.

지난날 눈을 놓고 작가들은 얼마나 많은 사상정서를 표현했는가. 눈은 지난날 우리 인민의 고달픈 생활과 눈물의 상징이었다. 겨울철은 착취자들에게 모든것을 빼앗긴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따라서 눈송이들은 사람들의 한숨과 비애를 더해주는 표현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눈이 우리 인민의 고달픈 생활을 반영하는 사상정서적표현수단으로 리용되어온것은 우리 인민의 가난한 생활과 계급적처지로부터 생겨난 필연적결과였다.

시대의 변화는 동일한 표현수단에서도 새로운 사상정서를 담을것을 요구한다. 미적감정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함께 변하는 역사적개념인 동시에 계급적생활감정을 반영하는 계급적개념이다.

언제나 행복한 생활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어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평평 내리는 눈송이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것이다. 우리 시대에 와서 눈송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과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행복을 노래하는 사상정서적표현수단으로 리용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정신적체험에 맞게 눈내리는 양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사회주의건설자로 자라난 안오월의 시야에 비껴진 눈송이들은 고요히 날아내렸다. 고요히 내리는 눈의 양상적특성은 우리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고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정서적으로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목매여 흐느끼는 오월이의 시야에 비껴진 눈송이들은 하염없이 내리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의 양상적특성은 오

월이의 행복의 눈물과 결합된 사상정서적표현으로서 등장인물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어휘표현의 높은 사상정서성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우리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생활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반영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언어형상적특성은 대사를 생동하고 뜻이 깊게 쓴데서도 나타났다.

실례로 리상철과 박수진이 갓 제대되어 들뜬 기분으로 사로잡혀 건설장을 떠나려할 때 그들에게 타 이른 탁준범의 말은 얼마나 생동하면서도 절절한 뜻이 담겨있는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소? 어떻게 몇사람때문에 일터가 맘에 들잖을수 있소? 그 벽찬 일터가 싫거든 차라리 놀고먹지? 나는 두팔이성한 동무들처럼 이 벽찬 건설의 시대에 팡팡 일하지 못하는게 분하오!》

이것은 혁명과 건설을 쫓먹는 기분주의와 공명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며 조국전쟁에서 한팔을 잃은 영예군인으로서 사회주의건설장에 뛰어들어 팡팡 일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이다. 탁준범이의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여나아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안일과 해이를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않는 원칙성을 체현하고있음으로 하여 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산 인간의 개성적대사로 되었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재생의 길을 걷는 지식인 문화련의 감격적인 대사들이며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첫삽을 뜨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적이야기들이며 건설장에서 폭탄을 파내는 위험한 순간에 서로 앞을 다투어나선 청년제대군인들의 극적대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줄 아는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높은 정치성을 구현한 대사들에 의하여 보통강의 눈물겨운 역사를 끝장내고 오늘의 웅장한 평양시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충성심이 하나로 통일된 주체시대의 자랑스런 력사가 깊이있게 부각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언어형상적특성은 새세대, 청년제대군인들의 성격창조에 바쳐진 언어형상의 생동성이다.

작가는 생활적언어로써 랑만과 기백에 차넘치는 청년제대군인들의 성격적특성을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군사용어들을 대사와 서술에 많이 리용함으로써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들의 용감하고 진취성있는 성격적특성을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4 층건물의 가파로운 층계를 보병총의 탄알뎡게

가 달린 용수철과 비교하였으며 벽돌공의 축조과정을 지휘관이 순박한 병사들을 다스리는것에 견주었으며 건설에서 조성된 일시적난관을 적의 거센 화력에 공격이 일시 저지당하였을 때의 전투정황과 대비하였으며 규격별 부재배치에 의한 건설속도를 따바리탄창에 견준 편발사격으로 표현하였다. 군사 용어들은 건설을 전투적으로 해제끼는 제대군인들의 혁명적사고방식과 혁명적일본새를 보여주는데서 아주 효과적이었다.

작가는 청년제대군인들의 락천적인 뒤생활을 파고들면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기백과 구김새없는 생활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반혁명분자들의 파괴압해책동과 관료주의자들에 의하여 조립식건설이 일시 난관에 부닥쳤을 때 《처벌》작업을 하고 있는 호섭이를 바라보며 익살을 부린 채만집이의 모습은 인상적이다.

《갑자기 호섭이가 일하는 웅덩이옆에서 꺾꺾대는 웃음소리가 대기를 주름잡으며 작업장에 울려갔다. 메질하고있는 호섭이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있던 채만집의 웃음소리였다.

<왜 웃나?>

<하하하하>

무엇이 우스운지 만집은 점점 더 옥타브를 높여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하나 둘 일손을 놓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얼떨떨해져가지고 뿌잇한 안개속을 두릿두릿 돌아본다.

어디에 우스운것이 있는지 찾아보는것이다.

<싱거운 녀석, 일은 안하구 왜 웃어대?>

웃음거리를 끝내 찾아내지 못한 누군가 소리쳤다.

<하하하하>

만집은 그냥 웃어댔다. 무던히도 우스워 웃음을 그칠수 없는 모양이다.

<뭐야? 정찰병!>

만집은 키득키득하며 토막토막 끊기는 말로 대꾸했다.

<옛적녀말이야, 호섭이가...이 곰보친구가...전국에 말이지... 미남자루 알려질번 했던 생각이 났댔어.>

<그게 뭣이 우스워?>

<수리개처럼 하늘을 날던게...지금은 저렇게 두더지신세가 됐거든! 처벌작업이나 하면서>》

생동한 의성의태어가 적당히 섞인 생활적언어로 웃는 사람의 호흡률에 맞게 문장을 끊어 대화를 개성화함으로써 락천적기질을 가진 청년들의 성격이 뚜렷이 살아났다.

청년제대군인들의 락천적생활모습은 합숙생활을 보여준 장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박수진이의 안해가 보낸 편지를 녀자의 목소리로 우습게 읽는 경팔이며 박수진이가 불의에 나타난데 당황한 여러 동무들의 각이한 표정은 묘사의 생동성으로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웃지 않을수 없게 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사건발전과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에 상응하게 문체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서정적문체로 생활정서적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때로는 랑만적문체로 혁명적열정을 토로하다가도 정론적문체로 함축하기도하면서 조립식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진 자랑스런 역사를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참으로 1958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대주의와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짓부시고 조립식건설의 새시대가 펼쳐진 력사적전환의 해였다. 이렇듯 거창한 사회력사적현실은 다양한 형식의 표현을 요구한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생활창조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지난날 토성랑의 움막집에서 살아온 고달픈 생활과 결합시켜 묘사함으로써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였다.

리상철은 어려서부터 눈물로 자랐다. 그는 지난날 토성랑움막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의 한숨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눈물을 젖줄기로 삼고 슬픔속에서 자랐다. 보통강이 범람하여 움집마저 물속에 잠겨버리고 사랑하는 누이와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비통한 울부짖음은 리상철이의 가슴에 웅이 맺히게 했다. 그에게는 지난날 눈물겨운 생활체험이 컸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높은것이다. 리상철은 철이 들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에 목매여 흐느끼는것이다.

작가는 리상철가정의 지난날 눈물겨운 생활을 서정적문체로 펴보이면서 감정을 조직하고 예리한 정론적문체로 썩어빠진 착취제도의 본성을 날날이 발가놓았다.

작품에서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 안긴 행복한 새생활과 아름다운 리상은 랑만적 표현수법에 의하여 감동적으로 안겨온다.

한 인간의 눈물에 대한 묘사에서도 지난날의 비통한 눈물과 오늘의 감격의 눈물을 생활적으로 깊이 느낄수 있게 한것은 등장인물이 체험하는 구체적인 생활적내용에 따라 표현형식을 달리하였기때문이다.

작가는 리상철이의 심리적자책감을 보여주는 묘사에서도 2 인칭형식의 표현수법을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래 상철이, 너는 뭐냐? 너는 그런 철부지가 아니냐? 수령님께서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시면서 서리낀 새벽도 모진 진창도 마다치 않고 우리를 위해 심려에 심려를 거듭하시는데 너는 그런줄을 자주 잊어버리고 아직까지 철부지에 들처럼 제앞에 차레진 혜택을 그저 누리지, 시름은 부모나 알노릇이란듯이. 청년조를 못그 시험건설을 맡아나선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혁신을 일으켜왔던가? 구멍벽돌을 창안한후에 또 무엇을 했던가? 얼마나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바쳐

왔던가? 해놓은 일없이 세계일등급의 유원지와 거리를 받고 혜택을 누릴 때 참말 어느만큼 떳떳할수 있겠는가?))

보는바와 같이 2인칭형식의 심리묘사는 표현의 심각성과 예리성으로 하여 자신의 부족점을 자신이 뉘우쳐나가는 혁명화과정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전문적인 건설분야의 기술용어들을 피하고 다 알수 있는 일반기술용어들로 언어형상을

조직한 표현의 통속성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느낄수 있도록 어휘표현을 골라쓴 묘사의 정확성은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 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소설의 하나로 되는것은 언어형상조직의 이러한 특성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농촌현실과 시형상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농사가 잘 안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들에서는 그 어떤 불리한 자연적조건도 이겨내고 해마다 승승장구하는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고있다.

이것을 우리는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농촌현실이다. 이것이 또한 농촌현실을 노래하는 우리의 시문학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의 서정이다.

이처럼 긍지높은 우리의 농촌현실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목소리로 깊이있게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서정시가 시대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이다.

잡지 《조선문학》에서 농촌주제의 시편들을 더듬어보면 우리의 시인들이 시대의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창작적사색을 깊이하고있다는것을 기쁘게 대할수 있다.

1. 풍성한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인을 똑바로 알 때 결과의 참뜻은 진실로 느낄수 있는것이다.

오늘의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노래하는 서정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과연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생각할수 없는 이 모든 혁명적현실을 이룩하도록 한 그 힘의 원천은 어디

에 있으며 요인은 무엇인가. 그를 추동한 사상적신념은 무엇이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흐르고있는가.

서정시는 바로 오늘의 사회주의농촌현실의 결과만을 노래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깊이있는 내용을 서정적으로 개방해주어야 한다.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노래한 우리의 서정시들은 이 문제해결에서 일정하게 좋은 점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시 《풍년작황의 들판을 거닐며》(리광근, 《조선문학》 1977. 10)는 아버지수령님의 배려로 확고한 풍년작황이 마련된 들판을 거니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면서 풍년작황에 감탄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서정적으로 잘 노래하고있다.

탐스런 벼포기들과 강냉이들이 영그는 들판에 선 서정적주인공은 작년대풍에 무릎을 쳤더니 올해의 만풍년의 흐뭇한 작황엔 세상이 들썩하게 복을 울릴것이라는 신심에 차있다.

온 세계가 불별의 가물과 무더기비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아우성치고있을 때 만풍의 복소리 년넌히 높은 들판에 긍지높이 서있는 서정적주인공의 자부심, 이것을 하늘이 주었는가, 땅이 주었는가. 서정시는 이렇게 대답하고있다.

오, 한겨울 눈길에
씨앗을 골라주시고
왕가물 봄날에
땅속의 물길을
땅우에 열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손길
거룩하신 그 걸음걸음이

강냉이바다, 벼바다로
 끝없이 끝없이만 펼쳐진 내 나라
 찬서리 찬바람속에서도
 이 땅엔 어버이손길
 따사롭게 스미여
 탐스러운 포기포기
 바라보는 이 마음
 뜨거움에 젖어라

그래서 서정적주인공은 알알이 난알팻힌 그 이삭
 이삭을 안아보고싶기도 하고 벼이삭 영그는 소리에
 끌려 해종일 들판에 살고픈 마음이 한껏 부풀어오
 르기도 한다.

이 시에는 서정적주인공의 호기있고 기세좋은 모
 습, 바야흐로 만풍의 가을이 약속되는 들판에 누버
 지는 농군의 궁지높은 걸음새가 생동하게 풍겨있다.

궁지높은 농업근로자의 느낌이 풍만한 서정속에
 폭 배여있으므로 독자의 느낌도 감동적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론 사랑이 스며 풍년작황우
 에 건뚝 열린 하늘도 저렇게 한껏 푸르고 아름답다.
 하여 서정적주인공은 가슴에 환희와 기쁨을 부풀어
 오르도록 안았다. 그리고 충성의 정에 겨워 어버이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대를 이어 천년을 이 벌에
 살자고 굳게 다짐하며 이렇게 서정적으로 호소한다.

아, 어버이사랑의
 미소를 담아
 따사로운 해별
 은혜의 빛발이
 들에 퍼져
 가슴에 스미여
 천만년 만풍의 가을이
 이 땅, 이 하늘에 열려라

그 어떤 한랭전선의 영향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손길, 그것은 바로 은혜론 태양의 빛발로 사
 랑의 미소로 되어 이 황금들판을 비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승을 부리는 랭기도 이겨내고 가
 물도 이겨내었다.

이것이 서정시가 풍기는 사상이다.

서정적주인공의 이러한 사상감정은 그 어떤 론리
 적인 설명으로써가 아니라 서정속에 폭 배여있다.
 그래서 누리를 향해 만풍의 자락을 소리높이 해가

저물도록 웨쳐보고싶은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독
 자들도 뜨겁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시의 지향
 세계에 자기의 감정을 합친다.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노래한 서정시는 바로 이러
 게 오늘의 결과를 이룩하도록 한 그 요인이 무엇인
 가를 서정적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속에 들어있는 가장 값높은
 참다운 뜻을 깊이있게 체득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풍년을 노래한 시들이라고 하여 해마다
 풍년들어 좋구나 하는 개념적인 어휘들만을 몇개의
 시들에 라렬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시일수
 록 소리만 요란할뿐 의의있는 종자와 풍만한 서정
 은 없고 앙상한 론리만 드러난다.

원인은 명백하다.

현실의 결과에 도취한 나머지 그 열매속에 스며
 있는 깊은 뜻을 서정적으로 드러내지 못한데 있다.
 이렇게 되면 거창한 현실의 외적표상만 남게 되며
 정치적구호만 강조되게 된다. 따라서 종자를 독창
 적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깊은 서정성을 담을수 없
 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인들이 시문학의 고유한 특
 성인 풍만한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을 독창
 적으로 체험하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시의 서정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방
 도를 밝혀주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농촌현실에 대한 깊은 생활적체
 험에 기초하여 시인의 탐구적인 자세로 그를 정서
 적으로 파고들 때 만풍의 가을이 가져다주는 참뜻
 을 진실한 서정으로 노래할수 있는것이다.

2. 서정속에 배여있는 《큰 이야기》

서정시는 하나의 작은 시행속에서도 온 시대를
 안는 서정적체험이 반영된다. 그런것만큼 하나의
 서정시에는 단 몇마디로써는 말할수 없는 하많은
 이야기가 서정속에 용해되어있다.

그것은 결코 소설적인 이야기와 같은것이 아니다.

소설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있지만 서정시는 그
 자체에 이야기거리는 없다. 그러나 서정을 통하여
 말해주는 《이야기》는 실로 큰것이다. 그래서 서
 정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시에 이야기가 있다, 없다,
 하고 말하게 된다. 《이야기》가 있다는것은 서정
 시가 잘되었다는것이며 없다는것은 잘 안되었다는
 것이다.

아, 이 땅을 다 밟어지고 일어설수 없어
가슴에 붙안고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두고서는 차마 한발자욱도 옮길수 없어
어머니는 아예 땅을 안고 누우시네

그러자 그 언제인가
첫애기를 재우던 그 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부르고싶어 ...
어머니는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싶고...
(《땅을 분여받은 날 밤에》, 김정곤)

장군님께서 주신 새 땅을 부여안고 어머니는 어찌하여 이 밤을 잠들지 못하고 그 흙을 쥐여 말아보고 품어보며 감격하는것인가.

서정시는 바로 땅에 깃든 그 많은 이야기를 서정을 통하여 말해주고있다.

장군님께서 주신 새 땅 구천평! 그것은 단순히 씨뿌리고 가꾸며 낱알을 자래우는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였다. 인간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존엄을 빼앗기고 살아야 했던 착취계급사회에서 어머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땅의 《노예》가 되어야 했다. 그 땅이 착취계급의 소유물이 되고있음으로 하여 《땅》의 희생물이 되어야 했고 여기에 운명을 판도질당하여야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한뼘기의 제땅이 없어서 산비탈 돌밑에 아버지를 묻어야 했으며 그 밑에 또한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묻어야 하는 모진 운명의 수난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모진 운명의 수난은 끝장이 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땅에 얹히워있던 운명의 철쇄를 영원히 짓부셔버리고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이것은 《땅》의 수난자였고 노예였던 어머니에게 땅을 다스리는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게 하여준 재생의 길이었다. 하여 어머니는 땅을 자래우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가 되어 그 귀한 땅을 살찌우고 기쁨지게 하는것이다.

이렇듯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였으며 땅의 《구속》에 얹매였던, 력사밖에 있던 농민들을 땅의 주인이 된 자주적인 인간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우리 농촌의 오늘의 찬란한 현실에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립장과 태도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야

기가 깃들어있다.

농촌현실에 대한 시인의 심오한 철학적사색은 함축되고 비약된 몇행의 시행속에서 이 모든 깊은 내용을 서정적으로 느낄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는 실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가.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닌 서정시의 《이야기》, 그것은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서정적인 파악에서 흘러나오며 벽차고 아름다운 현실속에 배여있는 깊은 뜻을 섬세한 서정적조화속에 엮어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서정속에 있는 생활의 합법칙성을 깊이 감수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서정시는 하나의 어휘와 표현, 하나의 시행과 련에도 가장 전형적이고도 일반화된 시대의 감정이 배여있어야 한다. 또한 그 운물조성과 련구성에까지도 심리적음영을 나타낼수 있게 정밀하게 려과되고 정제된 섬세한 정서적감정과 조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현실에 대한 이러한 정서적파악이 없이 자기의 생경한 론리만을 앞세우면서 번다한 이야기 거리들과 사건들을 구태의연한 감정조직으로 엮어놓는다면 그것은 서정시만이 지닐수 있는 《큰 이야기》를 가질수 없는것이다.

서정시- 그것은 실로 서정의 호수속에 《끝없는 이야기》를 담고있는 심장의 울림과도 같은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배려속에 주체농법이 빛나게 구현되고있는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노래한 이러한 서정시들을 대하게 되는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3. 자기의 목소리와 발자국을 남기자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반영한 좋은 시들이 나오고 있는것은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할바가 못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공업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더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다른 문제들도 다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농사를 잘하는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바와 같이 농사를 잘

짓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주체농법관철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데서 고수가 되고 나팔수가 되는것은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의 책임적인 사업이다.

시인들은 우선 사회주의농촌현실에 낯을 돌리고 열정을 불태워야 하며 농촌현실을 개성적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에서는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할뿐아니라 개성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구현하여 자기의 독창적인 얼굴을 가질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서정시창작에 이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시적탐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탐구가 없이 시인의 창조적사색에 의한 개성적인 서정을 낳을수 없는것이다.

시인들은 우리 농촌현실에 대한 당정책의 요구의 견지에서 시의 종자를 독창적으로 찾아야 하며 그를 꽃피우기 위한 체험과 느낌이 오직 그 시인만이 가질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 깊은 철학적내용을 담은 개성적인 시인의 서정을 느낄수 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 어떤 자연의 구축도 이겨내면서 풍년을 가져오는 사회주의농촌전야에 자기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여야 하며 자기의 발자국이 찍히게 하여야 한다.

흔히 사회주의농촌현실과 같이 동일한 주제분야를 노래하게 되는 서정시들에서 일부 경우에는 서정의 주인이 누가 누구인지 가려보기 힘든 때도 있는것이다.

오늘 한랭전선의 모든 영향을 이겨내고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이룩하는 우리의 다양한 농촌현실을 놓고도 그것을 체험하는 시인의 느낌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다.

이것은 바로 농촌현실이 다양하고 또 시인들의 개성이 다르기때문에 이 두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서정시 역시 개성적이고 비반복적이어야 한다는것이 합법칙적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므로 서정시에는 다름아닌 자기 심장의 박동이 세차게 울려야 하며 자기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여야 한다. 천만송이 갖가지 꽃들이 자기의 독특한 색깔과 모양으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면서 화원을 아름답게 하면서도 자기 특유의 향기를 뿜는것과도 같이 서정은 바로 시인 고유의 색깔과 모양,

향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정시일반에 요구하게 되는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노래한 시들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분야일수록 유사한 틀에 박힌듯한 얼굴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기때문이다.

서정시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독창적으로 탐구한 서정과 함께 그에 알맞는 운률을 잘 부여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의 산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운률을 잘 조성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운률이 없으면 시로 될수 없다. 서정시의 운률은 단순한 음수률의 배열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다. 또한 일정한 호흡을 조절하기 위해서만도 아니다. 운률은 그자체에 벌써 서정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운률은 서정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우리가 흥에 겨운 춤가락에서는 양산도 장단도 쓰고 또 락천적이고 경쾌한 톨동에서는 안땅장단을 쓰는것과도 같이 운률도 서정적주인공의 감정변화, 분위기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

우에서 레로 든 서정시 《풍년작황의 들판을 거닐며》는 서정적주인공의 호기있는 걸음새에 맞게 운률이 건드러지게 조성되어있다.

또한 서정시 《땅을 분여받은 날 밤에》는 주인공의 절절한 심정과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타낼수 있게 운률이 조성되어있다. 즉 단순한 호흡조절이나 시줄과 련의 구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짧고 긴 휴식, 생략 등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시의 철학적인 내용을 더욱 돈구어주고있다.

그런데 일부 시들에는 시적감정과 분위기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인 련을 설정하거나 단순히 호흡조절을 위해서 음수률을 만들고있다. 이것은 서정시의 서정성을 높이는데서와 개성을 살리는데서 제동기로 되고있다.

유보도를 한가로이 걷는 사람과 령길을 오르는 사람의 걸음새와 흐름이 같을수 없듯이 서정의 양상이 다른데 그 운률이 같을수 없다.

개성적인 서정을 낳는것과 함께 운률도 독창적으로 부여하는것, 이것은 오늘 우리 서정시문학이 절실히 해결해야 할 선결적문제이다.

모든 시인들을 우리의 사회주의농촌현실을 더욱 풍만한 서정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기 위하여 피타는 탐구적정열을 불태움으로써 더 좋은 서정시들을 창작해야 할것이다.

력사소설 현상모집요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의 계급투쟁을 취급한 소설도 쓸수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여 계급투쟁이 없었던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의 형식이 오늘과 다를뿐이지 노예주와 노예, 봉건령주와 농노 사이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투쟁들도 소설로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적립장이 확고히 선 력사소설창작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력사소설 현상모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응모작품 종류

-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
- 력사적전설, 력사이야기

2. 응모작품의 주제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한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반동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 작품,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생활을 내용으로 한 작품.

3. 응모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해외공민 포함)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응모작품 보낼곳과 보내는 방법

- 보낼곳

평양시 외성구역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보내는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가지고 올수 있다.

· 응모작품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현 직장직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 다른 현상모집과 구별하기 위하여 우편물 겹봉에 반드시 《력사소설현상응모작품》이라고 밝혀야 한다.

5. 응모작품 받는 기간과 심사결과 발표

응모작품 받는 기간은 1978 년 4 월 1 일부터 1980 년 4 월 30 일까지이며 1980 년 9 월 9 일을 전후하여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6. 응모작품에 대한 시상 및 처리

- 우수한 작품을 낸 당선자들에게는 시상한다.
- 우수한 작품들은 출판물에 발표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